

아태지역 육아정책 개발협력 수요 분석 및 실행 방안 연구

문무경 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18-54-01
연구보고 2018-31

아태지역 육아정책 개발협력 수요 분석 및 실행 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문 무 경**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자 **이 윤 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조 미 라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조 숙 인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이 솔 미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원)

육아정책연구소
주관연구기관 :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협력연구기관 : UNESCO Bangkok, ARNEC

연구보고 2018-31

**아태지역 육아정책 개발협력 수요 분석 및
실행 방안 연구**

발행일 2018년 12월
발행인 백선희
발행처 육아정책연구소
주소 06750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3층, 4층
전화 02) 398-7700
팩스 02) 398-7798
홈페이지 <http://www.kicce.re.kr>
인쇄처 경성문화사 02) 786-2999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ISBN 979-11-87952-90-9 (93330)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아태지역 육아정책 개발협력
수요 분석 및 실행 방안 연구”

1. 협동연구 총서 시리즈

협동연구 총서 일련번호	연구보고서명	연구기관
18-54-01	아태지역 육아정책 개발협력 수요 분석 및 실행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2. 참여연구진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진
주관연구 기관	육아정책연구소	문무경 선임연구위원(총괄책임자)	이윤진 연구위원 조미라 부연구위원 조숙인 부연구위원 이슬미 연구원
협력연구 기관	UNESCO Bangkok	Maki Hayashikawa	Kristy Bang
	ARNEC	Cliff Meyers	Evelyn Santiago

머 / 리 / 말

우리나라는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5)에서 국제사회가 채택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에 기여할 것을 개발협력 정책의 비전으로 삼고 개발협력 사업 전반을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연계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지속가능발전목표의 가장 근간이 되는 영유아부문의 경우, 초중등 및 성인부문에 비하여 개발협력은 매우 미미한 실정이며, 특히 육아정책 컨설팅 분야는 전무하다. 이에 영유아부문 지속가능발전목표의 국내 이행은 물론 아태지역 국가들의 이행에 기여하기 위하여 육아정책 개발협력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아태지역 육아정책 분야의 개발협력을 위하여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피지를 대상국으로 3개년(2018~2020) 동안 수행될 예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아태지역 대상국의 육아정책 개발협력 수요를 총체적으로 진단하고 우선순위 개발협력과제를 선정하여 실행하는 것이다. 특히, 본 연구는 유네스코 아태지역 본부와 ARNEC(Asia Regional Network of Early Childhood)과의 콘소시엄 형태로 수행되는 협동연구로, 아태지역 육아정책연구 네트워크 구축 및 기초자료 생성에 기여하고 개발협력의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의 협력연구기관인 유네스코 아태지역 본부 및 ARNEC 연구진을 비롯하여 3개국의 육아정책 담당 공무원과 관계자들, 조사와 자문에 응해 주신 국내 개발협력 전문가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끝으로 본 연구 보고서는 연구진의 견해이며 연구소의 입장이 아님을 밝혀 둔다.

2018년 12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백 선 희

목 차

요약		1
I. 서론		9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1
2. 연구 내용		14
3. 연구 방법		15
II. 연구의 배경		25
1. 국제개발협력의 개념 및 동향		27
2. 선행연구 검토		30
3. 선정국의 기본 현황		32
III. 국내·외 육아정책 개발협력 정책 및 사업 현황 분석		37
1. 국제기구 육아정책 개발협력 사업 현황		39
2. 개발협력 관련 국내 전문가 의견 분석		40
IV. 선정국의 육아정책 분석		49
1. 우즈베키스탄의 육아정책		51
2. 베트남의 육아정책		59
3. 피지의 육아정책		64

V. 아태지역 육아정책 개발협력 수요 분석	69
1. 국가별 육아정책 개발협력 수요	71
2. 공통적 육아정책 개발협력 수요	90
VI. 아태지역 육아정책 개발협력 컨설팅 모델 개발	93
1. 육아정책 컨설팅 모델 개발 방향	95
2. 육아정책 개발협력 컨설팅 모델(안)	96
3. 향후 육아정책 개발협력을 위한 제언	101
참고문헌	104
Abstract	110
부록	113
부록 1. 국내 전문가 조사지	115
부록 2. 아태지역 육아정책 개발협력 수요 조사지(영문)	123

표 목차

〈표 I-3-1〉 콘소시움 기관 담당자 명단	15
〈표 I-3-2〉 우즈베키스탄 면담 및 방문관찰 실시	18
〈표 I-3-3〉 피지 면담 실시	19
〈표 I-3-4〉 베트남 면담 실시	19
〈표 I-3-5〉 국내 전문가 조사 대상자 일반적 특성	20
〈표 I-3-6〉 협력기관 공동연구진과의 온라인 협의 내용	21
〈표 II-2-1〉 동티모르 유아교육 수요조사 항목	31
〈표 II-2-2〉 동티모르 유아교육의 SWOT	31
〈표 II-3-1〉 우즈베키스탄 국가 정보	32
〈표 II-3-2〉 베트남 국가 정보	34
〈표 II-3-3〉 피지 국가 정보	35
〈표 III-2-1〉 전문가 조사결과 참여자 정보	41
〈표 III-2-2〉 개발협력 연구/사업 기본 정보	42
〈표 III-2-3〉 개발협력 연구/사업 수행과정의 어려움	43
〈표 III-2-4〉 개발협력사업의 모니터링 및 평가	44
〈표 III-2-5〉 향후 개발협력 연구/사업을 위해 가장 필요한 모니터링 및 평가(1+2순위)	45
〈표 III-2-6〉 우리나라 육아정책 및 교육 분야 개발협력 발전 방안	46
〈표 IV-1-1〉 2017·2018 우즈베키스탄 유아교육 추진 목표 비교	55
〈표 V-1-1〉 한국 유치원·어린이집 공통지표	75
〈표 V-1-2〉 베트남 정부의 ECEC 교육비 예산(2011~2015년)	78
〈표 VI-2-1〉 SDG4.2 달성을 위한 아태지역 우선 정책영역 세부 목표	100

그림 목차

〈그림 I-3-1〉 육아정책 개발협력을 위한 콘소시움	17
〈그림 I-3-2〉 연구내용 및 방법	24
〈그림 IV-1-1〉 우즈베키스탄 유아교육 정책 협력기관	54
〈그림 IV-1-2〉 우즈베키스탄 유치원 확충 방식(2017·2018)	55
〈그림 IV-1-3〉 우즈베키스탄 SEVINCH 공립유치원	56
〈그림 V-1-1〉 우즈베키스탄 유치원 교사 수급 추정(2017~2031)	73
〈그림 V-1-2〉 피지 ECCE의 수요	83
〈그림 V-1-3〉 피지의 국가보조금 사용 가이드라인	83
〈그림 V-1-4〉 피지의 Lovu Hart Kindergarten	85
〈그림 V-1-5〉 피지의 교사 전문성 수요	87
〈그림 V-1-6〉 태평양 국가들의 ECE 질 구성 요소	88
〈그림 VI-2-1〉 육아정책 개발협력 컨설팅 단계 및 연차별 추진단계	98
〈그림 VI-2-2〉 육아정책 개발협력 컨설팅의 3단계 및 주요 내용	98
〈그림 VI-2-3〉 아태지역 국가의 SDG4.2 달성을 위한 5가지 정책영역	99

요약

1. 서론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정부는 국제개발협력을 통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에 기여하고자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및 국가협력전략을 수립하였으나, 대부분 초중등생 및 성인 대상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현재까지 취학 전 부문에 있어서의 개발협력은 매우 미미한 실정임.
- 우리나라는 아태지역에서 누리과정의 도입으로 유일하게 무상 유아교육과 보육을 달성한 국가로서 최근 많은 아태지역 개도국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음.
 - 우리나라 육아정책의 발전 경험, 성공사례와 제한점을 공유하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개발협력 과제 발굴 및 추진을 통하여 아태지역 개도국의 육아정책 발전을 지원하고 기여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의 중점협력국인 동남아시아의 베트남, 중앙아시아 지역의 우즈베키스탄, 태평양지역의 피지 총 3개국을 선정하여 개발협력 수요 파악 및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며, 대상국별 선정 근거는 다음과 같음.
 -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후손 및 재외동포 거주로 인해 개발협력의 당위성이 강하며, 전 세계적으로 최초의 유아교육부(Ministry of Preschool Education) 신설 등 유아교육 개혁과 발전에 대한 국가적 의지가 강력함.
 - 베트남: 신남방정책의 주요 대상국인 동시에, 국내 다문화배경 부모 출신국 중 두 번째로 비중이 높은 국가이므로 국내 다문화의 이해도 향상에도 유용함.
 - 피지: 최근 유아교육 발전에 대하여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표명함. 태평양 섬나라 15개국의 거점국가로서, 유니세프 등 국제기구 등이 소재되어 있으며, 주변 국가들에 개발협력의 파급 효과 기대

- 본 연구는 3개년 연구로 추진될 예정임.
 - 1차년도 : 아태지역 육아정책 개발협력 수요 진단 및 컨설팅 모델 개발
 - 2차년도 : 아태지역 육아정책 우선과제 추진을 위한 컨설팅 실행
 - 3차년도 : 아태지역 육아정책 개발협력 컨설팅 성과 평가 및 향후 방향성 설정
- 1차년도 연구인 본 연구의 목적은 아태지역 3개국의 육아정책 개발협력 수요를 총체적으로 진단하고, 향후 육아정책 부문의 체계적인 개발협력을 위한 컨설팅 모델을 개발하고 선정국의 세부 개발협력과제를 제시하는 데 있음.

나. 연구내용

- 아태지역 영유아기 관련 국제기구 및 국내 개발협력사업 현황 파악
-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피지 3개 선정국의 유아교육 및 보육 관련 기본 현황, 주요 정책 파악
- 3개 선정국의 개발협력 수요 진단
- 3개 선정국에 관한 육아정책 개발협력 컨설팅 모델 개발

다. 연구 방법

- 문헌연구
- 국내외 연구협의체 구성 및 운영
- 유네스코 아태지역 본부 및 ARNEC과 콘소시움 구성
- 선정국별 현지 면담조사 및 관찰 실시
 - 현장의 실태 및 지원 요구를 파악하고자 설립유형 및 소재지별로 현지의 유아교육 및 보육 서비스(유치원, 보육시설 등)를 국가별로 4~6개 기관씩 방문 및 면담
- 국내 전문가 면담 및 조사 실시
- 온라인 협의회 개최
 - 유네스코 아태지역 본부 및 ARNEC 담당자, 연구진, 3개 선정국 담당공무원, 월 1회 연구추진 경과 보고 및 주요 사안 협의

□ 정책세미나 개최

- 주최: 육아정책연구소, 박경미 의원실, 유네스코 아태지역 본부 및 ARNEC
- 일시 및 장소: 2018년 11월 9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 주제: 아태지역 육아정책 개발협력 수요 진단 및 향후 과제
- 참석자: 3개 개도국 담당공무원, 유네스코 아태지역 본부 및 ARNEC 담당자, 국내 개발협력 사업 네트워크 관계자(중앙 부처 공무원,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아태국제이해교육원, KOICA,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굿네이버스 담당자, 유아교육과 보육 학계 전문가 등(총 40여명)

2. 연구의 배경

가. 국제개발협력의 개념 및 동향

- 국제개발협력이란 용어는 목적과 방향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되며, 이전에는 공식 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를 교육 분야에 적용하는 형태였으나, 최근에는 국가 간 ‘파트너십’이 점차 강조되고 있음(김철희, 이영현, 조정원, 2012).
- UN과 국제사회는 2015년 만료된 MDGs에 이어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채택하여 사회개발 및 환경보호 등 총체적 발전을 추구하는 패러다임을 제시함.
 - SDG 4는 교육부문 전반에 대한 목표로, 이 중 두 번째 세부목표(Target 4.2)가 영유아 부문의 목표임.
 - 최근 제3차 아태지역 장관 육아정책포럼(2018. 6월)에서 ‘카트만두 Action Statement’를 발표하여 SDG4.2 이행을 위한 5가지 우선 영역을 선정함(재정투자, 부문 간 정책조정, 교육기회 형평성, 질적 향상, SDG4.2 이행 모니터링)

나. 선행연구 검토

- 아태지역 개발협력 관련 국내 선행연구는 매우 소수에 불과함.

- 김경철(2017)의 동티모르 대상 개발협력 수요조사 연구: 취원을 제고 및 유아교사교육을 수요로 파악, 유치원 모델 제시 및 교사양성과 연수제도의 협력체계 구축을 개발협력 과제로 제시.
- 몽골과 베트남 및 유아교육 비교 분석 연구(나정, 장명림, 최수향, 1998), 미얀마 유아교육 ODA 활성화 방안 연구(임부영, 2009)가 있음.

3. 국내·외 육아정책 개발협력 정책 및 사업현황 분석

가. 국제기구 육아정책 개발협력 사업 현황

- 기존 육아정책 개발협력 연구 및 사업은 교사교육, 아동발달 척도 개발과 적용, 평화교육, ICT, 유아교육과 보육 재정 등, 최근 주제가 다양해지고 있음.
- 유네스코 본부: 영유아교사 설문조사(Survey of Teachers in Pre-primary Education, STEPP)
- 유네스코 아태교육국: 영유아교사 역량개발 프레임워크(ECEC Teacher Competency Framework)
- ARNEC: 아태지역(캄보디아, 라오스, 몽골, 필리핀, 태국, 바누아투, 베트남 등) 3-5세 유아를 위한 발달측정도구 개발 등

나. 국내 육아정책 개발협력 정책 및 사업 분석

- 현재 우리나라는 효과적 국제개발협력을 위해 ODA 중점협력국(Country Partnership Strategy, CPS)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육아정책 관련 개발협력 연구 및 사업은 거의 부재한 상황임.
- 동티모르 육아정책 개발협력을 위한 수요조사(김경철, 2017) 및 부천대학교 전문가 대상 회의 등을 통해 도출한 향후 방향성:
 - '질적 수준 향상' 중심, 현지 수요 기반, 선정국의 자립 지원을 강조

4. 선정국의 육아정책 분석

가. 우즈베키스탄의 육아정책

□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 및 영양

- 모성사율은 2012년 산모 10만 명당 20.2, 이는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들 평균보다 개선된 수치임(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2016: 14).
- 체중미달 아동의 비율은 2011년 1.82%로 2002년 7.1%에 비해 감소하였으며, 5세 이하 아동 빈혈 유병률 및 요오드 결핍증 역시 감소함(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2016: 38).

□ 유아교육 정책 현황

- 2017년 9월 30일 유아교육 확대를 위해 유아교육부(Ministry of Preschool Education) 설립. 그 이후, 유치원 취원율 6% 상승, 교사자격증 발급,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을 새롭게 명명하고 내용도 재구성하는 등 현저한 발전을 보이고 있음.
- 현재 유치원 교육은 무상이 아님(공립유치원은 대개 월 20~25\$를 자부담하고, 사립은 월 150\$ 이상의 비용을 학부모가 부담함).
- 지역에 따라 질적 편차가 크며, 비용, 위치 등으로 인해 ECCE 취원율이 낮음.

나. 베트남의 육아정책

□ 모성과 영유아 건강 및 영양

- 영아사망률은 2012년 출생아 1,000명당 18명으로 1990년 대비 49% 감소함(OECD, 2014: 17).
- 모성사망은 2015년 출생 10만 명당 54명으로, 2000년 이후 33% 감소함.

□ 유아교육 정책 현황

- 2016년 기준 ECCE 취원율은 86.76%로 상당히 높음.
- 베트남은 사회적 배경과 무관하게 모든 이에게 평등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ECCE에 등록된 소수민족 아동은 2012~2013년에 16.32%로 나타남(Ministry of Education and Training, 2015: 14).
- ‘Education for All(EFA)’ 이후 2020년까지 베트남 유아교육은 접근

(Access), 질(Quality), 운영(Management)의 구체적 방향성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음.

다. 피지의 육아정책

□ 모성과 영유아 건강 및 영양

- 5세 미만 아동의 사망률은 2010년 1,000명당 24.5명에 비해 2015년 기준 22.4명으로 감소함.
- 모성사망률은 2015년 출생아 10만 명당 30명으로, 2000년 이후 29% 감소한 수치이며, 소아예방접종률은 OECD 국가 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임.

□ 유아교육 정책 현황

- ECCE 등록률은 2002년부터 2012년까지 2,230명에서 9,577명으로 증가함 (Ministry of Education, National Heritage, Culture & Art, 2015: 17).
- 현재 국가 ECCE 정책 및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나, 시설 및 질 관리 기준과 영유아 학습 및 발달 기준은 정립하는 과정임.

5. 아태지역 육아정책 개발협력 수요 분석

가. 국가별 육아정책 개발협력 수요

□ 우즈베키스탄 육아정책 개발협력 수요 분석

- 구조적 요소: 법적 기반 마련, 유치원 확충
- 질적인 요소: 교사 수급을 위한 양성교육, 교육과정의 다양성, 서비스 질 평가지표, 데이터 수집 및 활용

□ 베트남의 육아정책 개발협력 수요 분석

- 구조적 요소: 법제도적 장치, 예산의 확대, ECEC 주체들 간 협력체계의 구축
- 질적인 요소: 교사역량 강화, 교육시설 및 교육과정에 대한 지원, 특수아 지원, 데이터 분석 및 활용

□ 피지의 육아정책 개발협력 수요 분석

- 구조적 요소: 시설기준 마련 및 투입 재정

- 질적인 요소: 교사교육, 교육과정 운영의 질, 서비스 질 평가시스템, 데이터 수집 및 활용

나. 공통적 육아정책 개발협력 수요

□ 구조적 요소

- 유아교육 및 보육에 대한 정부의 공적 투자 확대
- 전반적인 시설설비 기준 및 규정 마련과 인프라 구축

□ 질적 요소

- 교사 양성교육 및 현직 연수를 통한 전문성 신장
- 서비스 질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국가수준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현장의 자율성 및 다양성 증진
- 자료수집, 분석 및 활용 강화

6. 아태지역 육아정책 개발협력 컨설팅 모델 개발

가. 육아정책 컨설팅 모델 개발 방향

- 선정국의 육아정책 수립과 실행 지원을 위한 시스템 구축
- 개발협력 컨설팅의 효과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 우리나라의 우수 정책사례 공유 및 확산과 더불어 향후 활용을 위한 선정국의 육아정책 정보 및 사례 축적

나. 육아정책 개발협력 컨설팅 모델(안)

□ 육아정책 개발협력 컨설팅의 일반적인 모델(안):

- 1단계: 육아정책 개발협력을 위한 진단 및 우선순위 선정
- 2단계: 육아정책 개발협력 세부 실태조사 및 실행과제 도출
- 3단계: 육아정책 개발협력 전략 선정 및 실행계획 수립
- 4단계: 육아정책 개발협력 실행 및 모니터링
- 5단계: 육아정책 개발협력 영향 평가

□ 육아정책 개발협력 컨설팅 영역

- SDG 4.2 달성을 위하여 제3차 아태지역 장관포럼에서 발표한 5가지 우선적인 정책영역: 1) 재정투자 확대, 2) 다부문간의 조정과 협력, 3) 접근성을 보장하는 기회형평성, 4) 질적 제고, 5) SDG 4.2 이행 모니터링

다. 향후 육아정책 개발협력을 위한 제언

□ 전반적 고려사항

- 개발협력 대상국의 사회와 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 및 자료 수집 축적
- 육아정책 개발협력 컨설팅 관련 선정국의 기대치에 대한 명확한 의사소통
- 국내외 유관기관 및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킹 및 적극적인 참여 유도

□ 대정부 제안사항

- 개발협력 원칙에 대한 정부부처의 합의와 방향성 필요
- 육아정책 개발협력 증장기 마스터플랜 수립 및 개발협력 거버넌스의 체계화
- 국제수준에서 발표된 주제별 세부 성과지표에 기초한 찾아가는 육아정책 개발협력 활성화
- 우리나라의 장점을 전수해줄 수 있는 다양한 사업 형태 발굴
- 전문가 양성 및 현지 지원인력 확보
- 국제기구와의 협업 강화
- 성과평가 모델 개발 및 우수사례 분석 등 관련 연구 강화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내용
3. 연구 방법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UN을 중심으로 국제사회는 2030년까지 향후 15년간의 비전을 제시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채택하고 이행할 것을 합의하였다. 지속가능발전목표는 지난 15년간의 개발목표였던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에 비하여 사회, 환경, 경제성장 등 보다 다양한 주제들을 포괄하며, 개도국뿐만이 아니라 선진국도 이러한 목표를 달성해야 할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안해정·서예원·윤종혁 등, 2016). 특히, 영유아 교육과 보육이 UN의 세계발전목표 중 하나(SDG Target 4.2: 취학 전 모든 여아와 남아에게 양질의 교육과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초등교육을 준비하는 것)로 포함된 것은 역사상 최초이므로 그 의미가 크다.

SDGs 채택과 더불어 우리나라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 적용할 「제 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관계부처 합동, 2015년 11월). 제2차 계획에서는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의 주요과제를 추진함으로써 SDGs 달성에 기여할 것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협력국의 소득수준 및 원조환경, 우리나라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총 24개의 중점협력국을 선정하였으며, 각 중점협력국별 국가협력전략(Country Partnership Strategies: CPS)을 새롭게 수립하였다(안해정 등, 2016). 그러나 현재까지 우리 정부 개발협력의 대부분이 초·중·고등학생 및 성인 대상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취학 전 부문에 있어서의 개발협력은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교육제도는 단기간에 획기적으로 이룩한 국가경제발전의 원동력으로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아왔다. 특히, 평생학습의 출발점인 영유아기 육아정책

의 경우, 우리나라는 아태지역에서 누리과정의 도입으로 유일하게 무상 유아교육과 보육을 달성한 국가로서 최근 많은 아태지역 개도국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 육아정책의 발전 경험, 성공사례와 제한점을 공유하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개발협력 과제 발굴 및 추진을 통하여 아태지역 개도국의 육아정책 발전을 지원하고 기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책기관인 육아정책연구소는 유네스코 아태지역 본부, 유니세프 ROSA 및 EAPRO, ARNEC(Asia Regional Network of Early Childhood), KDI와 공동으로 아태지역 장관 육아정책포럼을 2013년 최초로 개최하였다. 본 포럼은 'Are Children Ready for School? Are Schools Ready for Children?'을 주제로, 아태지역 31개국의 대표단과 22명의 장관 및 국제기구 관계자 등 약 220여명이 참석하여 유아교육과 보육 발전에 대한 경험과 전략 공유의 장을 제공하는 계기가 되었다(문무경·채송아, 2013). 제2회 아태지역 장관 육아정책포럼(2016년 7월, 말레이시아 정부가 주최)에서 아태지역 37개국이 SDG Target 4.2 이행을 위한 '푸트라자야 선언문'을 채택하여 상호협력하고 단위국가 및 지역수준에서 이행 정도를 모니터링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육아정책연구소와 유네스코 아태지역 본부는 공동으로 푸트라자야 선언문 이행을 위한 후속 보고서(문무경·Mami Umayahara·박상신, 2017)를 작성하였으며, 그 주요 결과를 제3차 아태지역 장관포럼에서 30개 참여국 대표단과 공유하였다.

UN기준에 의한 최빈국 및 육아정책과 지원인프라가 취약한 국가들을 개발협력 사업의 대상국으로 우선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제한된 인력과 재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의 중점협력국인 동남아시아의 베트남, 중앙아시아 지역의 우즈베키스탄, 태평양지역의 피지 총 3개국을 선정하여 개발협력 수요 파악 및 계획을 수립하고자 한다. 3개국을 선정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우즈베키스탄은 고려인 후손 및 재외동포가 다수 거주하므로 개발협력의 당위성이 높은 국가이며, 최근 유아교육부(Ministry of Preschool Education) 신설 등, 유아교육 발전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가장 강력한 국가 중 하나이다. 베트남은 신남방정책의 주요 대상국이며, 현재 국내에서 영유아 자녀를 둔 다문화배경 부모 출신국 중 중국 다음으로 두 번째로 비중이 높은 국가로서, 개발협력을 통하여 베트남 육아정책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토대로 베트남 현지의 육아정책 개

발과 더불어 국내 베트남 출신 다문화가정 부모의 양육지원 및 영유아의 발달과 학습 지원에 대한 함의를 동시에 구할 수 있을 것이다. 피지는 태평양 섬나라 15개국의 거점국가로서 유니세프 등의 국제기구들이 위치해 있고 영어를 사용하므로 개발협력이 용이하다. 최근 유네스코 아태지역 본부에서 태평양 섬나라 15개국을 위한 ECCE Teacher Competency Framework 워크숍을 피지에서 개최하는 등 인근 15개국에 파급효과가 높은 점도 유리하다. 또한 피지정부 역시 유아교육 발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로 유치원교사의 보수를 국가가 전액 지원하는 정책을 도입하였다.

취학 전 영유아부문의 개발협력 사업은 초중등 및 성인에 비하여 상당히 미흡한 수준이거나 하나, 국내에서 대학, 종교단체 등과 같이 민간주도로 일부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민간주도의 개발협력은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및 전문성 문제 등으로 인하여 다분히 단편적이며 산발적인 경향이 있다. 이에 보다 효율적으로 우리나라 영유아 부문 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육아정책 관련 제반 분야의 민간주도 개발협력 사업과 활동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향후 추진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아태지역 육아정책 분야의 개발협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차별 주요안점을 중심으로 3개년 동안 추진될 예정이다.

- 1차년도 : 아태지역 육아정책 개발협력 수요 진단 및 컨설팅 모델 개발
- 2차년도 : 아태지역 육아정책 우선과제 추진을 위한 컨설팅 실행
- 3차년도 : 아태지역 육아정책 개발협력 컨설팅 성과 평가 및 향후 방향성 설정

1차년도 연구인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관한 국내외 제반 개발협력 사업 및 연구현황을 파악하고, 둘째, 지원우선 국가의 육아정책 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셋째, 우리나라와 아태지역 지원우선 국가(선정국)의 육아정책 개발협력 수요를 총체적으로 진단한다. 넷째, 향후 육아정책 부문의 체계적인 개발협력을 위한 컨설팅 모델을 개발하고 선정국의 우선순위 개발협력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향후 개발협력 과정에서 우리나라 육아정책 브랜드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선정국은 물론, 아태지역 국가들의 SDG 4.2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2 연구 내용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태지역 영유아기 관련 국제기구 및 국내의 개발협력사업 현황을 파악한다. 육아정책 관련 국내외 개발협력의 목적, 주요 내용, 방법과 절차, 성과, 제한점 등을 검토한다.

둘째,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피지 3개 선정국의 유아교육과 보육 기본 현황, 주요 정책을 파악한다. 선정국의 사회문화, 인구학적 배경 및 관련 제반 기본 현황을 비롯하여 행·재정, 커리큘럼, 육아지원인력, 질 관리 체제 등을 파악한다. 현재까지의 유아교육과 보육의 변화추이와 정책 현안을 분석한다.

셋째, 아태지역 육아정책 개발협력 수요를 진단한다.

선정국들의 육아정책 현황을 토대로 개발협력이 필요한 부문과 우선순위를 파악한다. 선정국 개발협력 수요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 분석하고, 개발협력의 최우선 수요를 파악한다.

넷째, 아태지역 육아정책 개발협력 컨설팅 모델을 개발한다.

개발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컨설팅 방향을 설정하고 컨설팅 주제, 방법 및 절차, 모니터링 및 성과 평가 요소 등을 포함하여 컨설팅 모델을 개발한다. 육아정책 컨설팅의 영역은 SDG 4.2 이행을 위하여 제3차 아태지역 장관관회의에서 채택한 카트만두 Action Statement의 5가지 우선 정책영역에 준하여 설정한다. 즉, ① 재원투자 확대, ② 다부문의 조정과 협력, ③ 형평성 보장을 통한 기회제공, ④ 질 향상 및 ⑤ SDG 4.2 이행 모니터링이다. 수요조사를 토대로 개별 선정국의 고유한 정책이슈 해결을 위한 우선순위 개발협력 과제를 제시하고 컨설팅에 반영한다.

3 연구 방법

가. 문헌연구

EFA Global Monitoring Report를 비롯한 UNESCO, OECD, UNICEF, ARNEC, World Bank 등 국제기구의 개발협력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국내 관련 기구(예: KOICA, APCEIU 등)와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나. 국내외 연구협의체 구성 및 운영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피지(총 3개국)의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 전문가 및 담당 공무원(주로 교육부) 및 유관 국제기구와 단체들과 온라인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운영하였다. 비록 1차년도 연구에서는 자문 및 의견조사 등에 국한된 역할을 하였으나, 향후 2-3차년도 연구에서는 국내 개발협력사업 담당기관 및 전문가, 공무원을 포함한 국내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다. 해당 중앙부처, 선정국의 주한대사관, KOICA(한국국제협력재단),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등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전반적인 연구과정에 활용할 계획이다.

다. 유네스코 아태지역 본부 및 ARNEC과 콘소시움 구성

본 연구는 유네스코 아태지역 본부와 ARNEC(Asia Regional Network of Early Childhood)과의 콘소시움 형태로 수행하며, 각 기관의 담당자 구성 및 역할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표 I-3-1 콘소시움 기관 담당자 명단

구분	담당자
유네스코 아태지역 본부 (UNESCO Bangkok)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aki Hayashikawa (Chief, Section of Inclusive and Quality Education) • Kristy Bang (Specialist, Section of Inclusive and Quality Education)
ARNEC (Asia Regional Network of Early Childhoo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velyn Santiago (Executive Director) • Cliff Meyers (Board of Directors)

구분	담당자
우즈베키스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Yelana Ten (Director, Ministry of Preschool Education) · Vitaliy Klm (Chief Specialist, Ministry of Preschool Education)
베트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guyen Ba Minh (Director, EC Division, Ministry of Education and Training) · Nguyen Thi My Trinh (Prof/Director, Center for EC education, Vietnam National Institute of Educational Science)
피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ohetish Chand (Senior Education Officer, Ministry of Education) · Dr. Lavenia Tiko (Coordinator of Diploma and Degree ECEC Program/Univ. of South Pacific)

1)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진의 역할

- 연구 수행 총괄
- 유네스코 아태지역 본부 및 ARNEC과의 국가배경보고서 검토, 선정국별 현장방문 전문가팀 구성 지원
- 최종보고서 작성(3개 선정국의 개발협력 수요 및 관련 이슈 분석)
- 아태지역 육아정책 개발협력 컨설팅 모델 개발
- 정책세미나 개최: 3개 선정국 담당공무원 및 전문가 대표, 유네스코 아태지역 본부 전문가팀, ARNEC 전문가팀의 참석 및 주요 연구결과 발표

2) 유네스코 아태지역 본부의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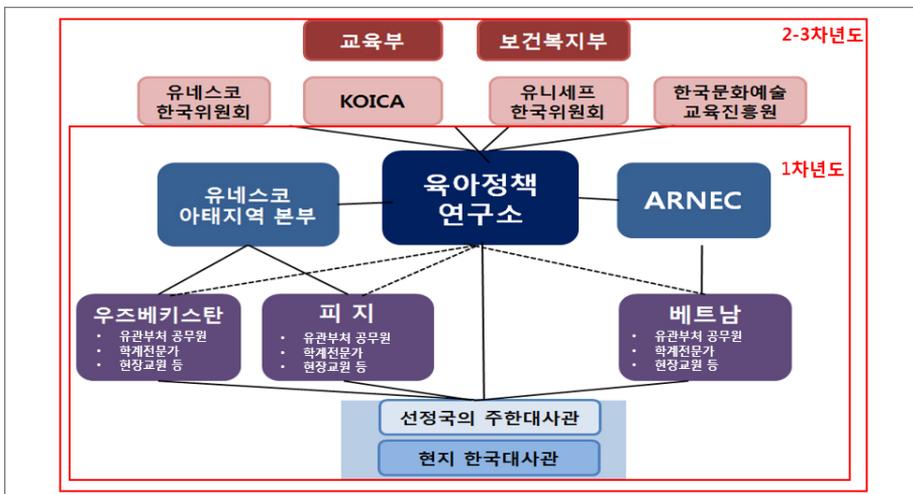
- 우즈베키스탄, 피지 2개 선정국의 육아정책 전문가 pool 제공 및 섭외
- 선정국 개발협력 수요 분석을 위한 현지 방문 프로그램 구성 및 대상국 담당공무원과 연락
- 선정국의 온라인 및 오프라인 수요조사 실시
-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진이 작성한 최종보고서(우즈베키스탄과 피지의 육아정책 분석 및 개발협력 수요와 향후 과제 분석) 검토 및 피드백 제공
- 온라인 정기 협의회 참석 및 정책세미나(서울) 참여 발표
- 선정국별 언어로 최종보고서 요약본 번역 및 세계 전역 보급

3) ARNEC 역할

- 베트남의 육아정책 전문가 pool 제공 및 섭외

- 베트남 개발협력 수요 분석을 위하여 담당공무원 및 국제기구 Plan International 관계자와 연락
 - 베트남의 온라인 및 오프라인 수요조사 실시
 -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진이 작성한 최종보고서(베트남의 육아정책 분석 및 개발협력 수요와 향후 과제 분석) 검토 및 피드백 제공
 - 온라인 정기 협의회 참석 및 정책세미나(서울) 참여 발표
 - 베트남 언어로 최종보고서 요약본 번역 및 세계 전역 보급
- 3개 선정국 전문가 역할(담당: 각국 교육부 유아교육과장 및 담당공무원)
- 육아정책 국가정보 제공
 - 자국 개발협력 현지 수요조사 실시 지원
 - 중간보고 등 온라인 회의 참석 또는 유선/이메일 협의
 - 정책세미나(서울) 참석 및 발표
 - 자국의 주요 관계자와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및 의견 수렴
 - 최종보고서(개발협력 수요조사 결과 및 실행계획) 요약본의 자국어 번역 지원 및 자국 내 보급

■ 그림 I-3-1 ■ 육아정책 개발협력을 위한 콘소시움



라. 선정국별 현지 면담조사 및 관찰 실시

선정국의 육아정책 현황 및 개발협력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각국의 유아교육 담당 공무원, 유치원 및 보육시설의 원장 및 교사들, 그리고 관련 국제기구 담당자를 대상으로 집단 면담을 실행하였다. 주된 조사 내용으로는 현재 육아정책 수립의 우선순위, 각종 ECCE 서비스 현황, 기회 확대와 질 제고 관련 하위 주제별 정책 추진의 문제점, 정책에의 요구 등에 관한 것이다.

또한 선정국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특징 및 운영 실태, 현장교원의 지원 요구를 파악하기 위하여 설립유형 및 소재지별로 현지의 유아교육 및 보육 서비스(유치원, 보육시설 등)를 국가별로 4~6개 기관씩 방문하였다.

표 I-3-2 우즈베키스탄 면담 및 방문관찰 실시

일시	장소	참석자	내용
2018. 9. 29.	한인회유치원	000 원장	한인회유치원 운영 현황 파악 및 요구조사
2018. 9. 29.	유아교육부 회의실	Shin A. 유아교육부 장관, Ten E. 유아교육부 과장, Rakhmatillaev O. 국제교류협력 과장 등 3인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유아교육 강화 정책 현황 파악
2018. 9. 30.	Timurshoh 사립유치원	사마르칸트주 교육청 공무원, 원장 외 교직원 다수	사립유치원 운영 사례 수집
2018. 9. 30.	27 MTM 공립유치원	사마르칸트주 교육청 공무원, KAPIMOBBA 원장, 사립유치원 원장 외 다수	사립유치원 운영 사례수집 및 정부 유아교육 정책 파악 등
2018. 10. 1.	영유아 자녀를 양육하는 대가족 가정 (타슈켄트 거주)	영유아 어머니 2인(Fazilat, M.), 손자녀 양육 조부모 1인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의 유아교육에 대한 인식 및 욕구 조사
2018. 10. 1.	Sevinch 공립유치원	유아교육부 공무원 Sayyora, 원장, 교사, 조리사	가장 최근 설립한 공립유치원 견학을 통한 유아교육 동향 파악
2018. 10. 2.	Quyoshcha 공립유치원	유아교육부 공무원 Sayyora, 교육청 유아교육 관리자 1인, 교사 외 1인	우수한 역사를 지닌 공립유치원 사례 수집
2018. 10. 2.	Bilimdon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부 공무원 Sayyora, 사립유치원 관리자, 원장, 교사	가장 최근에 설립한 사립유치원 견학을 통한 유아교육 동향 파악

표 I-3-3 피지 면담 실시

일시	장소	참석자	내용
2018. 9. 8.	Tuva 유치원	교육부 공무원 R. Chand, 유치원 교사 A. Ram 외 5인, 학부모 W. Marama 외 1인	유치원 커리큘럼 운영, 저소득층 유아를 위한 지원, 부모 참여 및 정책 개선 요구사항 조사
2018. 8. 8.	수바 교육부 회의실	교육부 공무원 R. Chand, 유아교사 교육자 L. Biu Cava(FNU), S. Bateup (APTC), Dr. L. Tiko (USP) 외 4인	교사양성과정 및 실습에 관한 현황 파악
2018. 8. 9.	Rambisessar 유치원	유치원 교사 Ashika V. La. 외 다수	커리큘럼 이행과 교사 전문성 개발 현황 및 교사들의 육아정책 수요 파악
2018. 8. 9.	Lakshimi Narayan 유치원	유치원 교사 K. Devi Singh 외 다수	커리큘럼 이행과 교사 전문성 개발 현황 및 교사들의 육아정책 수요 파악
2018. 8. 9.	수바 교육부 회의실	교육부 공무원 R. Chand, M. Gauna, R. Qele 외 다수	교육부 공무원들이 바라본 피지 육아정책 수요 조사
2018. 8. 9.	난디 숙소 인근 식당	교육부 공무원 R. Chand, 교사교육자 U. Camaitoga	피지의 ECCE 우선적 정책수요 및 한국과의 협력 방안 논의
2018. 8. 10.	Lil Champs 사립유치원	유치원 원장 S. Nisha	피지 사립유치원 현황 파악 및 커리큘럼 이행, 교사 전문성
2018. 8. 10.	Lovu Hart 미혼모/한부모 자녀를 위한 지역사회 유치원	유치원 교사 S. Sonam Prasad 외 2인	지역사회 유치원 현황 파악 및 수요 조사
2018. 8. 10.	Wesley Methodist 초등병설유치원	유치원 교사 A. Poonam Prasad 외 4인	초등병설유치원 현황 파악 및 수요 조사
2018. 8. 10.	난디 지역교육청 회의실	U. Camaitoga 외 교원단체 대표 다수	피지 ECCE의 어려움, 교사 전문성 개발 및 우선수요 파악
2018. 8. 11.	난디 지역교육청 회의실	유아교사 교육자 B. Narain 외 5인	현재 교사 교육 프로그램 및 교사 처우에 대한 수요 파악
2018. 8. 11.	UNICEF Pacific 회의실	UNICEF Pacific ECD 담당자 S. G. Saberi	UNICEF Pacific의 개발협력 경험을 통한 시사점 및 태평양 국가들의 ECCE 수요 조사

표 I-3-4 베트남 면담 실시

일시	장소	참석자	내용
2018. 9. 09.	베트남 교육부	Phung Xuan Nha	유아교육 주요 정책
2018. 9. 10.	베트남 Ministry of Labor, Invalids and Social Affairs (MOLISA)	담당 공무원 4인	베트남의 ECD 정책사업(모성건강 영양 등) 파악

일시	장소	참석자	내용
2018. 9. 16.	호치민 시립교육대학	Phan Thi Thu Hien 교수	유아교사 양성교육 및 연구 수행 관련
2018. 9. 17.	공립유치원	Nguyen Van Lu 외 1인	공립유치원 운영 현황 및 국가수준 교육과정 운영 실태 등

주: ARNEC 연구진이 베트남 관계자를 면담함.

마. 국내 전문가 면담 및 조사 실시

유아교육과 보육 관련 국내 개발협력 사업은 거의 부재한 실정이므로 최근 수행된 동티모르 유아교육 개발협력 수요조사를 담당한 연구진, 현재 추진 중인 우즈베키스탄 유아교사 양성대학 설립을 추진 중인 B대학교 담당자 등을 중심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또한 육아정책 관련 개발 협력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국내 개발협력 사업 관련 유관 부처 담당공무원, KOICA 등의 개발협력사업 경험이 있는 관계자를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였다. 주요 면담내용은 개발협력사업 추진 배경, 기간, 지원비용 규모와 추이, 추진 내용과 방법, 성과 및 제한점, 향후 개발협력사업을 위한 요구 등에 대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국내 교육 분야 개발협력 경험이 있는 전문가 14인을 대상으로 개발협력 연구/사업 대상국 선정 이유, 개발협력 주제, 수요조사 실행여부 및 대상, 개발협력 형태 및 재원 유형, 개발협력 사업의 지속성 여부, 개발협력 과정의 어려움 및 개선 방법, 모니터링 및 평가, 육아정책 및 교육분야 개발협력 발전 방안에 관하여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전문가 조사에 참여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아래 표< I-3-5>와 같다.

▣ 표 I-3-5 ▣ 국내 전문가 조사 대상자 일반적 특성

사례	연령	성별	학력	개발협력 경력	근무기관
1	40대	여	박사	19년	대학교/대학원
2	40대	여	박사	12년	정부출연연구기관
3	50대	여	대졸	2년 8개월	공직유관기관
4	50대	남	박사	1년 미만	대학교/대학원
5	50대	여	박사	4년	정부출연연구기관
6	40대	남	박사	1년 미만	대학교/대학원
7	40대	여	박사	2년 10개월	정부출연연구기관
8	60대	여	박사	1년	지자체

사례	연령	성별	학력	개발협력 경력	근무기관
9	40대	여	박사	4년 11개월	정부출연연구기관
10	40대	남	석사	5년 7개월	국제기구
11	40대	남	박사	12년 10개월	대학교/대학원
12	40대	여	박사	1년	대학교/대학원
13	60대	여	박사	1년	전문대
14	30대	남	박사	12년	대학교/대학원

바. 온라인 회의 개최

협동연구의 취지와 실질적인 필요에 의하여, 유네스코 아태지역 본부 및 ARNEC의 공동연구진들과 연구 수행을 위하여 온라인 협의회를 정례화하였다. 주로 유네스코 아태지역 본부의 Skype meeting(비즈니스형)을 이용하여, 3월 연구 착수 시점부터 10월까지 월1회의 온라인 회의를 개최하여 연구추진 경과보고 및 주요 사안을 협의하였다. 구체적인 온라인 회의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 표 I-3-6 ■ 협력기관 공동연구진과의 온라인 협의 내용

회차	일자	참석자(소속기관)	안건	주요 협의 내용
1	3.8	연구진 M. Hayashikawa, K Bang (UNESCO Bangkok), E. Santiago(ARNEC)	프로젝트 소개/ 연구 방향 및 개발협력 수요조사 설명.	· 연구목적 및 역할 분담 명료화(전담국가 확정) · 향후 매달 둘째 주 목요일 정례회의 개최 및 콘소시엄 운영 방식 논의 등
2	4.12	연구진 M. Hayashikawa, K Bang (UNESCO Bangkok), E. Santiago(ARNEC)	개발협력 문헌 조사	· 한국정부의 개발협력계획 및 관련 기존연구사업 공유 · 국제기구 수행 프로젝트 보고서 및 선정국 관련 자료 제공
3	5.10	연구진 M. Hayashikawa, K Bang (UNESCO Bangkok), E. Santiago(ARNEC)	수요조사 문항구성	· 수요조사 내용 범위와 대상, 방법 등 논의. · 구조적/과정적 요소를 포함
4	6.8	연구진(책임) M. Hayashikawa, K Bang (UNESCO Bangkok), C. Meyers, E. Santiago (ARNEC)	제3차 아태지역 장관과 육아정책포럼에서 오프라인 회의로 진행(네팔 카트만두)	· 계약절차 세부사항 및 행정 서류 검토(파리본부) · 수요조사 분석틀은 SDG 4.2 우선 순위 영역과 연계
			계약절차/ 수요조사 분석틀	

회차	일자	참석자(소속기관)	안건	주요 협의 내용
5	7.12	연구진 M. Hayashikawa, (UNESCO Bangkok), C. Meyers, E. Santiago (ARNEC)	현지방문 프로그램 구성/ 수요조사 문항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형별 방문기관 및 면담대상자 섭외 · 수요조사지 번역, 면담 전사 방식 논의 · 추진 일정 조정 등
6	8.2	연구진 M. Hayashikawa, K Bang (UNESCO Bangkok), C. Meyers(ARNEC)	피지/ 베트남 현지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지 출장 일정 협의 및 베트남 현지 수요조사 자원 · 컨설팅 모델 논의 * R. Chand(피지 유아교육과장)
7	9.6	연구진 M. Hayashikawa, K Bang (UNESCO Bangkok), E. Santiago(ARNEC)	우즈벡 방문 프로그램 구성/ 서울세미나 관련 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즈베키스탄 현지 수요조사 및 장관 면담 일정 · 서울세미나 발표주제 논의 * Y. Ten(우즈벡 유아교육과장).
8	10.11	연구진 M. Hayashikawa, K Bang (UNESCO Bangkok), C. Meyers, E. Santiago (ARNEC)	서울세미나/ 수요조사 분석 결과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미나 프로그램 공유 · 워크숍 프로그램 협의 · 담당국가 수요조사 결과 공유 · 국가별 개발협력 우선순위 검토 등

한편, 국제기구 협력기관과의 온라인 회의의 용이성과 달리, 베트남 및 우즈베키스탄은 사회주의 국가로 온라인 회의가 여의치 않은 점, 피지의 열악한 인터넷 연결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각국의 공무원들 및 전문가와의 협의는 대부분 유선 및 이메일로 진행하여, 일정에 맞추어 연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다.

사. 정책세미나 개최

선정국의 육아정책 현황과 주요 이슈, 개발협력 수요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개발협력 실행 관련 이슈를 논의하기 위하여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본 세미나는 국내 최초의 육아정책 분야 개발협력 세미나로서 의의가 있으며, 특히, 본 연구의 협력기관인 유네스코 아태지역 본부와 ARNEC 및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아태지역 육아정책 개발협력 수요 진단 및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하였으며(2018,11.9), 세미나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1st KICCE Seminar on ECCE Policy Development Cooperation in the Asia-Pacific Region

TIME	ACTIVITY	SPEAKER
09:00-09:20	Registration	
	Moderator:	<i>Yoon Jin Lee</i> (Head, Public Relations and Publication, KICCE)
09:20-09:30	Welcoming Remarks	<i>Sun-Hee Baek</i> (President of KICCE) <i>Kyung Mi Park</i> (National Assemblyman)
09:30-09:40	Development Cooperation on ECCE Policy in Korea	<i>Mugyeong Moon</i> (Director, Office of International Research, KICCE)
09:40-10:20	ECCE Policy Development and Issues in Participating Countries: Fiji, Uzbekistan, & Vietnam	<i>Rohitesh Chand</i> (Senior Edu. Officer, Ministry of Education, Fiji) <i>Vitaliy Kim</i> (Chief Specialist, Ministry of Preschool Education, Uzbekistan) <i>Nguyen Thi My Trinh</i> (Director, Research Centre for Preschool Education, Vietnam Institute of Education Sciences (VNIES), Vietnam)
10:20-10:35	Development Cooperation in ECCE Policy towards the implementation of SDG 4.2.	<i>Maki Hayashikawa</i> (Chief, Section of Inclusive Education, UNESCO Bangkok)
10: 35-10:50	Mapping and Review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in Asia	<i>Evelyn Santiago</i> (Executive Director, ARNEC) <i>Cliff Meyers</i> (Board of Directors, ARNEC)
10:50-11:20	Discussion	<i>Kwang-woo Sok</i> (Senior Educational Supervisor, ECEC Policy Division, Ministry of Education) <i>Kyung Cheol Kim</i> (Prof. Korea University of Teacher Education) <i>Hwan Bo Park</i> (Prof. Chungnam University)
11:20-12:00	Open Discussion & Closing	

본 세미나에는 총 약 40여명의 국내 유관기관 관계자 및 학계 전문가가 참석하였다. 중앙부처 공무원,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아태국제이해교육원, KOICA,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굿네이버스 담당자, 유아교육과 보육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공유하고, 2-3차년도 연구 방향성 등에 대하여 토의하였다.

이상의 연구 내용 및 방법을 정리하여 도표화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

■ 그림 I-3-2 ■ 연구내용 및 방법



II

연구의 배경

1. 국제개발협력의 개념 및 동향
2. 선행연구 검토
3. 선정국의 기본 현황



II. 연구의 배경

1 국제개발협력의 개념 및 동향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합의된 정의는 아직까지 없으며, 국제개발의 목적과 방향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된다. 일반적인 의미로 교육개발협력은 교육분야에서 이루어지는 국제개발협력을 의미한다. 채지은과 우명숙(2013)은 ODA Korea에 나타난 교육개발협력에 관해 일반 정의를 활용하여 “개발 원조를 비롯하여 기타 공적 자금, 수출신용, 민간투자와 같이 다양한 협력방식을 통해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개발도상국의 교육발전을 촉진하는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교육개발협력’은 ‘교육분야에서 국제개발협력’이라는 용어로도 사용된다. 이승진(2016)에 의하면, 교육분야에서 국제개발협력은 개도국의 교육격차 해소 노력을 통해 빈곤문제의 해결과 인간의 기본권을 지키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으로 정의된다. 교육과 관련된 개발협력사업의 추진, 공적차원의 개별 교육기관 및 단체 간의 교류협력, 연구, 유학 등 학생교류와 같은 양자 간 협력과 OECD, UNESCO, 세계은행, APEC 등과 같은 국제기구, 국제협력체의 회의 참석, 공동 연구 수행, 국제기구와 연계한 프로젝트 추진 등 다자간 협력 등을 포괄한다(이승진, 2016: 6).

이처럼 교육개발협력의 용어와 정의가 다양한 이유는 교육개발협력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져왔기 때문이다. 종전에는 공공기관이나 원조 집행기관이 개도국의 경제개발과 복지향상을 위해 개도국이나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자금의 흐름을 의미하는 공적 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의 개념을 단순히 교육 분야에 적용하는 형태로 교육개발협력의 의미를 접근해왔다(OECD, 2011). 하지만, 이 개념에는 공여국이 수원국을 일방적으로 돕는 시혜적 관점이 암묵적으로 전제되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최근에는 공여국과 수원국간의 ‘파트너십’을 강조하는 개발협력 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하

여 ‘교육개발협력’이라는 용어가 부상하고 있다(김철희·이영현·조경원, 2012).

이처럼 교육이 개발협력분야로서 주목받고 있으며, 이에 국제사회에서도 개발도상국가의 교육 발전을 위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근거를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교육개발협력은 교육권이라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러한 관점은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인도주의적 동기와 맥을 함께한다. 둘째로, 빈곤퇴치와 경제성장에 있어서 교육의 역할을 강조하는 관점이다. 이러한 관점은 교육이 개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가져오고, 결과적으로 국가 경제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인적자본론에 기초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세계은행 등의 여러 국제기구들과 경제학계, 교육학계 등은 많은 연구를 통해 이미 교육이 빈곤퇴치와 더 나아가 국가의 경제성장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윤종혁·장혜승·허주 등, 2012).

교육에 관한 국제사회의 노력들이 개발협력 사업으로까지 발전하게 된 것은 1990년에 태국 줌티엔에서 유네스코, 유니세프, 세계은행 및 UNDP가 공동으로 개최한 회의를 통해 「모든 이를 위한 교육에 관한 줌티엔 선언(Jomtien Declaration on Education for All)」이 채택되면서 부터이다(UNESCO, 2002). 줌티엔 선언에서는 범세계적 기초교육 보급운동으로 EFA가 본격적으로 출범하며, ‘줌티엔 선언’을 통해 2000년까지 달성해야 할 6대 목표를 설정하였다. 이 선언에서 명시한 ‘모든 이를 위한 교육(EFA)’은 2000년 4월 다카에서 181개국의 정부 대표단, 국제기구 대표, NGO 등이 참석하여 개최된 세계교육포럼에서 구체화되었다. 이 때 2015년까지 EFA를 실현하는 계획을 담은 「다카르 실천계획」이 채택되었으며, EFA실현을 위한 6개 목표도 제시되었다(UNESCO, 2002). EFA의 6대 목표는 영유아 보육 및 교육 확장, 모든 아동에게 양질의 무상교육 제공, 청년과 성인을 위한 학습과 기술교육 기회의 확대, 성인 비문해자 50% 감소, 교육의 양성평등 실현, 그리고 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이다. 이러한 EFA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기초교육 확대에 자원 활용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이승진, 2016).

EFA는 2000년 유엔이 새천년 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 설정에 반영되었다. MDGs는 2015년까지 “극빈의 비참하고 비인간적인

상태로부터 남성, 여성, 그리고 어린이들을 자유롭게 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설정하였는데, 8개 세부 목표 중에 2개가 교육 관련 목표(보편적 초등교육의 달성, 양성평등과 여성권익의 향상)이다(United Nation, 2008).

MDGs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공동의 개발목표를 설정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공할 뿐 아니라 경제발전 중심의 개발에서 사회발전, 특히 인간 개발중심의 패러다임을 형성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Manning, 2009). 한편, MDGs는 개별 국가마다 고유한 지형적 특성, 기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으로 인한 빈곤의 원인과 실태에 대한 고려 없이 빈곤 문제해결에 있어서 인권에 기반을 둔 접근(HRBA, Human Rights-Based Approach)이 결여되어 있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 즉, MDGs에서는 빈곤한 사람들의 권리가 인식되지 않고 공여국(선진국)의 역할과 의무도 모호해 실질적인 이행을 담보하지도 못했다는 것이다(UNDP, 2014).

이에,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는 2015년에 만료된 MDGs 이후의 대안으로서 경제성장 중심에서 탈피하여 사회개발과 환경보호 등과 함께 포괄적이고 총체적인 발전을 추구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SDGs는 새천년개발목표(MDGs)가 추구하던 빈곤퇴치의 완료를 최우선 목표로 하되, 경제·사회의 양극화, 각종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 지구환경의 파괴 등 각국 공통의 지속가능발전 위협요인들을 동시에 완화해 나가기 위한 국가별 종합적 행동 및 글로벌 협력 아젠다로서, 총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로 구성되어 있다. 169개의 세부목표 중의 하나로 영유아부문이 포함되었다(이희수, 2017).

영유아 교육과 보육(ECCE)이 UN의 세계발전목표 중 하나로 포함된 것은 역사상 지속가능발전목표에서 최초이며, 이는 세계 발전과 변혁에 있어서 영유아가 필수적이라는 인식에 기인한다. 영유아 교육과 보육은 지속가능발전의 기초로서, 교육부문(SDG 4) 내 여타 목표 및 교육부문 이외의 다른 16개 부문 목표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ARNEC, 2016).

SDG 4의 교육부문 전반에 대한 목표는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과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의 기회 증진’이다. SDG 4는 7가지 세부목표(target)와 3가지 이행 방안(means of implementation)으로 구성되어 있다. 영유아 부문의 목표는 두 번째 세부목표(Target 4.2)로 ‘2030년까지 모든 남아와 여아에게 양

질의 유아기 발달, 보육과 교육에의 접근성을 보장하여 초등교육을 받을 준비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양질의 영유아 서비스, 초등교육을 위한 준비, 양성평등의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다. 즉, 1) 양질의 영유아 서비스를 위한 총체적 접근, 1) 모든 유아에게 최소한 1년 동안 양질의 무상 의무교육 보장, 3) 초등학교 또한 모든 유아의 발달 수준에 적합한 교육 제공을 의미한다(문무경, 2017).

이러한 SDG 4.2의 달성여부를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2가지 글로벌 성과지표(4.2.1. & 4.2.2)를 설정하고 있다. 글로벌 지표 4.2.1은 유아의 사회심리적 안녕(psychosocial well-being)의 개념에 대한 국제적, 지역적, 국가적 맥락에서의 보다 명료한 정의가 필요하며, 인지적, 비인지적 영역의 조화로운 발달을 강조한다. 이는 초등학교 입학 아동 중 특수아의 비율로 대체 가능하나, 실질적인 측정 도구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글로벌 지표 4.2.2는 '초등학교 취학 전 최소 1년 동안의 유아교육과 보육 서비스 이용률'을 의미하며, 5세아 대상 보편적 무상 유아교육과 보육에 해당한다(문무경, 2017).

한편, 유네스코에서는 영유아부문 관련 주제별 지표(thematic indicator)로 긍정적인 가정학습환경을 경험한 5세 이하 영유아 비율, 취학 전 교육기관 취원율, 무상 및 의무 유아교육 법적 연한을 제시하고 있다. 이행 방안으로는 포용적이고 효과적인 학습환경(4.a.), 최소한의 양성교육과 현직연수를 받은 교사(4.c.) 지표에 영유아부문도 해당된다(문무경, 2017).

2 선행연구 검토

육아정책 분야의 개발협력 선행연구는 육아정책의 범위에 따라 상당히 광범하게 수행되어 있을 수 있다. 보건, 영양, 위생, 의료 부문에 관련된 개발협력 선행 연구와 사업은 많은 편이며, 영유아 교육과 보육에 국한된 범위에서는 매우 드문 실정이다. 가장 최근에 수행된 유아교육 개발협력 연구로는 김경철(2017)의 동티모르를 대상으로 한 개발협력 수요조사가 있다. 동티모르 유아교육정책의 현안은 유아교육의 기회 확대, 즉, 취원율 제고 및 유아교사교육으로 진단하였으며, 취원율 향상을 위하여 우리나라가 새로운 유치원 모델을 제시하고 교사양성 및 현직 연수제도 마련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개발협력의 과제로 설정하였다.

교사교육을 위한 재원 확보 및 교사역량에 대한 정확한 파악, 참여의지 파악이 선행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표 II-2-1 동티모르 유아교육 수요조사 항목

연구 내용	조사 항목
동티모르 유아교육 현황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제 · 유아교육 현황(시설수와 취원율, 교사 수, 교사 처우) · 유아교육 정책(담당부서, 관련 법 규정 등) · 유아교육과정 · 교원양성제도
동티모르 유아교육 수요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요구 · 유치원 일과 운영 요구 · 유치원 시설 및 환경에 대한 요구 · 교사 연수 요구

자료: 김경철(2017). 동티모르 유아교육 개발협력 수요조사. p. 15.

표 II-2-2 동티모르 유아교육의 SWOT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티모르 국가개발 전략 2011-2030과 연계하여 국가교육계획 2011-2030을 수립함 · 정책적으로 유아교육의 중요성 강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치원 접근성 낮음(산악지역) · 교원 부족 및 교사 역량 부족 · 열악한 유치원 시설 및 유치원 운영의 비효율성 · 동티모르 언어 사용 혼란에 따른 의사소통 문제 빈번함 · 높은 물가
기회요인(Opportunity)	위험요인(Threa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교육부에서 뉴질랜드 원조공여국의 지속적인 지원을 받고 있음 · INOFORDEPFE 기관은 해외 원조 공여국과 유니세프, Child Fund의 기금의 지원을 받고, 동티모르가 주도권을 갖고 교육개혁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해 놓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치원 교사 양성제도 부족 · 교육에 대한 교사의 책임 의식이나 소명감 불분명 · 외국 자문관의 수가 많고, 유니세프와 NGO 등이 각자 유아교육 관련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어 정책의 통일성을 갖는 데 어려움이 있음

자료: 김경철(2017). 동티모르 유아교육 개발협력 수요조사. p. 190.

1990년대 연구로 나정, 장명림, 그리고 최수향(1998)은 몽골과 베트남 및 우리나라의 유아교육을 비교, 분석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제한된 국가의 재원을 고려하여 몽골과 베트남의 사립 유치원을 활성화를 통한 취원율 제고를 제시함으로써 유치원 설립주체 다양화 및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을 피력하였다. 이외에, 미얀마를 대상으로 임부영(2009)는 유아교육 ODA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였다. 유아교육협력 대외원조정책의 질적인 구성요소를 비전과 정책목표, 정책과제로 구분하였다.

3 선정국의 기본 현황

가. 우즈베키스탄(Republic of Uzbekistan)¹⁾

우즈베키스탄의 수도는 타슈켄트이며, 인구는 2017년 기준 3,212만 명으로 집계된다. 국가 면적은 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넓은 편으로 447,400km²이다. 우즈베키스탄은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된 나라이다.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민족은 우즈베키스탄인이며, 그 외에 러시아인, 타지키스탄인, 카자흐스탄, 고려인 등의 민족이 함께 하고 있다. 주 언어는 우즈베키스탄어이며, 러시아어를 공용어로 지정하고 있다. 종교는 이슬람교가 88%로 주를 이루며, 이 중 수니파가 70%를 차지한다. 우즈베키스탄의 GDP는 US 671,3억 달러로 집계되고 있으며, 화폐단위는 쉘(Sum)으로 2017년 12월 기준으로 US 1달러가 8,061쉘의 화폐가치가 있다.

표 II-3-1 우즈베키스탄 국가 정보

항목	정보
수도	타슈켄트
인구	2017년 기준 3,212만 명
면적	447,400km ² (한국의 약 2배 크기)
주요민족	우즈베키스탄인(81%), 러시아인(5.5%), 타지키스탄인(5%), 카자흐스탄인(3%), 카라칼팍인(2.5%), 고려인(0.6%)
언어	우즈베키스탄어, 러시아어(공용어)
종교	이슬람교(88%, 수니파 70%), 러시아 정교(9%), 기타(3%)
GDP	\$671,3억, 1인당 GDP=\$2,096
화폐단위	쉘(Sum), 2017년 12월 기준 US \$1=8,061쉘

자료: 국가검색 국가정보(우즈베키스탄공화국), 외교부.

[http://www.mofa.go.kr/www/nation/m_3458/view.do?seq=116&titleNm=%EA%B5%AD%EA%B0%80%EC%A0%95%EB%B3%B4\(%EC%9A%B0%EC%A6%88%EB%B2%A0%ED%82%A4%EC%8A%A4%ED%83%84%EA%B3%B5%ED%99%94%EA%B5%AD\)](http://www.mofa.go.kr/www/nation/m_3458/view.do?seq=116&titleNm=%EA%B5%AD%EA%B0%80%EC%A0%95%EB%B3%B4(%EC%9A%B0%EC%A6%88%EB%B2%A0%ED%82%A4%EC%8A%A4%ED%83%84%EA%B3%B5%ED%99%94%EA%B5%AD)), 검색일: 2018. 4. 18.

Global Partnership for Education 2016-2020, Strategic Plan 2016-2020은 우즈베키스탄의 교육방향성을 보여주는 계획으로서, 지속가능발전

1) 국가검색 국가정보(우즈베키스탄공화국), 외교부

[http://www.mofa.go.kr/www/nation/m_3458/view.do?seq=116&titleNm=%EA%B5%AD%EA%B0%80%EC%A0%95%EB%B3%B4\(%EC%9A%B0%EC%A6%88%EB%B2%A0%ED%82%A4%EC%8A%A4%ED%83%84%EA%B3%B5%ED%99%94%EA%B5%AD\)](http://www.mofa.go.kr/www/nation/m_3458/view.do?seq=116&titleNm=%EA%B5%AD%EA%B0%80%EC%A0%95%EB%B3%B4(%EC%9A%B0%EC%A6%88%EB%B2%A0%ED%82%A4%EC%8A%A4%ED%83%84%EA%B3%B5%ED%99%94%EA%B5%AD)), 검색일: 2018. 4. 18.

목표4(Sustainable Developmental Goals 4)와 그 방향성을 함께 하고 있다 (Albright, Mundy, & Beardmore, 2016: 22). 우즈베키스탄은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을 위한 평등하고 보편적 교육을 지향하고 있다(Albright et al., 2016: 22; Mushtaq, 2015: 128).

우즈베키스탄 내에서 유아교육에 대한 관심이 전 사회적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특히 유아교육을 국가 발전의 우선순위 영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을 정도로 열의를 보이고 있다(Albright et al., 2016: 23; World Bank, 2013: 7). 우즈베키스탄은 유아교육이 초기 투자대비 사회 전체에 미치는 괄목할만한 성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World Bank, 2013: 14). 또한 영유아의 권리를 위한 지원으로 early learning을 강조하고 있다(Albright et al., 2016: 24).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정규교육과정으로 유아교육(유치원), 초등교육, 중등교육(무상 공립학교, 사립학교), 중등 특수교육·직업교육(공립 직업학교 등), 고등 교육(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박사 후 과정)이 운영되고 있으며 비정규 교육과정도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Mushtaq, 2015: 128).

나. 베트남(Socialist Republic of Viet Nam)²⁾

베트남의 수도는 하노이이며, 국가 전체 인구는 2016년 기준으로 9,270만 명 정도이다. 국가의 면적은 한국의 1.5배 크기로 약 33만 966km²로 나타났다. 베트남 역시 다양한 민족이 거주하고 있는데, 그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민족은 비엣족(깁족)으로서, 전인구의 85.7%를 차지한다. 베트남의 또 다른 주요 민족으로는 타이족, 화교(약 82만 명), 크메르 족 등 54개 민족이 존재한다. 사용하는 언어는 베트남어이다. 종교는 불교 43.5%와 가톨릭 36.6%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그 외에 유교, 불교, 도교의 혼합종교인 까오다이교를 믿는 국민도 있다. 2018년 기준 베트남의 GDP는 \$2,327억 달러이다. 통용되는 화폐단위는 베트남동(Vietnamese Dong, VND)이고, 2017년 12월 기준으로 US \$1는 22,437동의 가치가 있다.

2) Kotra 베트남.

<http://news.kotra.or.kr/user/nationInfo/kotranews/14/userNationBasicView.do?nationIdx=63>, 검색일: 2018. 4. 21.

표 II-3-2 | 베트남 국가 정보

항목	정보
수도	하노이
인구	2016년 기준 9,270만 명
면적	약 33만 966.9km ² (한국의 약 1.5배 크기)
주요민족	비엣족(강족, 전인구의 85.7%), 타이족, 화교(약 82만 명), 크메르 족 등 54개 민족
언어	베트남어
종교	불교(43.5%), 가톨릭(36.6%), 까오다이교(유교, 불교, 도교의 혼합종교)
GDP	\$2,327억 (2018년 기준)
화폐단위	베트남동(Vietnamese Dong, VND), 2017년 12월 기준 US \$1=22,437VND

자료: Kotra 베트남.

<http://news.kotra.or.kr/user/nationInfo/kotranews/14/userNationBasicView.do?nationIdx=63>, 검색일: 2018. 4. 21.

베트남은 급격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문맹률 감소를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교육 확대(Education For All: EFA)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Ministry of Education and Training, 2015: 6), 1945년부터 2000년에 걸쳐 교육개혁을 실시하였다. 베트남의 교육 개혁은 2005년 만들어지고 2009년에 수정된 베트남 교육법 Article 4를 기본으로 한다(Ministry of Education and Training, 2015: 7).

베트남의 교육은 첫째, 경제성장을 위한 높은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는 것, 둘째,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의 학습 요구를 지속적으로 충족하는 것, 셋째, 높은 수준의 교육을 모든 이에게 평등하게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Ministry of Education and Training, 2015: 7).

2020년까지의 베트남의 전반적 교육방향은 표준화(standardization), 현대화(modernization), 사회화(socialization), 민주화(democratization)와 국제적 통합(international integration)을 지향한다(Ministry of Education and Training, 2015: 64-65). 교육의 질을 전반적으로 높이고, 교육 내용의 다양화를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효과적 교수방법의 개발 및 이용 등을 통해 모든 사회구성원의 포괄적 교육을 지원하고자 한다(Ministry of Education and Training, 2015: 65).

베트남의 정규 및 비정규 교육과정은 현재 영유아교육(0-2세를 대상으로 하는 유아원, 3-5세 대상 유아학교, 5세 대상 유치원), 기본 교육(초등교육, lower and

upper 중등 교육), 직업훈련(중등 직업교육, 직업훈련), 대학교육(학부, 석사, 박사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Ministry of Education and Training, 2015: 6-7).

다. 피지(Republic of Fiji)³⁾

피지의 수도는 수바이며, 피지 전체의 인구는 2016년 기준 93만 명으로 집계된다. 피지의 국가 크기는 우리나라 경상북도 크기 정도로, 18,333km²이다. 피지의 주요 민족은 피지원주민이 56.8%로 가장 많으며, 뒤이어 인도계가 37.5%를 구성하고 있다. 주요 공용어는 영어이며, 이 외에 피지어, 힌두어, 로투만어 등이 사용된다. 피지 국민들의 64%는 천주교를 믿으며, 28%는 힌두교, 6%정도는 이슬람교도이다. 2016년 기준 피지의 GDP는 \$45억이며, 1인당 GDP는 \$5,182 이다.

표 II-3-3 | 피지 국가 정보

항목	정보
수도	수바
인구	2016년 기준 93만 명
면적	18,333km ² (경상북도 크기), 330여 개 도시
주요민족	피지원주민(56.8%), 인도계(37.5%), 기타
언어	영어(공용어), 피지어, 힌두어, 로투만어
종교	기독교(64%), 힌두교(28%), 이슬람교(6%)
GDP	\$45억 (2016년 기준), 1인당 GDP=\$5,182
화폐단위	피지달러(Fijian dollar, FJD)

자료: 국가검색 국가정보(피지공화국), 외교부.

[http://www.mofa.go.kr/www/nation/m_3458/view.do?seq=39&titleNm=%EA%B5%AD%EA%B0%80%EC%A0%95%EB%B3%B4\(%ED%94%BC%EC%A7%80%EA%B3%B5%ED%99%94%EA%B5%AD\)](http://www.mofa.go.kr/www/nation/m_3458/view.do?seq=39&titleNm=%EA%B5%AD%EA%B0%80%EC%A0%95%EB%B3%B4(%ED%94%BC%EC%A7%80%EA%B3%B5%ED%99%94%EA%B5%AD)),
검색일: 2018. 4. 25.

170여 년 전 피지에 기독교가 전파되면서 선교의 목적으로 교육을 다루게 된 것이 피지 교육의 시작이 되었다. 식민지 시대를 거친 피지는 초기에 사립 기관을 통해 교육을 발전시켰으나, 서서히 국가의 재정지원을 확대하면서 공공 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왔다. 2000년에 이르러 Fiji Commission Education을 통해

3) 국가검색 국가정보(피지공화국), 외교부.

[http://www.mofa.go.kr/www/nation/m_3458/view.do?seq=39&titleNm=%EA%B5%AD%EA%B0%80%EC%A0%95%EB%B3%B4\(%ED%94%BC%EC%A7%80%EA%B3%B5%ED%99%94%EA%B5%AD\)](http://www.mofa.go.kr/www/nation/m_3458/view.do?seq=39&titleNm=%EA%B5%AD%EA%B0%80%EC%A0%95%EB%B3%B4(%ED%94%BC%EC%A7%80%EA%B3%B5%ED%99%94%EA%B5%AD)),
검색일: 2018. 4. 25.

새롭게 피지 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였으며, 초등교육과 영유아 교육과 같은 생애 초기 교육을 강조하기 시작하였다(Ministry of Education, National Heritage, Culture & Art, 2015: 8).

Fiji Commission Education(2000)을 통해 교육의 방향은 다음과 같이 변화하였다. 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극대화하기 위해 일원화되어있던 교육부를 9개의 지방으로 분권화 시켰다. 기본교육을 10년에서 12년으로 확대시켰고, 환경적 지원을 위해 2009년부터 학교로 갈 때 이용하는 버스 요금을 지원하거나, 피지 15,000달러 이하 소득 가정에서는 무료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학교에 갈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이에 더 나아가 2012년부터 School Zoning 정책을 시행하였는데, 아동들이 집에서 가까운 학교를 다니도록 하였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아동과 부모를 돕는 지원을 확대하였다(Ministry of Education, National Heritage, Culture & Art, 2015: 9).

피지는 2014년에 \$54,150만 달러의 예산을 피지 교육을 위해 책정하였으며, 피지를 지식기반사회(knowledge based society)로 성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는 국가에서 초등, 중등 교육(1학년부턴 13학년까지)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초등부터 고등교육까지 전체적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Ministry of Education, National Heritage, Culture & Art, 2015: 9;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2017: 8). 또한 의무 교육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유치원 교육 1년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2017: 7).

피지 교육에서 발견되는 전반적 문제점은 3가지 정도로 요약된다. 첫째, 피지 인구가 나라 전체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학교 접근성이 떨어진다. 둘째, 교육에 대한 예산을 확대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특히 낙후된 지역의 교육 시설 보원에 우선적으로 필요하나 시설기준이 부재하며, 시설기준이 있는 경우에도 충족하는 시설이 소수에 불과하다. 또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격차가 크기 때문에 이러한 격차 해소는 피지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이다(Ministry of Education, National Heritage, Culture & Art, 2015: 10). 셋째, 교육성과 면에서 인종집단 간 격차가 크다. 소수민족에 대한 교육적 지원을 확대하여 그 격차를 완화할 필요가 있으며, 인종 간 상호 존중의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하는 실정이다(Ministry of Education, National Heritage, Culture & Art, 2015: 10-11).

III

국내·외 육아정책 개발협력 정책 및 사업 현황 분석

1. 국제기구 육아정책 개발협력 사업 현황
2. 개발협력 관련 국내 전문가 의견 분석



Ⅲ. 국내·외 육아정책 개발협력 정책 및 사업 현황 분석

1 국제기구 육아정책 개발협력 사업 현황

본 절에서는 아태지역 국가들을 대상으로 수행되었거나, 현재 수행하고 있는 국제기구의 개발협력 사업을 간략히 파악하고자 한다. 기존의 육아정책 부문의 개발협력 연구와 사업은 크게 교사교육, 아동발달 척도 개발 및 적용, 이외에 평화교육, ICT, 유아교육과 보육 재정 등으로, 최근 들어 주제가 다양해지는 추세이다.

유네스코 본부는 OECD와의 협약체결하에 ECEC 교원 설문조사(Starting Strong Survey (3S): ECEC Staff Survey)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6개국을 대상으로 영유아교사 설문조사(Survey of Teachers in Pre-primary Education, STEPP)를 실시하고 있다. UNESCO 본부의 영유아교사 설문조사(STEPP)는 OECD 3S 프로젝트와 유사한 내용의 전반적인 교원 실태조사로 7개 개발도상국(도미니카 공화국, 모로코, 남미비아, 가나, 베트남, 필리핀, 토고)을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다. STEPP은 SDG Target 4.2와 4.c(교원) 목표 달성 및 영유아 교원의 양성평등에 각별한 초점을 두고 있다(안해정, 2017).

유네스코 아태지역 본부와 동남아시아 11개국 장관으로 구성된 교육 각료기구(Southeast Asian Ministers of Education Organization, SEAMEO)(2016)는 2017년도에 영유아교사 역량개발 및 관리 지침(Guidelines for Early Childhood Teacher Development and Management)을 개발하여 해당국들에 영유아 교사 최소 자격기준과 전문성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교사의 질 향상을 도모하였다.

ARNEC(Asia-Pacific Regional Network for Early Childhood)은 2010년

부터 2013년까지 UNICEF와 Open Society Foundation의 후원으로 홍콩대학교에 발주하여 아태지역 3-5세 유아를 위한 발달측정도구를 개발하였다. 캄보디아, 라오스, 몽골, 필리핀, 태국, 바누아투, 베트남 등 7개국을 대상으로 7개 범주에 대한 평가척도를 포함하고 있다: 학습에 대한 접근방법, 인지 발달, 문화적 지식 및 참여, 언어 및 발현적 문해, 운동 발달, 건강, 위생 및 안전, 사회정서발달(문무경·박원순·임준범, 2015: 57-58). 아태지역 수준에서 개발된 EAP-ECDS는 개별국가 수준의 유아 평가도구 개발 및 활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성과가 있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라오스의 '학교준비도 역량', 캄보디아의 '발달평가시험', 베트남 '영유아발달 및 학습 체크리스트' 등을 들 수 있다(Rao, Sun, Ng et al., 2015). ARNEC은 아태지역 국가에 EAP-ECDS를 활용하고자 검사자 풀을 확대, 구축하고 검사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12년 7월, 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UIS)와 Center for Universal Education(CUE)은 학습성과 평가지표 전문팀(Learning Metrics Task Force: LMTF)과 국제자문위원단을 구성하여 유아기 및 학령기 아동에게 보다 나은 교육적 경험을 제공하고자 학습역량, 범세계적 학습성과 추적을 위한 평가지표, 국가적 지원을 포함한 7개 항목에 대한 권고사항을 제시하였다. 이 가운데, 범세계적 학습성과 추적을 위한 평가지표로 모두를 위한 학습, 학업을 위한 연령 및 교육 사항, 읽기, 산술, 학교준비도, 세계인으로서의 시민성, 학업기회의 폭과 같은 7개의 평가영역을 제시하였다(문무경 등, 2015: 67).

2 개발협력 관련 국내 전문가 의견 분석

2010년 우리나라는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른 효과적인 국제개발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무상과 유상을 아우르는 ODA 중점협력국(Country Partnership Strategy, CPS)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중점협력국은 협력대상국의 소득수준과 정치 상황, 우리나라와의 외교관계, 경제협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고려하여 선정하며, 분야별 원조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국가별로 차별화된 접근을 통한 ODA 효과성 제고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중점협력국별로 국가협력 전략(CPS)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원조를 추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에서 육아정책 관련하여 수행된 개발협력 연구 및 사업은 거의 부재한 실정이다.

본 절에서는 육아정책 관련 국내 개발협력 경험이 있는 소수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의견조사 및 심층면담을 실시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가.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1) 응답자 특성

국내 개발협력 운영 실태 및 발전 방안 파악을 위해 교육 분야에서 개발협력 연구 및 사업을 실행한 11개 기관의 14명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표<III-2-1>과 전문가 조사를 실행하였다. 조사에 응답한 전문가들은 본인들이 참여한 총 37여 개 개발협력 연구/사업 실행 경험을 바탕으로 조사에 응답하였다.

■ 표 III-2-1 ■ 전문가 조사결과 참여자 정보

구분		내용
조사대상 배경정보 (N = 14)	소속기관 및 참여자 수	총 11개 기관, 14명 (동국대, 부천대, 서울교대, 서울대, 이화여대, 충남대, 한국교원대, 교육개발원, 교육과정평가원, 아태이해교육원,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 개발협력의 대상, 주제 및 형태

개발협력 연구 및 사업의 대상을 선정하게 된 이유로는 우리나라 정부에 의한 선정(42.9%)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제는 전부 교육과 관련된 주제였으며, 응답자중 절반(50.0%)이 영유아 부문의 개발협력 연구 및 사업을 진행한 경험이 있었다. 사업선정 후 수요조사는 전체 14인 중 6인의 응답자가 실행하였다고 하였다.

또한 실행한 개발협력의 형태로는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 지원(24.4%)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이 국내초청연수(17.8%), 국제기구협력(13.3%), 시설 및 기자재와 같은 물자지원(11.1%) 및 정책컨설팅(11.1%) 순이었다. 개발협력의 재원 유형은 무상이 57.9%로 가장 높았다.

표 III-2-2 | 개발협력 연구/사업 기본 정보

단위: % (명)

전문가 조사 결과			응답률(빈도)
연구/사업 선정	대상국 선정 이유	대상국 요청	7.1 (1)
		국제기구 요청	7.1 (1)
		연구진/사업팀 선정	21.4 (3)
		우리나라 정부 선정	42.9 (6)
		기타 (협력사업/시행기관 요청 등)	21.4 (3)
	선정 주제	교육 관련	100.0 (14)
영유아 관련 선정 주제	관련 없음	50.0 (7)	
	관련 있음	50.0 (7)	
수요조사	실행 여부	없음	57.0 (8)
		있음	43.0 (6)
개발협력	개발협력 형태	전체	100.0 (45)
		프로젝트/프로그램 지원	24.4 (11)
		국내초청연수	17.8 (8)
		물자지원(시설 및 기자재)	11.1 (5)
		전문가 및 봉사단 파견	6.7 (3)
		유학생 지원	6.7 (3)
		정책컨설팅	11.1 (5)
		국제기구협력	13.3 (6)
		NGO/PPP	2.2 (1)
		기술협력	6.7 (3)
	개발협력 재원 유형	전체	100.0 (19)
		유상	10.5 (2)
		무상	57.9 (11)
		유무상 혼합	5.3 (1)
		민간 재원	10.5 (2)
		민간협력(PPP 등)	15.8 (3)
지속성	방문 횟수	평균	총 6.2회
	사업/사업의 지속성	지속적임	50.0 (7)
		단발적이며 지속적이지 않음	50.0 (7)

주: 다중응답의 경우 전체 응답의 빈도에서 응답률 및 빈도를 계산함.

3) 개발협력 실행과정의 어려움

개발협력연구 및 사업을 진행하면서 각 항목에 대해 경험한 어려움 관련하여, 표 Ⅲ-2-3)에서처럼 어렵다(대체로 어렵다 + 매우 어렵다)고 느낀 응답률이 가장 높았던 항목은 “사업기간 제한”(78.6%)이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지원예산 확보” 및 “모니터링 수행”이 둘 다 71.4%로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전문가들이 가장 어려움을 많이 느낀 “사업기한 제한”에 관해서는 교육개발협력사업의 성과가 나타나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점과 협력국의 타임라인과 조율하는 데서 나오는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종료 시기를 개발협력 사업 진행에 맞추어 유연하게 조정하거나, 중장기사업 등으로 연계 및 지속가능하도록 사전기획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표 III-2-3 개발협력 연구/사업 수행과정의 어려움

단위: % (명)

항목	응답률(빈도)	사례	개선 방안
1) 해당 협력국에 대한 정확한 정보 수집(현황 및 주요 파악 등)	50.0(7)	3	현지 지속가능한 파트너 기관 선정
		2	현지 연구사업을 위한 코디네이터 채용
		4,7	통합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6,10,13	해당국 정부 및 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12	정보수집 기간의 연장
2-1) 협력국 담당자와의 의사소통	35.8(5)	2,10	현지 담당자와의 친밀감 구축
		4,6	통역자 및 해당언어 전문가 인력풀 서비스 활용
		12	협력국과의 문화차이 이해
2-2) 언어 차이 (통번역의 어려움)	50.0(7)	2,7	국제협력에 전문성 있는 통역자 고용
		10,12	영어가 가능한 협력국 담당자 배치
		4,9,14	현지어를 하는 한국 유학생 활용
3) 지원예산 확보	71.4(10)	2,4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예산 확보
		7	관심 있는 민간기업의 참여 확대
		3,10	사전 기획 단계부터 적절성, 효과성, 합리성, 효율성, 지속가능성 등 종합적으로 고려한 단계적 중장기 계획 수립
4) 사업기간 제한 (시작부터 종료까지 시간)	78.6(11)	1,10	종료 시기를 연구/사업 진행 및 협력국과의 협의를 통해 유연하게 조정
		6,7,9,14	중장기사업 및 장기적 지속과제로 운영하여 연계 및 지속이 가능하도록 기획
5) 해당 협력국의 지리적 여건 (교통불편 등)	64.3(9)	2	출장일정을 현지 지리적 여건 및 교통 고려하여 계획
		3	현지 파트너 지원 요청
		14	협력국 내 접근성 높은 지역 선정
6) 여타 유관 기관과의 협력	50.0(7)	1,7	유관기관과의 정례적 협의회 및 워크숍 개최
		6	기관 간 컨소시엄의 방식으로 진행
7) 실행기관 내 제도 및 규정으로 인한 어려움	64.3(9)	1,2,3,7, 10,14	사업 기획부터 협력국의 상황 및 특수성을 고려한 제도 및 규정 개정
		2,10,14	특히 행정절차의 간소화에 대한 별도지침 필요
8) 문화, 법, 제도 등의 차이	64.3(9)	1,3,9, 12,14	철저한 사전조사 및 모니터링 실행
		10	담당자와의 대면 협의 활성화

항목	응답률(빈도)	사례	개선 방안
9) 성과지표 개발	64.3(9)	1,3,14	기획부터 전문가 및 담당자를 참여시켜 체계적으로 준비
		2,4	델파이, 통계자료 수집, 연구를 통해 개발
		5,7,9	교육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한 지표 필요
		12	영유아관련 성과지표 개발 필요
10) 모니터링 수행	71.4(10)	2,12	충분한 자원 투자
		10,14	사전부터 모니터링 역량 개발
		3,7,9	정기적인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1	기계적인 모니터링 수행보다 환류 필요
11) 연구진의 전문성 부족	35.8(5)	3	준비/기획부터 전문가를 지속적으로 활용
		13	유아교육분야 전문인력 참여
		1	사업 실행과 전문지식 등 다분야 전문성 강화
		5	전문성 갖춘 현지 연구진 참여
12) 기타 의견	N/A	2	서면조사 외, 분야 전문가들의 열린 토론회 및 제도 개선 위한 공동 목소리 필요

주: 1. 전혀 어렵지 않다, 2. 대체로 어렵지 않다, 3. 보통이다, 4. 대체로 어렵다, 5. 매우 어렵다 5점 척도 응답 평균. 어렵다는 응답률 = 4(대체로 어렵다) 와 5(매우 어렵다)에 응답한 비율임.

4) 개발협력 모니터링 및 평가

개발협력연구 및 사업 진행뿐만 아니라 모니터링 및 평가에 대한 현황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결과, 표<III-2-4>에서처럼 전체 실행된 총 23개 모니터링 및 평가 중, 사후평가(30.4%)가 가장 많이 실행되었으며, 사전평가의 경우 13.0%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4 개발협력사업의 모니터링 및 평가

단위: % (명)

구분	응답률(빈도)	방법
평가하지 않음	8.7(2)	· N/A
사전평가 실시	13.0(3)	· 전문가 평가/ 설문조사(수요조사 포함) · 면담조사/ 관찰 · 기초선조사(baseline survey)
중간평가 실시	17.4(4)	· 현지 협력기관 및 파견 PM 보고서 · 중간평가 및 최종보고서 평가 · 설문조사/ 면담조사/ 관찰
사후평가 실시	30.4(7)	· 운영사업 전반 평가 문헌 · 현지 협력기관 및 파견 PM 보고서 · 설문조사/ 면담조사/ 관찰 · 자체평가

구분	응답률(빈도)	방법
기타 모니터링 실시	26.1(6)	· 만족도 조사 · 설문조사/ 면담조사/ 관찰 · 자체 평가
대상국에서의 평가 실시	4.3(1)	· 만족도 조사 · 수요자 요구 모니터링(공무원, 원장, 유아교육과 입학생들의 요구를 중심으로)

주: 전체응답 = 100.0(23). 다중응답의 경우 전체 응답의 빈도에서 응답률 및 빈도를 계산함.

모니터링 및 평가에서 전문가들이 실행한 사전평가가 전체 중 13.0%에 그친 반면, 향후 개발협력 연구/사업을 위해 가장 필요한 모니터링 및 평가의 1, 2순위에 대하여, 아래 표<III-2-5>에서처럼 사전평가라는 의견이 50%로 가장 높았다. 즉, 전문가들의 개발협력 사업 실행을 통해 사전평가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은 있으나, 실제로 실행된 사전평가는 다른 모니터링 및 평가에 비해 높지 않으므로 향후 개선될 필요가 높다고 볼 수 있다.

■ 표 III-2-5 ■ 향후 개발협력 연구/사업을 위해 가장 필요한 모니터링 및 평가(1+2순위)

단위: % (명)

사전평가	중간평가	사후평가	기타 모니터링	대상국의 평가
50.0(9)	11.1(2)	33.3(6)	0(0)	5.6(1)

주: 전체응답 = 100.0(18).

5) 개발협력 발전 방안

우리나라 육아정책 및 교육 분야의 개발협력의 발전 방안에 대하여 가장 많이 응답된 의견은 해당분야 사업 및 연구의 지속성이었다. 특히 교육 분야는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려운 분야임을 감안하여 계획 수립부터 체계적으로 지속가능하게 연계 및 모니터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또한 이를 위해 교육 분야의 개발협력에 관해 협의된 공통의 방향성, 해당 전문가 및 관련 기관들 간의 지속적인 정보 공유 및 네트워크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실제적인 개발협력 실행의 과정에서 협력국의 수요 및 맥락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구체적인 발전 방안에 관한 전문가 의견을 정리하면 다음 표<III-2-6>과 같다.

표 III-2-6 우리나라 육아정책 및 교육 분야 개발협력 발전 방안

구분	주요 의견
국가차원의 개발협력 원리, 계획 및 거버넌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협력 거버넌스의 체계성과 효율성 제고 · 교육 분야 개발협력 원칙에 대한 정부부처의 합의가 필요 · 중장기적 차원의 마스터 플랜 · 교육 분야 개발협력 전략 필요. 특히, CPS의 중점협력분야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예, 교사훈련, 교육과정, 교육정책 개발, 고등교육 등) · 경제학적 시각 및 담론보다는 교육 자체에 대한 개발협력강조
개발협력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의 다양화 · 수원국의 요구분석 및 실제 시행가능성 분석 · 한국의 경험 공유 시스템 구축 · 취약계층 아동 대상 연구 및 사업 개발 · 유아-초중등-평생교육에서 교육 격차 해소
모니터링 및 성과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적인 연구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영유아발달과 교육에 대한 이해에 기초한 성과지표 선정
재정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적인 재정지원
유관기관/분야와의 협력과 소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기구, 국제기관들과의 협업 · 타 분야 개발협력 전문가와 주기적인 소통의 장 마련 ·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협력 지원관계 형성
전문 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협력 전문가 양성 · 연구 전문인력 지원: 현지에서 연구수행이 가능한 인력
개발협력 자료 수집 및 연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정보 수집, 분석, 공유 및 활용 강화 · 국제수준에서 발표된 주제별 세부 성과지표에 대한 사전분석에 기초한 '찾아가는 개발협력 활성화' · 연구-사업 간 유기적인 연계방안 모색 · 성과평가 모델 개발 연구 및 우수사례 연구 수행 강화

나. 전문가 면담 결과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1장, 3절. 연구방법), 최근 동티모르 유아교육 개발협력을 위한 수요조사(김경철, 2017)와 우즈베키스탄 유아교육부와의 긴밀한 협력 하에 유아교사 양성대학을 설치하는 B대학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육아정책 분야 개발협력의 목적, 전개과정, 특히 도전과제 및 향후 방향성에 대한 면담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육아정책분야(유아교육) 개발협력이 '질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개발협력국의 경우, 양질의 유아교육을 측정하는 지표가 주로 취원율에만 제한되어 있어 실제로 질을 포괄하는 목표에 도달하는 방법적 측면이나 방향은 소홀히 할 우려가 있다. 이는 자칫 개발도상국이 교육에서도 양적 성장에만 초점을 맞춰 기본적인 질적인 요소들을 놓치게 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유아교육 '질'에 양적인 수치만이 아니라 실제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데 필요한 유아교육의 질적인 요소들을 중심으로 유아교육 분야에서 발전계획을 장기적으로 수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유아교육의 질은 교육의 영역에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유관한 여타 부문의 지속가능발전 목표들과도 연계성을 가지고 포괄적으로 접근해 나갈 필요가 있다.

둘째, 협력의 균형을 맞추되 현지의 수요에 기반을 둔 지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유아교육은 가정과 사회의 양육 환경이나 문화에 더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다. 특별히 스스로 교육권을 결정할 수 없는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사회 문화적으로 적절한 양육과 보호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유아교육의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되, 개발협력국의 현지 문화에 맞는 지원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도 양국에 상호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장기간에 걸친 수요조사와 다양한 사례 발굴을 통해 유아교육 분야의 교육개발 협력 경험을 실천해나갈 필요가 있다.

셋째, 협력적 관계를 토대로 한 자립의 방향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한국이 유아교육 분야에서 앞서가는 것은 사실이나 한국의 유아교육을 개발협력국에 무조건 이양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사회적, 문화적 환경이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에서 누리과정과 같은 프로그램을 개발한 노하우를 통해 개발협력국의 유아교육 환경에 맞는 유아교육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역량 있는 교사의 양성이나 연수를 통해 자립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국 개발협력국이 한국이 없는 상황에서도 스스로 자립하여 자국의 유아교육을 주도적으로 실천해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는 인도적 지원에서 수원국의 주체성과 책무의식, 자립심을 증진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IV

선정국의 육아정책 분석

1. 우즈베키스탄의 육아정책
2. 베트남의 육아정책
3. 피지의 육아정책



IV. 선정국의 육아정책 분석

1 우즈베키스탄의 육아정책

가. 개요

2000년부터 2017년까지 우즈베키스탄의 ECCE 취원율(Gross enrolment ratio, Pre-primary)을 World Bank와 유네스코 통계자료를 통해 살펴보면, 2000년에 우즈베키스탄 전체 영유아의 23.75%가 ECCE를 이용하였고, 큰 변화 없이 비율이 유지되어 2017년에 27.14%의 등록률을 기록하였다.⁴⁾

소련 해체 후, 우즈베키스탄은 독립하였지만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지난 20년간 유치원 수는 감소하였다. 구소련 체제에서는 대다수의 유아가 유치원 교육을 받았지만, 독립 이후에는 오히려 유치원 수도 감소하고 취원아 수도 줄어들었다(CEFIA, 검색일: 2018년 11월 11일).

2018년 기준으로 아동 2,450,000명 중 818,000명만이 유치원을 다니고 있으며(약 33.4%) 농촌지역은 이보다 더욱 열악한 실정이다. 취원율을 제고하기 위해 World bank의 목표는 2019년 7월까지 100,000명 이상의 유아가 농촌에 위치한 2,400개 유치원에 취원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⁵⁾

4) The World Bank. Data, Gross enrolment ratio, pre-primary, both sexes(%).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SE.PRE.ENRR?end=2016&locations=VN-UZ-FJ&start=2000>, 인출일: 2018. 4. 26.

5) The World Bank. Investing in Children Means Investing in Uzbekistan's Future (2018. 3. 16). <http://www.worldbank.org/en/news/feature/2018/03/16/investing-in-children-means-investing-in-uzbekistans-future>, 검색일: 2018. 4. 12.

나. 모성과 영유아 건강 및 영양

기대수명은 국민의 건강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로, 측정당시의 사망률이 불변한다는 전제하에 신생아가 평균적으로 몇 세까지 살 것인지를 측정한다. 아태지역의 기대수명은 증가하고 있는데, 이것은 영유아사망률이 급감하는 데에서 기인한다(OECD, 2016: 14). 우즈베키스탄의 기대수명은 2005년 66세에서 2012년에는 68세로 증가하였으며, 유럽의 낮은 유아사망률과 높은 성인사망률을 가진 국가로 분류된 Eur-B+C에 비해 10% 정도 낮고, 유아사망률과 성인사망률이 모두 낮은 유럽의 국가군인 Eru-A의 평균에 비해서는 80% 정도가 높은 수준이다(6)7).

모성사망은 임신이나 분만 중, 또는 출산 후 42일 이내에 산모가 사망하는 것으로 정의하며, 사고나 우발적 원인에 의한 사망은 제외하고 임신, 임신관리, 임신으로 인한 악화된 원인에 의한 사망만을 포함하게 된다. 우즈베키스탄의 모성사망률은 정부의 공식 통계로는 2012년 산모 10만 명당 20.2명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WHO에서는 1990년 60명, 2000년에는 34명, 2005년 42명, 2010년 39명, 2014년에는 37명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WHO가 보고하는 5세 이하 아동사망률은 1,000명당 2000년 63.20명, 2005년 54.20명, 2010년 46.10명, 2014년에는 40.40명이다. 영아사망률은 2002년 출생아 1,000명당 17명 정도로 1990년 이후 약 절반 축소된 것으로 보고되며, 이는 다른 중앙아시아의 국가들의 평균치보다 더 개선된 수치로 평가된다(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2016: 14).

과거 우즈베키스탄의 영유아와 산모의 영양상태는 좋지 않아서 인구의 19%가 우즈베키스탄에서 정한 하루의 최소섭취칼로리인 2,100kcal에 미치지 못하는 영양분을 섭취하고 있었으나(박은성·서장진, 2013: 92), 2009년에서 2011년에 시행된 국민영양개선전략에 따라 모유수유 권장, 비타민 A 보충, 식량강화 등으로 아동뿐 아니라 인구전반에서 영양상태의 개선을 보였다고 평가된다. 이러한 노력에 힘 입어 5세 이하 체중미달 아동의 비율은 2002년 7.1%, 2006년 3.3%,

6) World Health Organization(2015). Uzbekistan: WHO statistical profile.

<https://www.who.int/gho/countries/uzb.pdf?ua=1>. 인출일: 2018. 10. 15.

7) Eur-A는 매우 낮은 유아사망률과 매우 낮은 성인사망률을 보이는 벨기에, 오스트리아, 체코, 덴마크, 프랑스 등의 25개 유럽국가를 지칭하며, Eur-B+C는 낮은 유아사망률과 높은 성인사망률을 보이는 국가로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하여 보스니아, 불가리아, 에스토니아, 그루지아, 헝가리, 리투아니아, 폴란드, 카자흐스탄 등의 유럽의 25개 국가를 지칭하는 것으로 WHO에서 정한 기준임(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2016: 12)

2011년 1.83%로 감소하였으며, 신장 미달 아동의 비율은 2002년 21.1%, 2011년 1.04%로 감소된 것으로 보고된다. 또한 5세 이하 아동의 빈혈 유병률은 2000년 66.6%에서 2011년 12.12%로, 요오드 결핍증은 47.7%에서 15.0%로 감소되었다고 보고된다(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2016: 38).

우즈베키스탄의 예방접종률은 과거 보건국의 엄격한 제도 실행으로 높았으나, 독립 후 이 지역의 다른 국가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것처럼 접종률이 낮아졌다. 2010년 초반 들어서는 결핵, HIV 감염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된다(한국보건의료재단, 2014: 12). 특히, 결핵은 전염성 질환 중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심각하다. 또한 영양불량이나 여성출산관련 질환이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어(박은성·서장진, 2013: 91),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국민후생개발전략(Welfare Improvement Strategy II, 2012-2015)의 하나로 모성보건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보건의료제공자들의 진료역량 강화 및 가임여성의 철, 요오드 등 영양부족의 문제를 해결하고, 감염성 질환에 대해 전국적인 예방접종을 수행하며, HIV/AIDS, 결핵 등 사회적 영향이 큰 질환에 대한 시민사회와의 협력 증진을 표명하고 있다(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2016: 36).

다. 유아교육 정책 추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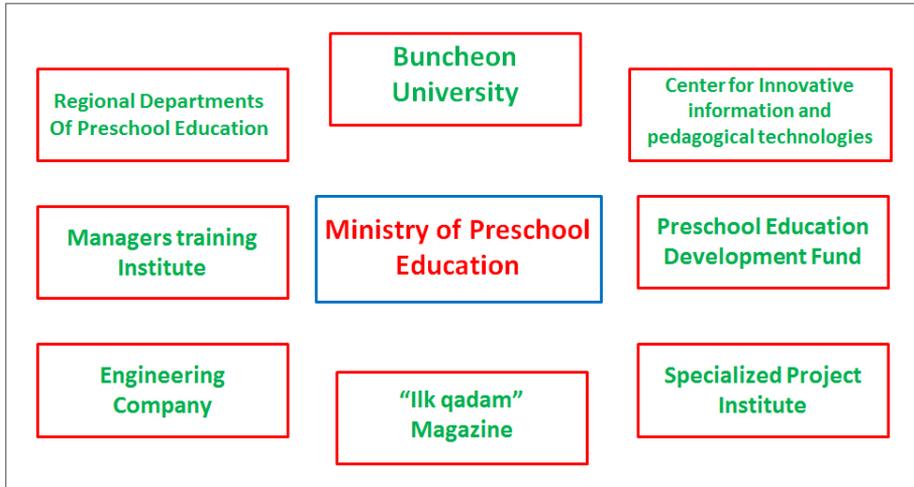
1) 유아교육부(Ministry of Preschool Education) 설립

2016년 12월에 취임한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Shavkat Mirmonovich Mirziyayev) 대통령은 유아교육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교육정책으로 설정하고, 유아교육의 빠른 확대를 위한 동력으로 유아교육부(Ministry of Preschool Education)를 정부의 독립 부처로 2017년 9월 30일에 설립하였다.

정부는 유아교육 확충을 위해 GDP의 0.9%를 투입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 예산의 4.1%를 차지하는 규모이다(Kim, 2018: 37).

유아교육부를 중심으로 정책을 수행하는 다양한 기구들이 있다. 한국의 부천대학교와는 MOU를 체결해서 교육과정, 교사교육 등의 협력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각 주(州)의 유아교육부서, 교사교육(연수) 기관, 기업, 혁신적 교수방법을 제공하는 센터, 유아교육 재정, 전문기관 등이 유기적으로 네트워크하여 우즈베키스탄 유아교육 확대에 힘쓰고 있다.

그림 IV-1-1 우즈베키스탄 유아교육 정책 협력기관



출처: Kim(2018). ECEC Policy Development and Issues in Uzbekistan. p.38.

2) 2018년 유아교육 추진 목표

우즈베키스탄의 유아교육 정책은 지난 1년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다. 유아교육 부를 설립한 후, 유치원 취원율이 약 6%로 상승했으며 기관 확충에 따른 교사부족을 메꾸기 위해 교사자격증을 속성으로 발급하고 있다. 관련 법령을 제정 중에 있으며 국가수준의 교육과정도 “Ilk Qadam”로 새롭게 명명하고 내용도 재구성하였다. 기관수도 1년 동안 1,149개가 설립되었으며 교사도 8,600명 증가하는 등 짧은 시간동안 괄목할 만한 양적 성장을 보이고 있다.

구소련 체제에서 유치원은 공립이 대다수였다면, 현재 우즈베키스탄은 사립유치원과 더불어, 해외자본을 유치해서 설립하는 PPP(Public-Private Partnership) 민관협력방식⁸⁾ 등으로 유치원 확충을 시도하고 있다. 2017년 대비 사립유치원 수는 2배 이상이 증가하였으며, PPP 방식의 유치원도 34개가 설립되었다.

8) 주로 개도국이 해외 민간자본으로 교량, 댐, 도로 등 시설기반사업을 진행하는 프로젝트를 칭하는 용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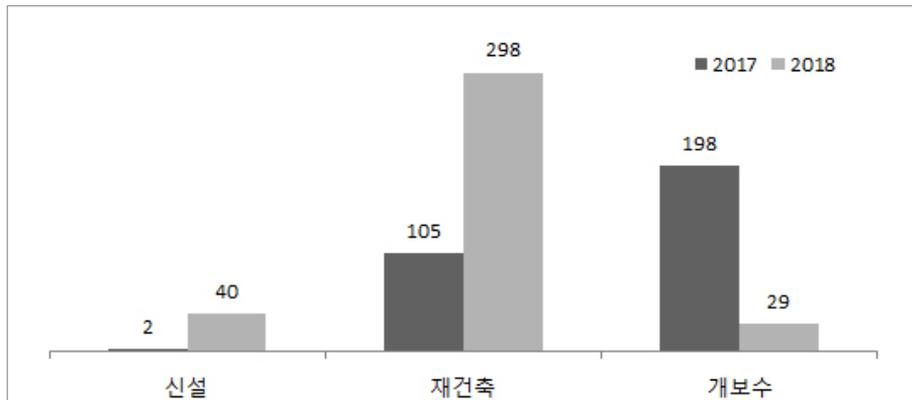
표 IV-1-1 2017·2018 우즈베키스탄 유아교육 추진 목표 비교

	2017년 9월	2018년 9월
취원율	27.7%	34.0%
자격증 취득기간	1년	10일
법령	없음	유아교육법 제정 추진 중
국가수준 교육과정	“Bolajon”	“Ilk qadam”
기관수(사립유치원 수)	5,199개(226개)	6,348개(568개, 34PPP, 117가정 내 유아교육 Family Preschools)
교사	58,400명	67,000명

출처: Kim(2018). ECEC Policy Development and Issues in Uzbekistan. p.38.

확충한 유치원을 보면, 기존 시설을 재건축한 경우가 가장 많고, 신설이 다음을 차지한다. 개보수는 2017년 대비 급격히 감소하였다. 신설은 2017년에 2개에 불과했지만, 2018년 40개로 20배가 증가하였다.

그림 IV-1-2 우즈베키스탄 유치원 확충 방식(2017·2018)



출처: Kim(2018). ECEC Policy Development and Issues in Uzbekistan. p.40.

연구진이 현지 방문한 “SEVINCH”(행복이란 의미임) 유치원은 10월 개원을 앞둔 미개원 공립유치원이었다. 유아 수 400명의 대형 유치원으로, 실외 환경도 교통교육을 자체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횡단보도, 도로, 신호등, 자동차 등이 구비되어 있었다. 학급마다 컴퓨터 모니터를 설치하여 최신 매체를 활용한 교육 방법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림 IV-1-3 우즈베키스탄 SEVINCH 공립유치원



출처: 연구진이 직접 촬영한 사진들임.

3) 국가수준 유아교육과정 제정

새로 제정한 우즈베키스탄의 유아교육과정은 우리에게 특히 의미가 있다. 우리의 누리과정이 제정의 모델이 되었기 때문이다. 새로 제정한 유아교육과정의 이름은 “Ilk Qadam”로 “기초단계” “첫 번째 단계”라는 의미이다. 기존의 교육과정 명인 “Bolajon”은 “아이”라는 의미이다. 유아교육과정의 새로운 이름을 통해 유아교육을 국가교육의 첫 번째 단계로 제도화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읽을 수 있다.

새로운 유아교육과정 “Ilk Qadam”이 추구하는 목표는 의사소통, 놀이, 사회성, 인지 등 4개의 능력을 갖추는 것이다. 교육과정은 신체건강, 사회정서, 의사소통, 인지, 예술 등 5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Kim, 2018: 39).

라. 유치원 현황

2018년 현재 약 6,000여개의 유치원이 있으며 우즈베키스탄의 유치원은 3-7세 유아를 대상으로 한다. 유치원의 교수어는 우즈베키스탄어와 러시아어이다. 그 외 카라칼팍어, 러시아어, 타지키스탄어, 카자흐스탄어 등으로 제공된다(Mushtaq, 2015: 129).

유치원은 대부분 주 정부 소유의 공립으로 제공되지만, 유치원 취원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사립, 외국기업 투자 등의 다양한 설립주체를 끌어들이고 있다(국외출장 면담결과). 이외에도 가정 중심 ECCE, 지역사회 중심 ECCE 등 다양한 유형의 교육방식으로 제공되는 추세이다(Mushtaq, 2015: 129).

현재 유치원 교육은 무상이 아니다. 공립유치원은 대개 월 \$20~25을 자부담하며 사립은 월 \$150 이상으로 훨씬 많은 비용을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었다(국외출장 면담결과).

2013년 기준으로 종일제 프로그램(full-day program) 모델을 기본으로 하였으나, 2018년 현재는 반일제 프로그램(half day program)에서도 전일제 프로그램과 같은 수준의 돌봄과 훈련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⁹⁾

그러나 연구진이 현지를 방문한 결과, 대부분의 우즈베키스탄 유치원은 종일제

9) The World Bank, Investing in Children Means Investing in Uzbekistan's Future (2018. 3. 16). <http://www.worldbank.org/en/news/feature/2018/03/16/investing-in-children-means-investing-in-uzbekistans-future>, 검색일: 2018. 4. 12.

로 운영하고 있었다. 대부분 8시에 등원해서 17시~18시까지 종일제로 운영하므로 유아들의 휴식은 필수이다. 따라서 모든 연령의 유아가 낮잠을 1~2시간 잔다.

기관에 머무는 시간이 길다보니 급식 2~3번, 중간에 간식 3번 정도를 제공하는 등 일일 급·간식 합쳐 5~6번 제공이 일반적이다(현지 출장 결과).

우즈베키스탄의 ECCE 교사자격은 최소 Vocational teachers' education 학위를 필요로 한다(Mushtaq, 2015: 129). 우즈베키스탄의 ECCE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은 2000년에 1:9.57이었으며, 2017년에 이르러 1:11.58로 나타나 오히려 2000년에 비해 2017년에 교사 대 아동 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되었다.¹⁰⁾

마. 문제점

우즈베키스탄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ECCE의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요약된다. 첫째, 유아교육의 질이 지역에 따라 편차가 크다는 점이다(Mushtaq, 2015: 129; World Bank, 2013: 12). 특히, 교사의 질 차이가 크다. 유능한 교사는 도시에서 근무하고자 하여 농촌의 교육의 질이 저하되고 있는데(Mushtaq, 2015: 129), 잘 훈련된 교사를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파견하여 교육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

둘째, 우즈베키스탄은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포괄적 매커니즘을 마련하고 있지만, 비용, 위치, 편리성, 부모의 시설이용에 대한 낮은 필요성 등으로 인해 ECCE 등록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World bank, 2013: 23). 구체적으로, 2009년 unicef 통계에 따르면 0-6세 부모의 34%가 'ECCE 이용 필요성이 없어서' 등록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27%는 '아이가 너무 어려서', 19%는 '비용부담 때문에', 13%는 '학교가 너무 멀리 있어서'라고 보고하였다(World bank, 2013: 24). 정리해보면, 우즈베키스탄 부모들의 영유아 교육에 대한 신뢰와 필요성이 확실히 정립되지 않은 상황이며, 이런 상황 때문에 자녀가 유아교육을 경험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OECD국가 평균과 비교해볼 때 GDP대비 많은 예산을 교육에 투자하고

10) The World Bank. Data, Pupil-teacher ratio in pre-primary education (headcount basis).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SE.PRE.ENRL.TC.ZS?end=2017&locations=VN-FJ-UZ&start=2000&view=chart>, 인출일: 2018. 4. 26.

있으나, 기관 취원율은 비슷한 타 국가의 절반에 못 미치고 있다(World bank, 2013: vi). 좀 더 시간을 두고 효과를 기대해야겠지만, 투자 대비 취원율이 저조하다면, 유치원의 설립 지역을 보다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 과연, 유아교육의 수요가 많은 적정한 지역에 설치되고 있는 지를 보다 면밀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넷째, 영아 보육을 제도화하려는 정부의 의지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사회주의 국가이지만 동시에 종교, 문화적 요인으로 인해 여권(女權)은 아직 걸음마 수준이다. 또한, 우즈베키스탄은 2대 또는 3대가 함께 사는 대가족 제도가 보편적이며 20대 초반에 여성 대부분이 결혼을 해서 가정에서 육아와 가사를 담당한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아직 미진하기 때문인지, 여성의 의식수준이 높지 않아서인지 영아보육의 제도화는 아직 요원해 보였다.

2 베트남의 육아정책

가.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 및 영양

베트남의 기대수명은 2015년을 기준으로 77.0세로, 같은 해 OECD 국가의 기대수명 평균인 80.6세보다는 3세 이상 낮지만, 아시아 국가¹¹⁾ 평균인 73.7세보다는 3.3세가 높은 수치이다. 특히, 남성은 71.3세, 여성은 80.7세로 남녀차가 8세 이상으로 나타나며 이것은 OECD 국가들의 성별 기대수명 차이 5.4세보다 2.6세 높다. 일반적으로 소득(일인당 GDP)이 높을수록 기대수명은 길게 나타나는데, 베트남의 경우 일인당 GDP소득이 유사한 국가군 내에서도 기대수명이 긴 편이다¹²⁾.

해당 년 돌 전에 사망한 아동 수로 정의되는 영아사망률은 2012년 출생아 1,000명당 18명으로 1990년에 비해 49%가 감소하였다. 2012년 OECD 국가의 평균 영아사망률은 출생아 1,000명당 4명인 것에 비하면, 베트남의 영아사망률은 4배 이상 높지만, 아시아 국가 평균인 24명보다는 낮다(OECD, 2014: 17). 한국가 내에서도 소득분위별(최하위분위/최상위분위), 지역(농촌/도시)별, 모의 교육

11) 아시아 국가는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캄보디아, 중국, 북한, 홍콩,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라오스, 마카오,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네팔, 파키스탄, 필리핀, 한국, 싱가포르, 스리랑카, 태국, 베트남을 포함한다.

12) <http://dx.doi.org/10.1787/888933413216>

수준별(최하/최상) 영아사망률은 차이를 보이는데, 베트남의 경우 지역별 차이는 크지 않으나, 소득분위별 차이는 2.5배, 모의 교육수준별 차이는 6배 이상으로 편차가 매우 크다¹³⁾. 5세 미만 아동의 사망률은 출생아 1,000명당 2012년 기준 23명으로, 1990년에 비해 54%가 감소하였다(OECD, 2014: 19). 5세 미만의 사망률 역시 영아사망률과 마찬가지로 소득수준별, 모의 교육수준별 차이가 커서, 2014년 기준으로 최하위소득은 최상위소득에 비해 2.7배, 최하위학력의 모의 경우 최상위학력의 모보다 5.7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¹⁴⁾.

모성사망은 2015년 출생 10만 명당 54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이것은 2000년 이후 33% 감소한 것이다¹⁵⁾. 따라서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3.1.1)는 2030년까지 모성사망을 출생아 10만 명당 70명까지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베트남은 이를 달성하였다(OECD, 2016: 29). 임신 37주 미만의 출산은 뜻하는 조산은 신생아 사망의 가장 큰 원인이고, 5세 미만 아동의 두 번째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OECD, 2014: 44). 베트남의 조산아는 2014년 출생아 100명당 9.4명으로 OECD국가 평균 7.6명보다는 높은 편이지만, 아시아 국가 평균인 11.7명보다는 낮다¹⁶⁾.

체중이 2.5kg 이하로 출생아 저체중아의 백분율(전체 신생아당)은 2014년 5.7%로 2000년 8.8%에 비해 35.2% 감소하였다¹⁷⁾. 5세 미만 아동의 발육부진(연령 대비 저신장)은 2010~2011년 기준 남아 23.7%, 여아 21.6%로 아시아 18개국 남녀 평균인 28.4%, 26.5%보다는 다소 낮은 편이다. 체력저하(신장 대비 저체중)도 남아와 여아 모두 약 4%로 아시아 국가의 남녀평균보다 낮다. 5세 미만 아동의 저체중(연령 대비 저체중)은 여아 12.1%, 남아 11.8%이다. 과체중인 아동 비중은 OECD 국가 및 중저소득 국가에서 증가하는 추세인데, 베트남의 경우 과체중인 여아는 3.8%, 남자는 5.5%로 아시아 국가 평균인 과체중 여아 3.7%, 남아 4.2%보다 다소 높은 비중을 보인다¹⁸⁾.

생후 6개월 간 완전모유수유¹⁹⁾를 받는 영아의 비중은 2014년 24%로 아시아

13) <http://dx.doi.org/10.1787/888933413223>

14) <http://dx.doi.org/10.1787/888933413237>

15) <http://dx.doi.org/10.1787/888933413237>

16) <http://dx.doi.org/10.1787/888933413358>

17) <http://dx.doi.org/10.1787/888933413358>

18) <http://dx.doi.org/10.1787/888933413378>

국가 평균인 43%보다 19%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아태지역 국가들에서 완전모유수유는 도시, 고소득, 고학력여성보다 농촌, 저소득, 저학력여성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데, 베트남의 경우 학력별, 지역별 차이는 크지 않으나, 소득분위별 차이가 높게 나타나 최상위 5분위보다 최하위 5분위의 여성의 완전모유수유율이 2.5배가량 높은 것으로 보고된다²⁰⁾.

아동대상의 보건서비스의 질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정책인 소아 예방접종은 비용효과성이 좋은 보건정책으로 알려져 있어,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소아마비, 백일해, 홍역, B형감염 등에 대해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베트남 경우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DTP3)의 예방접종률²¹⁾은 2014년 기준 95%로 OECD국가 평균과 차이가 없으며, 아시아 20개국 평균인 92%보다도 높다. 2014년 홍역 예방접종률과 B형 간염 예방접종률도 각각 97%, 95%로 OECD국가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²²⁾.

또한, 영유아기 질환관리서비스 중 비타민A의 보충, 홍역예방접종, 설사 시 수분보충요법(Oral Rehydration Therapy, ORT), 급성호흡기감염(Acute Respiratory Infection, ARI)에 대한 항생제 치료는 효과적인 의료서비스로 알려져 있는데, 베트남은 이러한 질환관리서비스의 이용비중이 높은 편이다. 비타민 A보충제를 복용한 유아의 비중은 2011년 83.4%로 아시아 국가 중 13개국 평균 72.2%보다 10%이상 높으며, 설사 시 ORT 치료를 받은 5세 미만 아동은 70.5%로 아시아 15개국 평균 61.7%보다 높다. ARI 증상이 있는 4세 미만 아동 중 항생제 치료를 받은 아동의 비율은 2014년 88.2%에 이르며, 이것은 아시아 국가평균인 56.6%보다 30%이상 높고 한국의 87.6%와 비슷하다²³⁾.

19) 모유는 영아에게 필요한 항체와 영양소를 공급해주는 이상적인 방법으로 설사, 폐렴 등 영아에게 위험한 질병으로부터 보호해준다. UNICEF와 WHO가 개발한 Global Strategy for Infant and Young Child Feeding and the Breastfeeding Advocacy는 생후 6개월까지 완전모유수유를 하고 생후 2세또는 그 이상까지는 고형식과 반고형식을 수유와 병행하기를 추천하며, 만24개월 이후까지도 모유수유를 권장한다(WHO, 2014).

20) <http://dx.doi.org/10.1787/888933413361>

21) 예방접종률은 1세 또는 2세 아동 중 권고시기에 예방접종을 받은 아동비중을 뜻한다.

22) <http://dx.doi.org/10.1787/888933413562>

23) <http://dx.doi.org/10.1787/888933413488>

나. 유아교육 정책

2000년부터 2016년까지 베트남의 ECCE 취원율(Gross enrolment ratio, Pre-primary)을 World Bank와 유네스코 통계 자료를 통해 살펴보면, 2000년에 베트남 전체 영유아의 40.51%가 ECCE에 등록하였고, 해마다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6년에는 약 2배 이상 상승한 86.76%의 등록률을 기록하였다.²⁴⁾

ECCE등록률을 아동의 연령에 따라 구분해보면, 그 변화의 양상이 달리 나타났다. 0-2세를 대상으로 하는 유아원은 2000-2001년의 등록률(11.0%)과 2012-2013년의 등록률(14.3%) 간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으나, 3-5세 대상 유치원과, 5세 대상 유치원의 경우 그 변화의 폭이 눈에 띄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3-5세 유치원의 2000-2001년 등록률은 49%였으나, 2012-2013년에 이르러 80.5%에 이르렀다. 5세 대상 유치원의 등록률은 2000-2001년에 72%였으나, 2012-2013년에는 98%라는 높은 등록률이 보고되고 있어 아동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기관 등록률이 높아지는 추이를 확인할 수 있다(Ministry of Education and Training, 2015: 13-14).

사회적 배경과 상관없이 모든 이에게 평등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베트남은 특히 소수민족 출신의 아동들에게 평등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 같은 노력은 MoET에서 제공하는 통계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2000-2001년에 ECCE에 등록한 소수민족 아동이 전체학생의 12.35%로 나타났으며, 매해 지속적으로 그 수가 늘어 2012-2013년에 16.32%에 이르렀다(Ministry of Education and Training, 2015: 14).

베트남의 ECCE 환경은 도시와 그 외 농촌 등 지방 간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데, 2000-2001년과 2012-2013년을 비교해볼 때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 아동의 ECCE 진입률이 크게 향상되었다. 2000-2001년에 ECCE 서비스에 새롭게 등록한 아동이 30% 미만이었던 메콩강 델타 지역(16.74%), 남동 지역(26.16%), 중앙 하이랜드 지역(23.75%), 남부 중앙 지역(26.7%)은 2012-2013년에 이르러 그 비율이 약 40% 가까이로 상승하였다(메콩강 델타 지역 = 29.79%, 남동 지역 =

24) The World Bank. Data, Gross enrolment ration, pre-primary, both sexes(%).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SE.PRE.ENRR?end=2016&locations=VN-UZ-FJ&start=2000>, 인출일: 2018. 4. 26.

40.46%), 중앙 하이랜드 지역 = 39.88%, 남부 중앙 지역 = 33.4%)(Ministry of Education and Training, 2015: 15).

베트남의 ECCE 교사 자격은 최소 고등학교 수준의 학위와 함께 2년의 훈련과 교육을 이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Tan, 2016: 25). ECCE 최소조건을 만족하면서 교육받은 교사들의 비율이 2000년에는 전체교사의 50.53%였던 데 반해, 2016년에 98.39%로 증가하였다.²⁵⁾ 베트남의 ECCE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은 2000년에 1:22.05이었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그 비율이 변화하여 2016년에 1:17.14로 나타났다.²⁶⁾ 즉, 2000년에 비해 2016년에 교사 1인이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아동을 돌보고 있는 상황이다. 매년 ECCE를 이용하는 아동수가 증가한 만큼 교사의 수도 증가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변화가 발생하였으며, 이는 ECCE의 보편적 교육을 지향하는 베트남 정부의 노력의 결과로 볼 수 있다(Ministry of Education and Training, 2015: 18). 하지만 다른 국가들의 ECCE 교사 대 아동 비율과 비교해볼 때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전체 교육을 위해 책정된 국가 예산 중 ECCE(pre-primary education)에 할당된 예산의 비율을 비교해보면, 베트남의 ECCE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증가를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Ministry of Finance의 자료에 따르면, 2000년에는 전체 교육비용 대비 ECCE 교육 예산 비율이 6.97%였으나, 해마다 비율이 증가하여 2012년에는 14.43%가 되었다(Ministry of Education and Training, 2015: 17-18).

‘Education for All(EFA)’ 정책 이후 2020년까지의 베트남 ECCE의 목표는 접근(Access), 질(Quality), 운영(Management)면에서 구체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0-2세를 대상으로 하는 유아원의 등록률을 동 연령 아동의 35%로 높이고, 3-5세 대상의 유치원 등록률을 90% 이상 증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ECCE 접근성을 높이고자 한다(Ministry of Education and Training, 2015: 65).

25) The World Bank. Data, Trained teachers in preprimary education (% of total teachers).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SE.PRE.TCAQ.ZS?end=2016&locations=VN-UZ-FJ&start=2000%2C>, 인출일: 2018. 4. 27.

26) The World Bank. Data, Pupil-teacher ratio in pre-primary education (headcount basis).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SE.PRE.ENRL.TC.ZS?end=2017&locations=VN-FJ-UZ&start=2000&view=chart>, 인출일: 2018. 4. 26.

둘째, 2020년까지 베트남은 교사 대 유아 비율을 국제수준으로 신장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유아학교(preschool)의 경우 1:2.5, 종일제 유치원의 경우 1:2.3의 비율을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교사의 최소 자격요건을 유아교육 대학학위로 높이고, 정기적인 훈련과 교육을 통해 교사의 질을 신장시킬 계획이다. 아동의 신체적 정서적 발달을 위한 프로그램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프로그램 모니터링을 실시하고자 한다(Ministry of Education and Training, 2015: 65).

셋째, 베트남은 교육부와 여타 부처와의 협력을 통하여 부처 간 파트너십을 확대할 예정이다(Ministry of Education and Training, 2015: 66). 환경부, 노동부, 여성부 등 관계부처들과 함께 교육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분담하여 ECCE의 폭넓은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3 피지의 육아정책

가. 모성과 영유아 건강 및 영양

피지의 기대수명은 2000년 67.7세에서 2015년 현재 69.9%세로 증가하였으나, 2015년 OECD 평균 기대수명인 80.6세보다 10세 이상 낮다. 성별로 구분해 보면, 2015년 남녀 각각 67.0세, 73.1세로 남녀가 6세가량 차이가 난다²⁷⁾. 피지의 영아사망률은 출생아 1,000명당 19.1명으로, 2000년 20.8명보다 8.2% 감소하였다. 5세 미만 아동의 사망률은 2015년 기준 출생아 1,000명당 22.4명으로, 이는 2010년 24.5명보다 8.6% 감소한 수치이다. 이 같은 피지의 영유아 사망률은 아시아 20개국의 2015년(혹은 최근년도) 영아사망률 21명, 5세 미만 유아사망률 25명보다는 다소 낮지만, OECD국가의 영아사망률 4명, 5세 미만 유아사망률 5명과 비교하면 꽤 높다는 것도 알 수 있다²⁸⁾.

임신, 출산, 분만이나 출산 후 42일 이내의 사망인 모성사망률은, 피지의 경우 2015년 출생아 10만 명당 30명으로 집계되었다. 이것은 2000년 이후 29% 감소

27) <http://dx.doi.org/10.1787/888933413216>

28) <http://dx.doi.org/10.1787/888933413223>
<http://dx.doi.org/10.1787/888933413237>

한 수치이며, '지속가능한 개발목표'에서 정한 출생아 10만 명당 70명 미만의 목표를 거뜬히 달성한 것으로써, 아시아 21개국의 평균인 91명보다도 훨씬 적다. 그러나 2015년 OECD 국가의 평균 모성사망률 7명에 비하면 여전히 높다(OECD, 2016: 29).

임신 37주 미만의 조산아는 출생아 100명당 9.9명으로 아시아 20개국의 평균인 11.7명보다는 낮지만 OECD 국가들의 평균인 7.6명보다 3명이 높다. 출생체중인 2.5kg 이하인 저체중 신생아는 전체 신생아의 10.2%로 앞서 살펴본 베트남의 약 2배이나 아시아 20개국의 평균 11.7%보다는 낮다. 물론 OECD 국가의 평균값인 6.6%보다는 약 4% 높다. 아태지역국가에서는 대부분 지난 10년간의 저체중 출생아 비중이 감소했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저체중 출생아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된다. 한국을 비롯하여 태국, 파키스탄, 일본과 함께 피지는 저체중 출생아의 비중이 증가한 국가로, 1998년에서 2004년 사이 저체중 출생아 비중이 약 7% 증가하였다²⁹⁾.

UNICEF와 WHO에 의해 영아의 면역과 영양소 공급을 위한 이상적인 방법으로 권장되는 모유수유의 경우, 생후 6개월간 완전모유수유를 받는 피지의 영아는 2004년 기준으로 40%이다. 이는 아시아 18개 국가의 43%보다는 다소 낮으나 2014년 집계된 베트남 24%의 완전모유수유율보다는 1.8배가량 높은 수치이다³⁰⁾. 또한, 아태지역 국가에는 영유아의 발육부진과 소모병과 마름(신장보다 체중이 적은 상태)의 비중이 높은 국가들이 많으나, 피지의 경우 발육부진은 남아와 여아가 각각 8.0%, 6.9%, 소모병은 8.2%, 4.6%로 전반적으로 10%가 안 된다. 이러한 피지 영유아의 영양상태는 18개 아시아 국가의 발육부진 평균이 남녀 각각 28.4%, 26.5%이며, 소모병은 8.1%, 7.4%인 것에 비하면 양호한 편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한편, 5세 미만 과체중은 2004년도 기준 남아와 여아가 각각 5.4%, 4.8%로 17개 아시아 국가 평균인 3.7%, 4.2%를 조금 상회하는 수준이다³¹⁾.

영유아 대상의 보건서비스 중 효과성이 높다고 보고되는 소아예방접종의 경우, 피지의 소아예방접종률은 OECD 국가의 평균 접종률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높게 나타난다.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DTP3)의 예방접종률은 99%로 OECD 국가

29) <http://dx.doi.org/10.1787/888933413358>

30) <http://dx.doi.org/10.1787/888933413361>

31) <http://dx.doi.org/10.1787/888933413378>

평균인 95%보다 높고, 홍역 예방접종률은 94%로 OECD 국가들의 평균접종률과 동일하며, B형 간염 예방접종률은 99%로 OECD 국가 평균인 91%보다도 8%p 높다(OECD, 2016: 93).

나. 유아교육정책

피지에서 'Education for All' 정책을 추진한 이래, 영유아 교육은 가장 중요하게 추진되어야 하는 우선과제 중 한가지로 손꼽혀 왔으며, 피지 정부와 교육부에서도 이에 대한 움직임을 적극적으로 보여 왔다(Ministry of Education, National Heritage, Culture & Art, 2015: 15).

2000년부터 2009년까지 피지의 ECCE 취원율(Gross enrolment ratio, Pre-primary)을 World Bank와 유네스코 통계자료를 통해 살펴보면, 2000년에 피지 전체 영유아의 10.95%가 ECCE를 등록하였고, 그 이후 소폭 상승하여 2009년에 17.87%의 등록률을 기록하였다.³²⁾ 비슷하게 피지 교육부의 자료(FEMIS, Ministry of Education Annual Report)에서도 2002년부터 2012년까지 영유아 교육 기관에 등록한 아동 수가 2,230명에서 9,577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Ministry of Education, National Heritage, Culture & Art, 2015: 17). 2017년에 초등학교에 진학한 98%의 학생들 중에 영유아 교육 경험을 지닌 아동의 비율이 98%로 보고되어 피지 유치원의 등록률이 상당히 높아졌음을 유추할 수 있다(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2017: 22).

피지 영유아 교육은 2-6세를 대상으로 하는 보육(childcare/day care center)과 4-5세를 대상으로 하는 유치원 교육(kindergarten)으로 구분된다. 피지에서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 유아교육 관련 학위, 자격증 등을 소지하거나 기본 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Ministry of Education, National Heritage, Culture & Art, 2015: 16). 또한 피지에서는 ECCE 교사 최소 자격을 소지한 뒤 현장에서 일하기 전에 반드시 국가 시스템에 교사 등록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2017: 14). 교사 자격 요건에 따라 교사

32) The World Bank, Data, Gross enrolment ration, pre-primary, both sexes(%).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SE.PRE.ENRR?end=2016&locations=VN-UZ-FJ&start=2000>, 인출일: 2018. 4. 26.

의 연봉에서도 차등이 있으며, 자격증 없이 기본 훈련만 받은 교사와 자격증을 소지한 교사의 연봉은 2배 이상 차이(\$2,460 vs. \$5,330)가 있다(Ministry of Education, National Heritage, Culture & Art, 2015: 16).

피지의 ECCE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은 2000년에 1:20.9이었으며, 이후 소폭 변화하여 2009년에 1:19.2로 나타났다.³³⁾ 2017년 기준으로는 교사 대 아동비율이 1:15로 보고되어 해마다 그 비율이 조금씩 더 나아지고 있으나, 타 국가와 비교해볼 때 각 학급에 추가적으로 교사가 배치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2017: 36).

피지의 총 교육예산에서 ECCE에 책정된 예산은 2017년 기준 2.9%이다(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2017: 36). 피지는 Education Act에 ECCE를 포함하였으며 국가차원의 ECCE 정책을 마련하고, 국가 ECCE 체계를 구축한 상황이지만, ECCE 센터와 커리큘럼 질관리 기준 설정과 영유아 학습과 발달 기준 설정에 대해서는 현재 기준을 정립하는 과정에 있다(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2017: 9).

33) The World Bank, Data, Pupil-teacher ratio in pre-primary education (headcount basis).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SE.PRE.ENRL.TC.ZS?end=2017&locations=VN-FJ-UZ&start=2000&view=chart>, 인출일: 2018. 4. 26.

V

아태지역 육아정책 개발협력 수요 분석

1. 국가별 육아정책 개발협력 수요
2. 공통적 육아정책 개발협력 수요



V. 아태지역 육아정책 개발협력 수요 분석

1 국가별 육아정책 개발협력 수요

가. 우즈베키스탄 육아정책 개발협력 수요 분석

1) 구조적 요소

가) 법적 기반 마련

현재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유치원 확충이 지속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법적 기반이 반드시 필요하다. 유아교육부(Ministry of Preschool Education)를 설치했으므로 이에 맞는 유아교육법 제정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유아교육법”이 초등학교법과 독립되어 있다. 또한, 어린이집의 “영유아보육법”과도 독립되어 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향후 유아교육 5개년 계획에서 취학 1년 전(6~7세) 유치원 취원율은 100%, 3~5세 취원율은 50%를 목표로 설정하였다(Kim, 2018: 42). 새로 제정하는 유아교육법에 이 내용이 정확하게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100% 취원율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소요 예산과 유치원 수를 정확하게 추정해서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취원율 100%란 무상교육과 의무교육이란 공교육의 핵심적인 두 개념을 포함하므로 이를 법제화하는 것은 실현가능한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겠다.

일례로 핀란드 등 취학 1년 전 교육을 의무화한 선진 사례들을 검토해 봄으로써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여야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취학 1년 전 교육의 의무화에 대하여 유아 발달 상 적절하지 않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어 왔다. 핀란드의 취학 1년 전 의무교육의 경우, 반일제로 제공된다. 유아교육을 의무, 무상교육으로 제공하려면 정확한 대상(출생연도 기준의 연령), 교육시간, 교육내용 등이 법령에 규정되어야 한다.

나) 유치원 확충 방식

유치원의 빠른 확충을 위해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사립유치원 설립을 권장하고 있다. 사립유치원 설립자에게는 세금 혜택 등의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Kim, 2018: 41). 연구진이 현지 방문한 타슈켄트 소재의 사립유치원도 2018년 6월 개원하였다. 교육사업을 하고 있는 개인 3인(이 중 1명은 외국인)이 공동투자해서 설립하였다. 사립유치원 방식의 설립은 보다 자율적이고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사립유치원의 비리 문제를 보면, 공교육의 주체는 정부(중앙정부, 지방정부)이어야 한다. 취학 1년 교육을 100%화하기 위해서는 유치원에 많은 국가 재정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개인의 자산으로 유치원을 설립하게 되면 정부의 개입이나 권한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따라서 유치원 확충은 공립을 기본 골자로 하되, 사립유치원의 설립주체는 개인이 아닌 법인이어야 한다. 한국의 현재 사립유치원 문제를 우즈베키스탄 유아교육부와 적극적으로 공유할 필요가 있다.

유치원 확충을 위해서는 민관협력방식(Public-Private Partnership, PPP)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이 방식으로 2018년에 34개의 유치원을 설립하였다.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관협력사업은 정부의 독점적 자원과 민영화 사이의 중간 정도에 위치하는 일반적인 형태(한국수출입은행, 2012: <https://forniwg.tistory.com/387>, 검색일: 2018년 11월 12일)라는 점에서 향후 정부의 관리감독 측면에서 수월하다. 그러나 PPP방식은 민간의 목적인 '이윤 추구'가 정부의 이해관계와 접점을 찾아야 하며 민간부문의 위험을 정부가 분담해야 하는(한국수출입은행, 2012: <https://forniwg.tistory.com/387>, 검색일: 2018년 11월 12일) 숙제가 있다.

2) 질적인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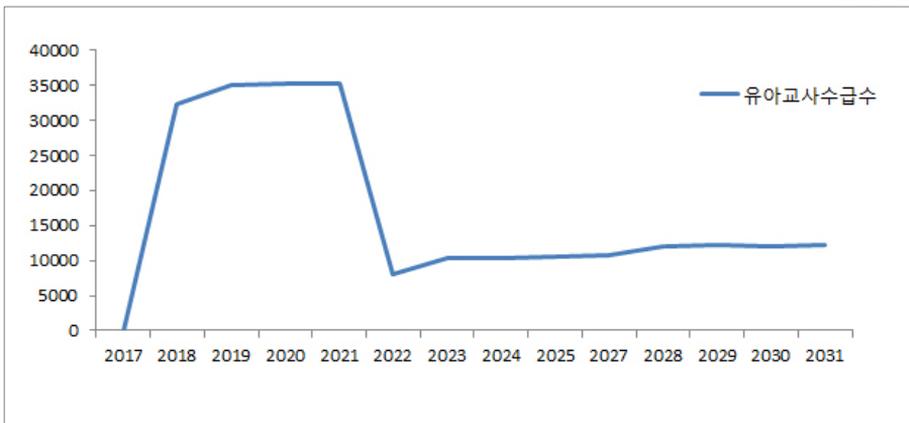
가) 교사교육

유치원 확충에 따라 유치원 교사는 부족한 상태이다. 다음 그림은 2017년부터 2031년까지 필요한 유치원 교사 수를 추계한 것이다. 2021년까지 수요가 급증하다가 2022년을 기점으로 급감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향후 5년 동안은 유치원 교

사에 대한 수요는 크지만, 5년 이후는 그 수요가 절반 이하로 감소한다는 추이 결과를 기반으로 유치원 교사 수급을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5년이 경과하면, 과잉수급의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를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당장 시급한 교사양성과 더불어 현직교사 대상의 연수프로그램도 교사의 질을 유지하는 데 필수조건이므로 양성과 함께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 그림 V-1-1 ■ 우즈베키스탄 유치원 교사 수급 추정(2017~2031)

(단위: 명)



출처: Kim(2018). ECEC Policy Development and Issues in Uzbekistan. p.43.

우즈베키스탄 유아교육부는 교사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 유치원 교사는 최소한 직업학교 졸업자이어야 하며, 우즈베키스탄의 직업학교는 고등학교 10, 11 학년에 해당한다(CFFIA, 검색일: 2018. 11. 12.).

2000년대 중반 이후 학교교육개혁이 실시되면서, 직업학교는 직업칼리지로 위상이 높아지기는 했으나 대학교육 단계는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아교육이 발달한 국가의 경우, 유치원 정규교사는 대학교육을 이수한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우즈베키스탄 정부도 유치원 정규교사의 학력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다(Kim, 2018: 38). 따라서 우리나라 대학의 유치원 교사 양성과정을 공유하고 우즈베키스탄에 맞는 교육과정 제정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한편, 양질의 교사를 유아교육에 유입하려면 급여 등의 처우 및 복지가 수반되어야 한다. 2018년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유치원 교사의 급여를 30% 상향하였다

(이희경, 2018). 양질의 인력을 유입하기 위해서는 유치원 교사 급여의 적정 수준 문제도 중요하므로 개발협력 컨설팅 항목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

나) 교육과정

앞서 언급했듯이 국가수준 교육과정인 “Ilk Qadam”은 우리나라의 누리과정을 기반으로 해서 개발되었다. 교육의 “첫 단계”, “기본단계”란 의미인 “Ilk Qadam” 교육과정을 유치원에서 잘 구현되기 위해서는 교사뿐 아니라 시설·설비, 교재·교구 등이 구비 되어야 하며. 이는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있는 5개 영역의 성격에 부합하여야 한다.

정규 교육과정 외에 운영하는 특별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연구진이 면담한 우즈베키스탄 학부모들도 자녀 교육열이 상당히 높았다. 외국어, 미술, 음악, 발레 등의 교육을 유치원에서 제공하길 원했다. 자신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유치원을 “찾아서” 가기도 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집 근처 유치원 배정이 원칙인데, 이 유치원의 프로그램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유서를 작성하고 원거리에 있는 원하는 유치원에 보내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한다. 연구진이 면담한 가구에서도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유치원에 보내기 위해(집 근처 유치원은 우즈베키스탄어를 사용하므로) 사유서를 제출하고 집에서 먼 유치원에 자녀를 보내고 있다고 했다.

그런데 수요자의 욕구를 모두 충족시키려면 국가수준의 유치원 교육의 정체성이 모호해질 수 있다. 유치원 교육을 공교육의 첫 단계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교육철학을 확고히 실천하는 것이 우선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정보 및 자료를 전국적으로 배포,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Open EMIS(Education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이란 인터넷 사이트를 유아교육부 홈페이지와 연계해서 운영하고 있다 (Kim, 2018: 39). 전국적으로 표준화된 유아교육과정을 보급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이다. 해당 사이트가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교육 자료의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다) 질 제고를 위한 평가지표

유아교육이 양적으로 크게 확대됨에 따라 질 관리 문제를 논의하고 있으며, 향후 유아교육 5개년 발전전략의 하나로 새로운 평가지표 개발이 포함되어 있다 (Kim, 2018: 42). 우리나라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2000년대 후반부터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정기적으로 기관들을 평가하고 있다. 2015년에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공통평가지표를 개발하기도 하였다. 한국은 앞서 평가지표를 개발해 온 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을 것이다. 단순히 평가지표만이 아니라 지표를 개발하는 체계와 과정을 아울러 공유하고 전수할 필요가 있다. 한국과는 다른 우즈베키스탄 유치원만의 특성을 고려해서 평가지표에 반영해야 한다.

참고로 가장 최근에 만든 한국의 공통평가지표는 4개 영역, 20개 지표 77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I 영역은 교육·보육과정 운영에 대한 내용으로 총 29개의 평가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II 영역은 교육·보육 환경 및 운영관리에 대한 내용이며 총 20개의 평가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III 영역은 건강·안전으로 15개의 평가지표, IV 영역 교직원 영역으로 13개 평가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평가지표 틀과 내용은 우즈베키스탄 유아교육 평가지표 개발 수요에 일조할 것이다.

▣ 표 V-1-1 ▣ 한국 유치원·어린이집 공통지표

평가영역	평가지표(평가항목 수)
I. 교육·보육과정 (29)	1-1. 교육 계획 수립 및 실행(4)
	1-2. 균형적·통합적 일과운영(5)
	1-3. 교수·학습방법(및 놀이지원)(6)
	1-4. 교사·유아 상호작용(6)
	1-5. 유아 간 상호작용 시 교사 역할(4)
	1-6. 평가(4)
II. 교육·보육환경 및 운영관리(20)	2-1. 실내 공간 구성(5)
	2-2. 실외 공간 구성(3)
	2-3. 기관 운영(5)
	2-4. 가정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5)
	2-5. 방과후 과정(2)
III. 건강·안전 (15)	3-1. 실내외 공간의 청결 및 안전
	3-2. 급·간식
	3-3. 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및 관리
	3-4. 등하원의 안전
	3-5. 안전교육 및 사고 대책

평가영역	평가지표(평가항목 수)
IV. 교직원(13)	4-1. 원장의 리더십(4)
	4-2. 교직원의 근무환경(3)
	4-3. 교직원의 처우와 복지(3)
	4-4. 교직원의 전문성 제고 노력(3)

출처: 교육부(2017). 제4주기 유치원 평가 중앙 연수 자료집. p.15.

나. 베트남의 육아정책 개발협력 수요

본 절에서는 베트남의 육아정책에 대해 관련법과 제도, 경제, 재정, 전달체계 등의 ‘구조적 요소’와 영유아와 교사, 교육과정 등의 ‘질적인 요소’로 구분하여 개발협력의 수요를 분석하였다. 베트남의 교육통계와 국내 선행연구 그리고 본 연구의 협력연구기관인 ARNEC에서 수행한 연구 및 수요조사, 본 연구의 일환으로 진행된 KICCE 정책세미나에 참여한 베트남 국립 교육과학원의 유아교육센터의 Nguyen Thi My Trinh의 발표와 면담 내용을 토대로 하였다.

1) 구조적 요소

가) 법제도적 장치

ECEC의 법제도적 장치로, 베트남 정부는 2009년 교육법(Law on Education)에 5세 아동에 대한 보편적 교육기회 제공(universalization)을 명시하였으며, 2017년 들어서는 보편적 기회제공에서 더 나아가 특정 욕구를 지닌 아동들의 권리보장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추가하였다. 실제로 베트남은 2010~2020년의 국가계획(National Strategies) 내에 2016년부터 아동에 대한 특별 시책으로 국가영양계획(National Nutrition Strategy), 국가아동보호프로그램(National Child Protection Programme), 아동을 위한 행동 프로그램(Programme of Action for Children), 아동의 참여권 보장을 위한 프로그램(Programme of Ensuring Children’s Participation Rights), 아동 상해방지 프로그램(Child Accident and Injury Prevention Programme), 아동 노동 예방 프로그램(Child Labour Prevention and Reduction Programme), 5세 미만 아동의 영양실조 예방 프로그램(National Programme of Malnutrition Prevention for Children under 5) 등 영유아를 위한 다양한 국가시책을 내놓고 있다(Nguyen

Thi My Trinh & Nguyen Ba Minh, 2018: 2~3).

이러한 베트남 정부의 움직임은 정책대상으로서 영유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ECEC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자체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지만, 이러한 법과 제도의 마련이 실제 집행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근본적으로는 베트남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제도적 틀이 국제사회 공동의 개발목표와 부합하고 있는지, 불충분하다면 어떠한 법제도가 마련되어야 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나) 경제구조에 따른 개발협력의 수요

베트남의 경제구조에 따른 ECEC 분야의 수요도 예측된다. 베트남 사회에서 노동인구의 비중은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 집단의 정책적 수요는 매우 높아지고 있다. 베트남은 다른 ASEAN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노동인구 증가율이 높은 편으로, 2011년 총인구 대비 노동력 비율은 58.6%로 집계되며, 2020년까지 13% 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채지은·우명숙, 2013: 41),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도 높아 2016년 기준으로 여성은 베트남 전체노동인구의 48.5%를 차지한다³⁴). 지역적으로는 1986년 개혁개방정책 이후 산업화, 도시화가 거세지는 가운데 ‘산업지구(IZ: industrial zones)’, ‘수출증진지구(EPZ: export processing zones)’가 형성되면서 지역거주민들의 특수한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요구에 따라 2013년 베트남 정부는 산업지구와 수출증진지구에 사회적 인프라를 확충할 것을 표방하고 각종 시책들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그중 하나로 2014년에는 2020년까지 이 지역의 아동을 위한 민간시설의 설립과 지원을 약속하였으며, 2015년에는 ECEC 시설을 위한 대지할당 규정을 마련하고, 2017년에는 조합의 ECEC 설립에 대한 투자 등 이 지역 아동을 위한 제도적 노력을 구체화하였다(Nguyen Thi My Trinh & Nguyen Ba Minh, 2018: 5~6). 베트남의 산업지구에 대한 ECEC 분야의 협력은 ARNEC에서도 강조하고 있으며(ARNEC, 2018: 87), 베트남 국립 교육과학원의 유아교육센터의 Nguyen Thi My Trinh

34) 한국노동연구원 해외노동동향(2016. 8. 19.). 베트남, 채용에서의 성차별, 여성에 대한 보이지 않는 벽. <https://www.kli.re.kr/kli/selectBbsNttView.do?bbsNo=8&key=42&nttNo=128676>, 인출일: 2018. 11. 13.

박사 역시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한 ECEC분야의 협력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산업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베트남 사회에, 이미 많은 경험을 보유한 산업선진국의 ECEC에 대한 협력은 요긴할 것이다. 노동집단과 산업지역을 주요한 대상 집단으로 설정하고, 이들에 대한 ECEC 지원이 어떤 방식으로 설계되어야 하는지 살펴보고, 같은 아시아 국가로서 급격한 산업화를 거친 한국의 경험을 참고하여 ECEC 정책컨설팅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다) 교육예산의 확대와 예산집행기구의 조정

재정구조와 관련해서는 베트남 정부의 다년간의 교육통계자료를 자세하게 분석하고 ECEC분야의 개발협력에 대한 수요를 파악해 보기로 한다. 아래 <표 V-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베트남 정부의 교육비는 2010년부터 급격하게 증가하여 2015년에는 2010년도 예산의 두 배까지 증가하였다. 이에 맞추어 ECEC에 할당된 교육비 역시 같은 기간 두 배로 증가하였다. 전체 교육비 중 ECEC의 교육비 비중은 2010년 15.8%에서 2015년 18.6%로 2.8%p 증가하였지만, 이것은 2011년 베트남 정부가 ECEC분야에 20%를 할당하겠다는 계획에는 못 미친 액수이다(Nguyen Thi My Trinh & Nguyen Ba Minh, 2018: 9). 특히, ECEC의 예산에서 시설비를 제외하면, 2015년 기준으로 ECEC의 교육예산은 베트남 정부의 전체 교육예산 중 13%이다.

표 V-1-2 베트남 정부의 ECEC 교육비 예산(2011~2015년)

단위: 10억 dong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전체 교육비	90,500	107,084	146,788	169,486	183,044	192,200
ECEC 교육비	14,324	18,489	26,839	31,870	33,850	35,800
ECEC 교육비 비중	15.8	17.3	18.3	18.8	18.5	18.6
ECEC 교육비 (시설비 제외) 비중(%)	12.9	12.5	13.6	13.2	13.1	13.0
영유아 1명당 교육비 (백만 dong)	6.1	6.2	7.75	8.8	8.9	9.0

출처: the Ministry of Finance 2010, 2011, 2012; the other years' figures were estimated

이처럼 베트남의 교육비가 괄목할만하게 증가한 데에는 베트남 정부의 자체적인 지원 외에도 국제사회의 원조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채지은·우명숙, 2013: 90). 베트남 국립 교육과학원의 유아교육센터의 Nguyen Thi My Trinh 박사는 2011년부터 2015년은 ODA가 활발했던 시기이며, 국제사회의 지원은 베트남의 ECEC 예산을 확보하는데 직접적으로도 기여했지만, 다른 자본이 투입되는 데에 기폭제 역할을 했다고 언급한다. 특히, 같은 시기 영유아 1명당 교육비가 2010년 6.1백만동에서 5년 만에 약 1.5배 커진 9백만동에 이르게 된 것은, ECEC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이 베트남 국내의 ECEC에 대한 인식을 바꿔놓았기에 가능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것은 국제사회의 재정 지원이 단순히 산술적인 예산증액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자원을 동원시키는 자극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베트남의 ECEC 재정과 관련하여, Nguyen Thi My Trinh에 의하면, 그간의 큰 발전에도 불구하고 ECEC의 예산은 더 확보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교육예산의 증액 외에도 베트남의 교육예산집행 기구의 구조적 변화가 동반되어야 함을 피력하였다. 현재 베트남의 교육훈련부는 베트남의 교육을 총괄하는 책임부처임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교육예산의 일부만 관리하고 있다. 베트남의 교육훈련부는 베트남 정부 전체예산의 4.8%를 관리하고 있는데, 실제 교육에 쓰이는 베트남 정부의 예산은 정부 전체예산의 20%이다(Nguyen Thi My Trinh & Nguyen Ba Minh, 2018: 9). 즉, 교육에 대한 총괄부처가 교육비 전체예산의 1/4가량만 집행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ECEC 정책컨설팅 시 베트남의 교육재정의 구조에 대해 심층적으로 조사하고, 특수한 재정구조가 ECEC 정책집행에 어떻게 작용할지 고려해야 하겠다. 또한 동시에 교육재정의 전달체계 자체를 ECEC 정책 컨설팅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라) ECEC 주체들 간 협력체계의 구축

구조적 요소에서 마지막으로 강조될 부분은 ECEC 주체들 간 협력 체계의 구축이다. ECEC 주체들 간의 협력과 조정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은 베트남의 육아정책 개발협력과 관련하여, ARNEC이 가장 우선순위에 놓은 과제이기도 하다(ARNEC, 2018: 87). 베트남 국립 교육과학원 유아교육센터의 Nguyen Thi My Trinh 박사 역시 ECEC분야의 발전을 위해서는 주체들 간의 협력이 필수적임을

여러 번 강조하였다. 그녀는 베트남 ECEC분야의 2030년 SDGs의 달성을 위해서는 서비스의 연계를 위한 효과적인 전달체계 구축이 절실히 요구되며, 이는 여러 섹터들 간의 협력과 조정으로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는 세부적으로, ECEC의 공공시설과 민간시설의 연계, 중앙정부의 지역사회 수준에서의 네트워킹 지원, 보건 분야와의 협력 강화 등을 포함한다(Nguyen Thi My Trinh & Nguyen Ba Minh, 2018: 8, 10).

다양한 정책 주체들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많은 노력과 시간을 요하는 작업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연구의 개괄적인 수요분석에 이어 앞으로 현지조사 등을 통해 심화시켜야 하며, 컨설팅의 실행과정에서도 현지의 반응과 요구를 적극 고려하여 조정해야 할 것이다.

2) 질적인 요소

가) 교사의 역량 강화

베트남의 유아원 및 유치원에 근무하는 교원(교사 및 일반직원 포함) 규모는 베트남 영유아의 ECEC 등록률의 증가와 함께 빠르게 커져, 2018년 5월 현재 ECEC 종사자는 532,097명으로 집계된다(Nguyen Thi My Trinh & Nguyen Ba Minh, 2018: 2). 이처럼 확대되는 ECEC에 대해, 베트남 정부는 교사 대 아동비율의 감소, 교원의 노동시간 축소, 교사 급여에 대한 지원 강화 등 ECEC 교사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펴고 있다(Nguyen Thi My Trinh & Nguyen Ba Minh, 2018: 4). 한국사회에서도 ECEC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문제는 끊임없이 거론되어 왔지만, 2018년 하반기에는 근로기준법 개정과 함께 보육교사의 휴게시간 보장이 의무화되는 등 ECEC 종사자들이 처한 근무환경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이 같은 한국사회 ECEC 교원의 근무환경에 대한 변화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베트남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앞으로 더 강해질지 가능성이 있는 사회적 요구에 대비하도록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교사의 역량강화는 ECEC의 지원에서 매우 중요한 질적인 요소로 꼽힌다. 앞서 언급했듯이 베트남의 ECEC 교사자격은 고등학교 수준의 학위와 2년의 훈련과정으로 주어진다.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유아교육의 자격요건을 대학수

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때 한국대학의 유아교육의 커리큘럼과 자격관리 과정을 소개하고 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을 것이다. 베트남 정부는 ECEC의 발전을 위해서는 교사의 전문성 강화 못지않게 표준화 역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Nguyen Thi My Trinh & Nguyen Ba Minh, 2018: 4). 교사의 역량강화지원책이 일부 집단에만 적용되지 않도록 고려해야 할 것이다.

나) 교육시설 및 교육과정에 대한 지원

베트남 정부는 2016년 ECEC의 프로그램 개정을 통해 새로운 교육과정을 발표하였으며, 2017년에는 ‘폭력에 대항하는 안전하고 건강하고 친화적인 교육환경의 조성(safe, healthy, and friendly educational environment against school violence)’이라는 목표 아래, 교육훈련부의 주도로 교육기관들을 지원하고 있다(Nguyen Thi My Trinh & Nguyen Ba Minh, 2018: 4). 이처럼 베트남 정부는 교육시설을 지원하고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는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산업화, 도시화로 빠르게 변화하는 베트남 사회에서는 교육시설과 교육과정에 대한 지원이 집단과 계층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즉, 지역이나 교사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닌지 표준화의 측면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다.

한국은 유아교육 분야에서 앞서가고 있으며, 누리과정과 같은 프로그램을 개발한 노하우를 갖고 있으므로 이를 전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유아교육은 민감도가 큰 영역으로 현지의 환경이나 문화에 큰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김경철, 2018). ECEC의 실제 ‘현장’으로서 교육시설 및 교육과정을 지원할 때는 베트남의 사회경제적 상황과 실제 현장이 위치한 지역적 여건과 현지의 문화를 고려하여 맞춤형 지원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다) 특수한 요구를 가진 영유아에 대한 고려

2017년 베트남 정부가 보고하는 6세 이하 아동은 1천만명 정도이며, 이중에 3백만 명은 빈곤가구의 아동으로 분류된다(Nguyen Thi My Trinh & Nguyen Ba Minh, 2018: 1). 앞서 육아환경 분석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영아사망률이나 5세 미만 유아의 사망률 등 보건지표들을 보면, 베트남 사회에서 부모의 소득이

나 교육수준에 따른 영유아의 건강수준 격차는 매우 큰 편이다(OECD, 2014: 19). 베트남 정부는 2008년 긴급지원제도를 통해 빈곤 및 차상위(poor and near poor)로 분류된 가구의 아동을 위한 건강보험카드를 따로 발급하고 있으며, 2018년 1월부터는 유치원에 다니는 빈곤가구 영유아들에게 무료급식을 지원하는 등 정책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나, 전통적인 국제원조의 대상으로서 빈곤 영유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협력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관련하여, 베트남의 경제발전예 따라 절대빈곤계층은 감소할지 몰라도, 1980년대부터 시작된 베트남의 개혁개방정책이 시장경제의 특성을 갖는 한, 사회적 불평등은 지속되거나 오히려 강화될 수 있다. ARNEC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로서는 베트남의 영유아가 체감하는 불평등도는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높은 편은 아니다(ARNEC, 2018: 84). 그러나 세계적으로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한 사회비용이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베트남 영유아가 처할지 모를 경제적 불평등과 빈곤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빈곤가구 영유아와 더불어, 특수한 욕구를 지닌 영유아로서 소수민족의 영유아에 대한 ECEC의 지원도 고려할 수 있다. 베트남 정부는 2018년 소수민족 아동에 대한 의무교육을 명시하고 공공교육기관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소수민족 아동을 지도할 수 있는 교사수급을 지원하고 있다(Nguyen Thi My Trinh & Nguyen Ba Minh, 2018: 3). ECEC의 개발협력 과정에서 소수민족 아동을 소외키지 않고 이들의 특수한 요구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다. 피지의 육아정책 개발협력 수요 분석

피지의 육아정책 개발협력 수요를 알아보고자 피지의 기관유형별 원장 및 교사, 학부모들, 교원단체의 대표자들, 교육부 공무원들 및 국제기구 관계자들을 면담하여 피지의 유아교육 실행 현황에 대해 알아보고 우선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또한 KICCE 국제세미나 및 워크숍 개최를 통해 피지 교육부의 입장에서 바라본 피지 육아정책 수요와 우선과제에 대해 보다 심층적으로 알아보았다. 면담 자료를 바탕으로 각 집단 및 공통적으로 인식하는 피지 육아정책의 수요를 정리하면 아래의 그림과 같다.

|| 그림 V-1-2 || 피지 ECCE의 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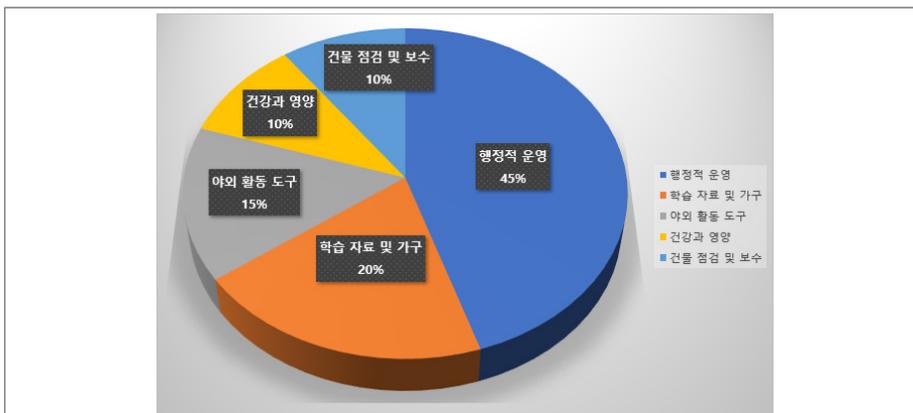
교육부	교사	UNICEF Pacific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사 전문성 개발 인터넷 연결 교육 자료 제공 부모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수매체 기기 및 자료 지원 교사의 임금 인상 교사의 인적자원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타 국가의 지식과 경험의 공유
공통적 수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프라 및 시설 개선 자연 재해에 대한 대책 기록 및 데이터 수집 		

주: 피지 출장(2018. 8. 7. ~ 8. 13) 동안에 진행된 면담 자료들을 바탕으로 재구성함.

1) 구조적 요소

피지 육아정책의 구조적 요인 중에서는 재정(Financing) 중에서도 특히 시설에 대한 재정 투입이 수요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피지의 연간 보조금은 5세 유아에 한해 인당 \$150,00이 정부에 의해 공급되며, 보조금 사용 가이드라인은 45%가 행정적인 운영, 20%가 학습 자료 및 가구, 15%는 야외 활동 도구, 10%가 건강과 영양, 그리고 나머지 10%만이 건물의 점검 및 보수에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and, 2018: 30).

|| 그림 V-1-3 || 피지의 국가보조금 사용 가이드라인



자료: Chand, R. (2018). ECCE Policy Development and Issues in Fiji. 1st KICCE Seminar: Early Childhood Policy Development Cooperation in the Asia-Pacific Region. p.30.

하지만 피지 내 여러 관계자들을 면담한 결과, 공통적으로 건물 등 기관 시설의 확충 및 적절한 복구에 대한 투입을 지적하였다. 특히 현장에서 커리큘럼을 이행하는 교사들의 경우 가장 절실하게 이에 대한 필요를 체감하고 있었다.

커리큘럼 및 교수학습 이행과 부모, 지역사회와의 관계, 교사 복지 등에 관해서는 만족하는 편이지만 무엇보다 공간이 확보되고 시설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많이 느껴요. 다양한 활동을 아이들과 진행하고 싶어도 유아 수에 비해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한계를 많이 느끼거든요. 놀이 시설에도 재정이 더 많이 투입되어서 아이들이 다양한 놀이를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Abhinesh Ram, Head Teacher of Tuva Kindergarten)

또한, 현재 피지 교육부에서 시설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으며, 안전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9개월 내에 기준에 맞게 보수 계획을 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실행하는 데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에게 보다 긍정적인 자극을 주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인식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사실 재정 부족으로 인해 그러한 시설을 제공해주는 것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Raikoso Iwoke, Facility Monitor of MoE)

뿐만 아니라 현재 태평양에 위치한 49개국을 대상으로 유아기 발달(Early Childhood Development)을 위한 다 분야 간 협력을 구축하고 있는 unicef Pacific 관계자 역시 태평양 국가들의 전반적인 가장 큰 수요로 다양한 자연재해에 대한 대책 마련 및 안전을 위한 시설 확보를 지적하였다. 실제로 미혼모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지정된 커뮤니티에서 이들의 자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NGO 단체에 의해 지어진 Lovu Hart Kindergarten은 2018년 3월에 발생한 홍수로 인해 시설이 무너져서 재건 중이었으며, 재원 부족으로 인해 복구 작업이 매우 느린 상태였다. 연구진이 방문한 또 다른 기관인 Lakshimi Narayan Kindergarten(단설유치원) 역시 작년에 화재로 인해 시설을 재건한 상태였으나, 유아들을 위한 놀이 시설은 아직 복구가 덜 되어있는 등 재해에 대한 시설 복구가 시급했다.

|| 그림 V-1-4 || 피지의 Lovu Hart Kindergarten



주: 잦은 홍수에 대비한 Lovu Hart Kindergarten 건물 신축 및 내부 모습

또한 2018년 육아정책연구소 주관으로 개최된 아태지역 육아정책 개발 협력을 위한 세미나(1st KICCE Seminar: Early Childhood Policy Development Cooperation in the Asia-Pacific Region)에서도 피지 교육부는 ECCE 기관들의 시설을 향상하는 것을 앞으로 피지 육아정책의 가장 큰 목표중 하나로 꼽은 만큼 (Chand, 2018: 33) 시설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이 피지의 주된 수요임을 알 수 있다.

2) 질적인 요소

피지 육아정책의 구조적인 요인들을 넘어서 피지 육아정책의 질적 수요를 교사, 커리큘럼, 그리고 부모 및 지역 사회와의 연계의 측면에서 아래와 같이 살펴보았다.

가) 교사 교육

피지 교육부 관계자들은 피지 육아정책의 가장 큰 수요로 교사 전문성 개발을 지목했다(2018. 8월, 연구진과의 면담). 교육부는 현직 교사들에 대해, 이들이 국가 수준의 커리큘럼을 이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역량 강화를 보다 구체적인 교사 요인에 대한 수요로 제시하였다. 또한 교사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는 자격 체계를 향상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국제세미나 발표에서 역시 교육부는 공식적으로 피지 육아정책의 우선 과제로 “교사 자격 체계의 향상”을 꼽았다.

피지의 교사양성과정을 제공하는 주요 기관은 Australia-Pacific Technical College(APTC), The University of the South Pacific(USP), Fiji National University(FNU)가 있다. APTC는 호주의 프로그램을 그대로 피지에 맞게 가져와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되어 있다. USP에서는 유아교사 양성교육에서 12개 과정을 이수하고 B.A. 학위과정도 제공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FNU는 360학점(3년)을 이수하면 학사학위를 이수할 수 있고, 그 외에도 다양한 자격 취득 프로그램 및 박사과정도 제공하고 있다. 유아교육 트레이너들과의 간담회에서 이들은 교사 자격 체계의 향상이 필요함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자격을 갖춘 교사 양성 이후 교사 배치 및 처우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리고 교사 배치 이후에도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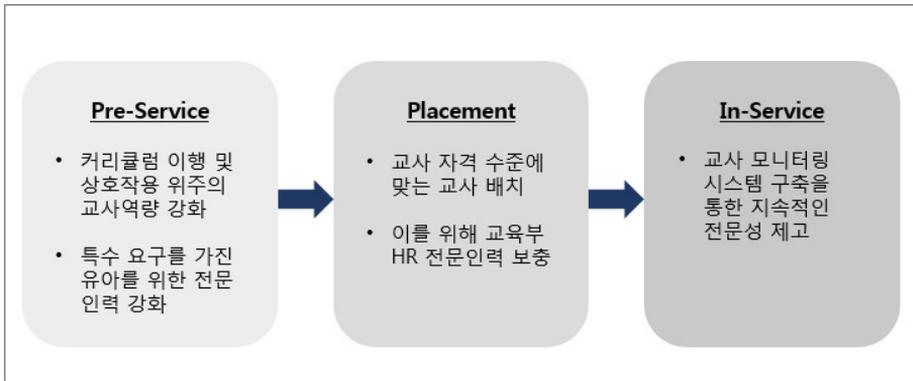
많은 학생들이 높은 수준의 교육과정을 밟는다고 해도, 졸업 후에 본인의 자격 수준에 맞는 기관에 고용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사들이 보다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 전문성을 쌓는 것에 대해 동기부여가 되려면 이들의 자격 수준에 맞는 교사 배치 및 처우 개선이 꼭 필요합니다. (USP & FNU Trainers)

교사 배치에 난항을 겪는 데에는 교육부의 인적 자원 관리를 위한 인력 부족에도 어느 정도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적 자원을 관리하는 공무원들은 정년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전문성이 쌓일만하면 또 다른 인력으로 금방 대체되어야 하는 구조입니다. 이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고 또한 교사 배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들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도 시급한 상황입니다. (Raini Narayon, MoE)

현직 교사들과의 면담을 통해 교사 진입 이후 전문성 개발의 방법들에 대해 물어본 결과, 관할 구역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Rambisessar Preschool과 Lakshimi Narayan Kindergarten 해당 구역의 경우, 한 달에 한 번씩 해당 구역의 70여개 학교 교사들이 모여서 그 달의 주요 이슈들에 대해 논의하고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시간을 통해 전문성을 개발한다고 이야기했다. 뿐만 아니라 일 년에 한 번씩 preschool week가 개최되어, 유아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알릴뿐만 아니라 정보를 교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상층을 위한 사립 보육시설 및 유치원인 Lil Champs Preschool and Kindergarten의 경우, 교사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APTC에서 강사들을 초빙하여 강의를 제공하거나, 교사들이 수강하고자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으면 재정적으로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지원되는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면담 및 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교사 요인에 대한 수요를 pre-service, placement, 그리고 in-service로 구분한 도식은 다음과 같다.

■ 그림 V-1-5 ■ 피지의 교사 전문성 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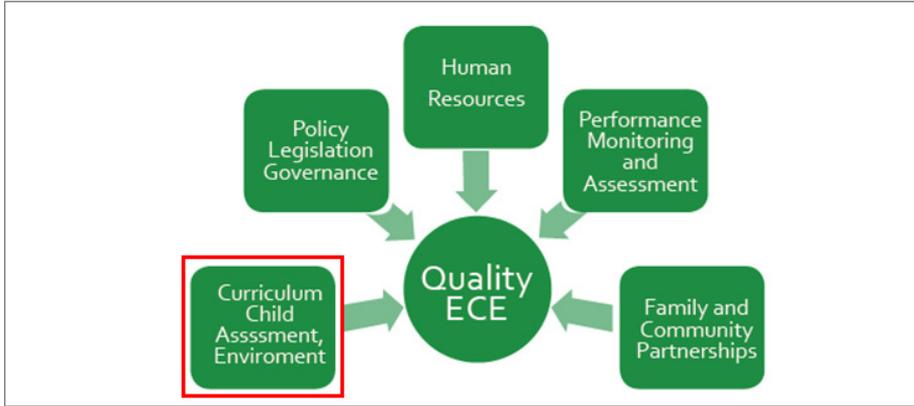
즉, 교사 훈련 과정부터 시작하여 모든 단계에 걸쳐서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인 방안들에 대한 수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컨설팅 및 개발 협력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다.

나) 교육과정

피지를 포함한 태평양 국가들의 ECCE의 국가적 질 프레임워크 개발을 위한 가이드라인(Pacific Guidelines for the Development of National Quality Frameworks for ECCE: Programming for Ages Three to Five)에서 ECCE를 위한 태평양 지역 위원회(Pacific Regional Council for Early Childhood Care and Education)은 국가적 질의 주요 요소를 “정책, 법, 거버넌스,” “인적 자원,” “모니터링 및 평가,” “가족 및 지역 사회와의 파트너십” 그리고 “커리큘럼, 아동 평가 및 환경”으로 정의하였다.



|| 그림 V-1-6 || 태평양 국가들의 ECE 질 구성 요소



자료: unicef (2014). Pacific Guidelines for the Development of National Quality Frameworks for ECCE: Programming for Ages Three to Five. p. 5.

본 가이드라인은 피지, 나우루, 쿡 제도와 같은 나라들의 여러 다른 사회적 집단들이 ECCE를 국가적으로 합의된 방법이나 커리큘럼 없이 다양하게 이행해온 것을 문제로 제시했다(unicef, 2014: 21). 피지는 국가적 커리큘럼을 개발하는 것에 저항해왔는데, 그 이유는 유아들을 위한 커리큘럼을 통해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유아 발달에 한계를 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겼기 때문이다(unicef, 2014: 7). 하지만 질 모니터링 및 측정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함으로써 국가 전체적인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음에 동의했고, 그 결과 “Na Noda Mataniciva”라는 종합적인 커리큘럼과 학습 자료를 개발하고 피지의 주요 3개 언어로 번역하여 실행하고 있다(Chand, 2018: 31; unicef, 2014: 21).

개발된 Na Noda Mataniciva 커리큘럼은 교육부에 의해 다시 검토되고 있는데, 교육부 관계자들은 현재 교사들이 국가 수준의 커리큘럼을 이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커리큘럼을 보다 교사들이 이해하기 쉬운 수준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2018. 8월, 연구진과의 면담). ECCE 교사교육자들은 교사들이 국가수준 커리큘럼을 있는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가르치는 유아들에 맞춰 독창적으로 국가 수준의 커리큘럼을 차별화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2018. 8월, 연구진과의 면담). 이러한 수요를 반영하여 국가 수준 커리큘럼의 개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다.

다) 부모 및 지역 사회와의 연계

UNICEF Pacific 관계자에 의하면, 개발협력 사업을 진행할 때 선정국의 가치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그 중에서도 피지와 같은 태평양지역 국가들의 특징은 가족, 공동체, 관계와 같은 가치들을 매우 중요시하고 그 연대가 매우 강하다(2018. 8월, 면담). 이는 피지의 ECCE 관계자 집단들을 면담했을 때, 부모 및 지역 사회와의 협력 및 연계가 피지에서는 손쉽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Tuva Kindergarten의 학부모들은 하원 시간에 주기적으로 만나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어떤 가정 및 어떤 아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지 자주 토론합니다. 교사와는 1년에 3번 개최되는 교사-부모 협의회 외에도 주기적으로 만나서 유아에 대한 조언을 듣고 가정에서 그 조언을 반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치원의 환경미화 활동이나 각종 행사들이 있을 때마다 학부모들은 모두 적극 지원합니다. (Wata Marama, Tuva Kindergarten parent)

피지 교육부는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로 매년 마다 개최되는 ECCE Week를 들었으며, 이 한 주 동안 ECCE 관계자들이 모여서 정보를 공유할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에 관련 주제에 대한 행사를 통해 ECCE에 대한 의식을 높이고 ECCE의 중요성에 대해 알리는 기회로 삼고 있다(Chand, 2018:31). 또한 unicef Pacific 과 함께 피지 교육부는 가정과 지역 사회에 유아기 발달을 돕는 가치, 환경, 문화를 알릴 수 있는 만화를 제작하고 있으며, 곧 방송될 예정이다. 이와 같이 여러 피지 교육부는 피지의 공동체성을 적극 활용하여 다양한 집단들 간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공통적 육아정책 개발협력 수요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피지 3개국의 공통적인 육아정책 개발협력 수요를 구조적 요소 및 질적 요소로 구분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구조적 요소

첫째, 여전히 유아교육과 보육에 대한 정부의 공적 투자 확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재정 확보 방안이 요구된다.

지속적인 공적 재원의 투자는 유아기 서비스의 양적 확대와 질적 향상에 필수적이다. 유아교육과 보육에 대한 공적 재원투자에 대한 국제적인 권고 수준은 최소한 해당국가 GDP의 1% 수준이며, 교육에 투자는 공적 재원의 10% 수준이다 (Bennett, 2008; 문무경, 2018).

2013년~2016년을 기준으로, 3-5세 대상 유아교육에 대한 아태지역 국가들의 GDP 대비 재원투자는 몽골(1.09%)에 이어서, 베트남(0.89%)은 두 번째로 높다. 베트남은 최근 전체 교육 재정의 10% 이상을 유아교육에 투자하고 있다(문무경, 2018). 우즈베키스탄과 피지의 경우에도 재정투자를 증대하고 있으나, 여전히 절대적으로 재정이 부족한 실정이다. 우즈베키스탄과 피지 모두 사립의 비중은 현저히 낮으며 대부분 공립시설이어 시설이 매우 부족하다.

둘째, 전반적인 시설설비 기준 및 규정을 마련하고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제반 인프라 구축에는 최소한의 재원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또한 최소 필수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질적 준거를 제공하는 것, 또한 정부의 주요한 역할이자 책무라고 볼 수 있다.

나. 질적 요소

첫째, 교사 양성교육 및 현직 연수를 통한 전문성 신장을 최우선시할 필요가 있다. 현재 3개국 모두 유아교사의 자격기준이 낮은 편이며, 교사 수급은 물론, 교사의 전문적 역량이 미흡함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유아교육의 기회 제공은 물론 질적 향상을 위해 필수적이다.

둘째, 서비스 질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우즈베키스탄과 베트남의 경우, 초등교육의 질 관리체제를 일부 이용하나 유아교육기관의 특성이 반영되어 있지 않고 질 관리 담당자의 전문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이며, 피지의 경우는 질 관리 시스템이 부재한 실정이다. 각 부처 공무원의 수요조사 면담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질 모니터링을 위한 평가지표 개발 및 관련 연수, 시스템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운영 등이 시급하다.

셋째, 자료수집, 분석 및 활용 강화이다.

SDG 4.2 이행 모니터링은 이용 가능한 기존 자료뿐만 아니라 글로벌 성과지표에 따른 새로운 자료 수집을 요구한다. 아태지역의 많은 국가에서 유아교육과 보육 분야의 자료는 단일한 주체와 방식이 아닌, 여러 부처와 분야에 걸쳐 산재해 있으므로 보다 체계적인 자료 수집을 위한 협력이 필요하다. 일부 국가에서는 다 부문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자료수집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베트남에서는 데이터 관련 주요 이슈를 규명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반면, 우즈베키스탄, 피지는 이러한 자료 수집 시스템이 부재한 실정이다.

상당수의 국가에서는 매년 관련 자료 수집이 가능할지라도, 수집된 자료를 정책수립과 집행에 활용하기 위한 자료 분석 기술이 결여되어 전문적인 외부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SDG 4.2 이행 모니터링을 위하여 아태지역 국가들 간의 협력이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다(문무경, 2018).

넷째, 국가수준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현장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증진할 필요가 있다. 우즈베키스탄과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이므로 국가수준 교육과정이 개별유아의 요구와 단위기관의 여건을 반영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운영되며, 국가수준 유아교육과정에는 유아중심, 놀이를 중시함을 명시하고 있으나 현지 관찰 및 면담을 통하여 실제 현장에서는 상당히 읽고, 쓰고, 셈하기의 3R에 치중함을 알 수 있었다. 피지 역시 국가수준에서 동일한 교수학습자료(예: 알파벳, 셈하기 차트)를 일괄 배포함으로써 정부 의도와는 달리 단위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 전개과정의 중요성이 간과되는 경향이 있었다. 3개국 모두 국가수준 유아교육과정 운영의 지역화, 다양화를 위한 정부의 교육과정 정책 및 단위기관장의 교육과정 리더십 강화가 필요함을 지적하였으며, 이는 질 제고를 위한 우선순위 수요이다.

VI

아태지역 육아정책 개발협력 컨설팅 모델 개발

1. 육아정책 컨설팅 모델 개발 방향
2. 육아정책 개발협력 컨설팅 모델(안)
3. 향후 육아정책 개발협력을 위한 제언



VI. 아태지역 육아정책 개발협력 컨설팅 모델 개발

1 육아정책 컨설팅 모델 개발 방향

세계은행(World Bank, 1996)에 의하면, 개발협력 컨설팅은 1) 정책연구 수행 및 자문, 2) 프로젝트의 준비와 이행을 위한 전문적 지원, 3) 인적, 경제적, 기술적, 분석적, 관리적, 제도적 역량을 개선하기 위한 기술을 제공함으로써 관련 기술수준을 향상시키는 한편, 이행능력을 강화하고 더 나아가 제도를 강화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정의되고 있다(홍문숙, 2013: 43, 재인용).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육아정책 컨설팅 모델 개발의 기본적인 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본 개발협력 컨설팅은 협력대상인 선정국의 육아정책 시스템 구축과 정책 수립 및 실행을 지원한다. 이는 ‘정책 컨설팅’이라는 개발협력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으로, 시스템 또는 매커니즘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의 개발협력은 단발적인 지원만을 하는 경향이 다분하기 때문이다. 유치원 또는 보육시설 등을 설립하거나 교사교육을 직접 실시하기 보다는 좀 더 장기적인 안목에서 개발 협력을 설계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개발협력 컨설팅의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증진한다.

이는 기본적으로 육아정책 컨설팅 ‘원조 기관이 외부 전문기관과의 협력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에 대한 내부 역할 정립과 더불어, 외부 전문성과의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한 파트너십 형성에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홍문숙, 2013). 컨설팅 주체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적인 과정을 통해 상호 역할을 정립하고 컨설팅에 대한 기대 목표를 설정하여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개발협력 컨설팅의 경우, 효과적인 관계 설정과 합리적인 목표 설정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협력 유형에 따른 다양한 협력 방식을 인식하고 외부 전문성을 활용하여 개발협력사업의 단계별, 유형별 목표 설정 과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구체적 목표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홍문숙, 2013).

셋째, 정책 개발협력 컨설팅은 우리나라의 우수 정책사례 공유와 확산은 물론, 컨설팅하는 국가의 육아정책 정보와 사례 수집을 동시에 추진한다. 현재 대부분의 개발협력 컨설팅은 자국의 비교우위에 있는 사례의 적용과 응용, 벤치마킹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으므로,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선정국의 육아정책에 대한 제반 정보를 축적함으로써 컨설팅의 정교화 및 지속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개발협력 컨설팅을 심화 확대하는 방안은 국가별로 그 특성을 고려하여 차별적으로 논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2 육아정책 개발협력 컨설팅 모델(안)

본 연구에서는 Eion Young과 Lisa Quinn(2002)의 정책 사이클(Policy Cycle: Problem definition-Construing policy alternatives/policy formulation-Choice of solution-Policy design-Policy implementation and monitoring-Evaluation) 및 일반적 모형으로 활용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Milan(1997)의 컨설팅 모델(착수-진단-실행계획수립-구현-종료의 5단계)을 참고하여 다음과 같은 개발협력 컨설팅의 일반적인 모델(안)을 개발하였다.

■ 1단계: 육아정책 개발협력을 위한 진단 및 우선순위 선정

이 단계에서는 대상국이 직면한 육아정책 현안에 대한 철저한 정보 수집 및 주요관계자 대상의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육아정책 현안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반드시 정확한 사실과 정보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또한 수요조사에 기초하여 개발협력의 우선순위를 파악하고 대상국 정부에 수요조사 결과 공유 및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우선순위를 최종 확정한다.

특히, 개발협력 수요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중요도-실행도 분석법(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IPA)을 활용하도록 한다. IPA는 Martilla와

James(1977)가 제시한 분석방법으로,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의사결정 및 우선순위를 매기는 효과적인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 2단계: 육아정책 개발협력 세부 실태조사 및 실행과제 도출

일반적이고 원론적인 개발협력 내용의 전달식 컨설팅이 되지 않고 대상국의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하여 우선순위 사안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실태조사(예: 유아교사 양성교육기관의 질 관리, 교사수급의 지역 격차 등)를 실시하여 구체적인 실행과제를 도출한다. 즉, 우선순위 수요 해결을 위한 대안을 구체화한다.

■ 3단계: 육아정책 개발협력 전략 선정 및 실행계획 수립

개발협력의 실행과제 이행을 위한 다양한 전략을 발굴하고 각 전략의 장점과 제한점 등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가장 실효성이 높고 선호하는 전략을 선정한다. 실행과제에 따라 선정된 전략을 추진하는 절차와 소요 예산 및 인력, 추진 기간 등에 대한 전반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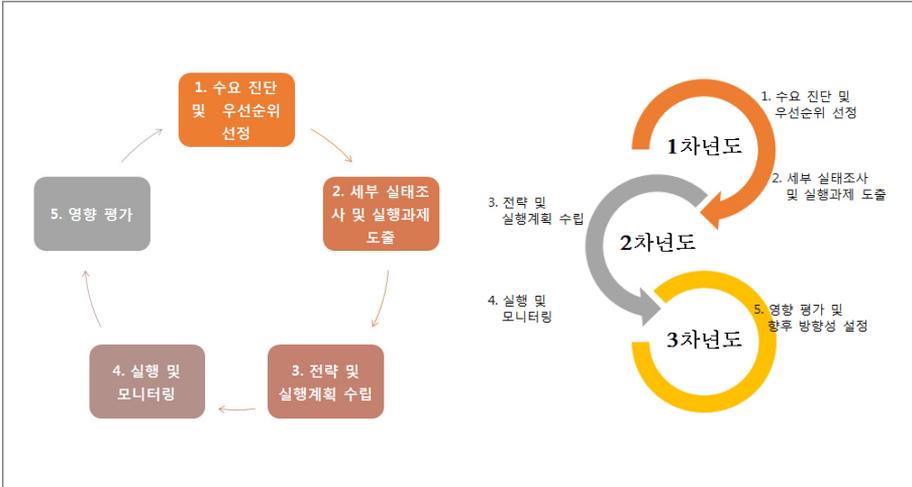
■ 4단계: 육아정책 개발협력 실행 및 모니터링

수립된 실행계획에 따라 변화를 유도하는 이행 과정으로 각종 실행 지원, 교육·훈련실시 등을 실시한다. 동시에 전반적인 실행과정의 추진 및 실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애로사항, 개선점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환류를 통하여 개발협력의 과정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 5단계: 육아정책 개발협력 영향 평가

컨설팅의 완료결과를 보고하고 성과 및 영향을 평가한다. 영향평가는 무엇보다도 개발협력 컨설팅 대상국 우선순위 육아정책 수립과 실행에 미친 실질적인 영향과 성과에 대한 다면적인 평가를 실시한다. 또한 컨설팅 제공기관(또는 제공자)의 개발협력 노하우 축적에 미친 영향, 개발협력 네트워크 확대 및 참여 활성화 정도 등에 대하여 평가한다.

그림 VI-2-1 육아정책 개발협력 컨설팅 단계 및 연차별 추진단계



이상의 컨설팅 단계는 크게 준비, 실행, 평가 및 확장의 3단계로 구분될 수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을 그림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VI-2-2 육아정책 개발협력 컨설팅의 3단계 및 주요 내용

컨설팅 단계	주요 내용	
1. 준비 단계	수요 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정국 육아정책 현안에 대한 정보 수집 • 주요관계자 대상의 수요조사 실시
	실행과제 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협력의 우선과제 파악 • 선정국 우선과제를 기반으로 컨설팅 모델 개발
2. 실행 단계	전략 및 실행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컨설팅 전략 선정 • 세부 일정 및 실행계획 수립
	실행 및 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컨설팅 실행 • 모니터링 실행
3. 평가 및 확장 단계	영향 평가 실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컨설팅 결과 보고 • 성과 및 영향 평가 실행
	향후 확장 방향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대상으로 컨설팅 홍보 및 확산 • 국제적으로 사업 확산(아태 국가)

이상에서는 육아정책 개발협력 컨설팅의 일반적인 모델을 제시하였으며, 개발협력 컨설팅의 영역은 크게 다음과 같이 5가지 우선적인 영역을 포함하도록 한

다. 이는 서론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2018년도 6월 5~6일 개최된 제 3차 아태지역 육아정책 포럼(the Third Asia-Pacific Regional Policy Forum on Early Childhood Care and education)에서 발표된 카트만두 Action Plan (UNESCO Bangkok, 2018, 인출일: 2018. 11. 20.)에서 아태지역 국가의 SDG4.2 달성을 위해 우선적인 5가지 정책 영역으로 설정되었기 때문이다. 이 5가지 영역은 아래 그림[VI-2-1]과 같이 1) 재정투자 확대(Financing), 2) 다부문 간의 조정과 협력(Sector Planning), 3) 접근성을 보장하는 기회형평성(Equity), 4) 질적 제고(Quality), 5) SDG4.2 이행 모니터링(Monitoring SDG4.2)이다.

■ 그림 VI-2-3 ■ 아태지역 국가의 SDG4.2 달성을 위한 5가지 정책영역



위 Action Plan에서는 특히 아동의 전체론적인 발달을 위해 ECCE 부문의 다분야적 접근(multisectoral approach)이 필요함이 특히 강조되었으며, 또한 대표단은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유아 부문(SDG4.2)의 지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측정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였다. 이를 위해 상기 언급한 5가지 정책영역 우선과제 실행을 위해 도출된 세부 목표를 정리하면 아래 표<VI-2-1>와 같다.

표 VI-2-1 | SDG4.2 달성을 위한 아태지역 우선 정책영역 세부 목표

영역	세부 목표
재정투자 확대 (Financing)	국제 벤치마크를 기준으로(GDP의 1% 및/또는 적어도 전체 교육 예산의 10%) ECCE에 재정 투자 취약계층 아동(저소득층 및/또는 농어촌 지역, 장애 아동)을 위한 재정 투자 ECCE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혁신적인 재정정책 및 메커니즘 ECCE 지원 및 강화를 위한 국제 원조, 개발파트너들, 민간 및 공공 부문과의 협력 투명한 예산 책정을 보장하는 효과적인 감리감독 체계
다부문간의 조정과 협력 (Sector Planning)	국가 수준의 ECCE 발전계획 및 다분야간 협력 메커니즘 각 부처 및 실행 기관의 명확한 역할과 책임감을 지정해주는 거버넌스 및 책무성 메커니즘(accountability mechanism) 입법 조치로 뒷받침되는 분명한 모니터링 및 평가 프레임워크 초등교육과의 연계를 위해 유아교육을 교육 부문 계획(Education Sector Plan: ESP)에 포함 취약 계층 아동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포괄적, 반응적, 유연한 ECCE 체계
접근성을 보장하는 기회형평성 (Equity)	최소 1년, 이상적으로는 2년 이상 높은 수준의 유아교육을 무상으로 제공 소외 및 취약 계층의 아동을 위한 집중 인터벤션의 실행 부모와 지역 사회를 포함한 모든 ECCE 관계자들의 참여
질적 제고 (Quality)	높은 수준의 교사에 의해 제공되는 적어도 1년, 이상적으로는 2년의 무상 유아 교육 서비스 ECCE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명확한 정책, 전략, 국가 표준, 실행 계획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양질의 교사 연수 및 반응적인 기술 지원 문화적, 언어학적으로 적절하며 젠더에 민감한 접근법의 발전 초등교육과의 연계를 위한 초등 부문과의 협력
SDG4.2 이행 모니터링 (Monitoring SDG4.2)	포괄적인 국가 수준의 모니터링 및 평가 체계 교육경영정보시스템(Education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EMIS), 건강관리정보시스템(Health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HMIS), 그리고 다른 ECCE 관련 데이터 시스템의 강화 SDG4.2 지표 모니터링을 위한 모든 이해 관계자들 간의 다분야적 접근 데이터 품질 및 세분화 수준의 향상 데이터 수집, 분석 및 사용을 위한 교육, 유아교육 및 사회 부문 역할의 강화

자료: UNESCO Bangkok(2018). Kathmandu Statement of Action - Putrajaya+2: Advancing and Monitoring SDG4.2.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265738>. 인출일: 2018. 11. 20.

3 향후 육아정책 개발협력을 위한 제언

가. 전반적인 고려사항

아태지역 국가들은 최근 공통적으로 국가수준에서 종합적인 유아교육과 보육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유아기 서비스의 접근성 확대 및 유아교원의 전문성 신장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선정된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피지에서는 여타의 정책과제들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일부 현안 과제를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수립되어 있다.

향후 육아정책 개발협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고려가 필요하다.

먼저,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피지의 사회와 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이를 위하여 각종 통계 및 정확한 자료 수집과 축적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개발협력 연구와 사업이 단년도 또는 3년 정도의 단기간에 수행되므로 정책컨설팅의 특수성(즉, 문제 진단, 수요조사, 실행가능성 조사 등의 절차와 단계로 전개)을 고려하여 보다 중장기적인 프로젝트로 추진되어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선정국의 육아정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육아정책 개발협력 컨설팅에 대한 선정국의 기대치에 대한 명확한 의사소통이 필요하다. 본 개발협력 연구가 실질적인 사업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며, 추진 시기와 내용 등에 대한 매우 정교한 디자인이 요구된다. 특히, 영어가 가능한 우즈베키스탄 및 피지에 비하여, 베트남의 경우, 부처 담당공무원과 전문가들과의 의사소통이 상당히 제한적이므로 국제기구 관계자 및 국내 통역인 활용 등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민간단체의 개발협력과 달리, 선정국의 부처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정책개발협력 컨설팅이므로 지속성과 파급효과를 위해서 컨설팅의 우선순위와 범위 등에 대하여 긴밀한 협의가 필수적이다.

셋째, 본 연구의 정책컨설팅 추진과정에 국내외 유관기관 및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킹 및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1차년도에는 국내 유관기관에 본 연구를 알리고 육아정책 분야의 개발협력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 증진의 효과는 있었으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협력이 이루어지지 못한 아쉬운 점

이 있다. 본 육아정책 개발협력 컨설팅 모델의 방향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육아정책 개발협력의 실효성과 효과를 증진하기 위해서 전문가 네트워킹과 참여는 필수 조건이라 할 수 있다.

나. 대정부 제안 사항

첫째, 육아정책분야를 포함한 교육 분야 개발협력 성과 산출 및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 분야 개발협력 원칙에 대한 정부부처의 합의가 필요하다.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이 있으나 교육 분야 개발협력의 주요 주관부처인 교육부, KOICA, EDCF간 교육 분야 개발협력의 목표와 전략이 상이하여 유무상 및 부처 간 협력이 다른 분야에 비해 부족하다. 특히, 경제학적 시각 및 담론보다는 개발도상국의 교육 자체에 대한 개발협력을 보다 강조하여, 교육 분야 개발협력의 관점에서 지원대상국 선정 기준과 내용을 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보다 거시적이고 중장기적 차원에서 우리 정부의 교육개발협력 마스터플랜이 수립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어떤 국가를 대상으로 무엇을 주력하여 교육개발협력을 실시할지 일관된 방향성이 필요하다. 기존의 다양한 교육개발협력 사업은 수행기관 또는 담당자의 판단 하에 중요성,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짐으로써 파편적이며 일시적인 경향이 다분하다. 이를 위해서는 특히, 다양한 연구 사업을 종합하고 관리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도 체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요구된다.

셋째, 육아정책 분야 개발협력에서도 국제수준에서 발표된 주제별 세부 성과지표에 대한 사전 분석을 보다 철저히 하여 찾아가는 개발협력을 활성화하도록 한다. 실제 개발협력의 전략구성은 해당 수원국의 요구분석 및 실제 시행가능성 분석을 함께 하여 그 가능성 기반의 개발협력 전략 구성을 진행하는 것이 모두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개발협력의 지향점이기 때문이다.

넷째, 일회적 사업위주가 아닌 일상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사업 추진 및 공동연구 등 우리나라의 장점을 전수해줄 수 있는 다양한 사업 형태 발굴이 요구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국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네트워크가 잘 구축되어 있으나, 개도국의 경우 그렇지 못하고 산발적인 경우가 많다. 특히, 우리나라 육아정책의 시스템과 제도 관련 경험을 대상국들과 공유하고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것이야말로 육아정책 개발협력의 핵심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구심점 역할을 하는 대상국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교육과정개발, 지속가능체제구축 등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육아정책 개발협력 분야의 전문가 양성이 필수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개발협력 연구와 사업이 초중고등교육 영역 위주이므로 육아정책 부문의 개발협력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문적 인력이 필요하다. 또한 현지에서 연구 및 사업 수행이 가능한 인력을 확보하여 지원하는 방식을 동시에 고려해 볼 수 있다.

여섯째, 전문성 강화를 위해 육아 관련 전문 국제기구, 국제기관들과의 협업이 필수적이다. 국제기구들의 경험과 노하우가 육아정책 개발협력 사업 수행의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일곱째, 성과 평가는 KOICA나 EDCF 사업 과정상의 일환인 종료평가 방식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고유한 특수성을 반영한 성과평가 모델이 개발되고 적용되어야 하나, 일부 연구들이 있음에도 실제 사업에는 적용되지 못하고 있어, 유관부처가 협력하여 특히 성과평가 모델 개발 연구 및 우수사례 및 관련 연구를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이 정례화되어야 한다.

오늘날 많은 국가들이 국제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국가 간의 협력을 수행하고 있다. 이는 자국의 발전만으로는 세계평화와 번영에 이바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구나 교육과 국가의 발전이 더 이상 개별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는 초국가적인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교육부(2017). 제4주기 유치원 평가 중앙 연수 자료집.
- 김경철(2017). 동티모르 유아교육 개발협력 수요조사. 한국교원대학교.
- 김경철(2018). 아태지역 육아정책 개발협력을 위한 토론. 미발간원고. (1st KICCE Seminar Early Childhood Policy Development Cooperation in the Asia-Pacific Region 토론문)
- 김철희·이영현·조경원(2012). 직업훈련 분야 ODA 통합 추진전략 연구: 직업훈련 ODA 콘텐츠 적용을 통한 원조효과성 제고. KOICA.
- 나정·장명림·최수향(1998). 몽골과 베트남의 유아교육 발전 방안 연구: 사립유치원 운영 확대 정책을 중심으로. 한국교육개발원.
- 문무경(2018). 아태지역국가들의 육아정책 동향: 푸트라자야 선언문 실행과제 이행 현황을 중심으로. 육아정책포럼 제57호. 육아정책연구소.
- 문무경(2017). 영유아부문 지속가능발전목표의 국내 이행현황 및 과제. 교육 2030 지속가능발전 포럼 자료집,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 문무경, 채승아(2013). 아태지역 장차관급 육아정책 포럼.
- 문무경·Mami Umayahara·박상신(2017). 아태지역 육아정책 모니터링 연구(I): 푸트라자야 선언문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 문무경·박원순·임준범(2015). 국제비교를 위한 유아발달평가 기초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안해정 외(2017).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달성을 위한 교육개발협력연구(I): 기초교육 실천 전략. 한국교육개발원.
- 안해정·서예원·윤종혁·김은영·임후남·박환보·최동주·김명진·이정화(2016). 2030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실천 방안 연구: 교육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교육개발원.
- 윤종혁·장혜승·허주·김진희·김새봄·유성상·김재욱·김진하·명보경(2012). 한국의 교육ODA 실천전략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이승진(2016). 교육분야 국제개발협력 전문가 역량모형 개발(부산대학교 대학원

- 박사학위논문).
- 이희경(2018). 우즈베키스탄의 유아교육 현황. 발표자료(미간행).
- 이희수(2017). 기조강연: 한국교육과 SDG3-교육2030. 교육2030 지속가능발전 포럼 자료집,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 임부영(2009). 유아교육분야에서의 ODA 활성화 방안 연구: 미얀마와의 협력을 중심으로(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채지은·우명숙(2013). 베트남의 교육분야 개발협력 방안: 직업교육훈련을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시장경제연구원 정책보고서.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2016). 우즈베키스탄 국가개황 및 보건의료 ODA 현황. https://www.data.go.kr/dataset/fileDownload.do?atchFileId=FILE_000000001302915&fileDetailSn=1 인출일: 2018. 10. 9.
- 한국수출입은행(2012). 개도국 민관협력(PPP) 사업의 이해. ECD Issue Paper. 1(1), <https://forniwg.tistory.com/387> 인출일: 2018. 11. 12.
- 홍문숙(2013). 공적개발원조 개발협력 컨설팅의 역할과 과제. *국제개발협력, 2013(2)*, 38-51.
- Albright, A., Mundy, K., & Beardmore, S.(2016). The Global Partnership for Education 2016-2020: enhancing early childhood care and education. *Early Childhood Matters*, 22-25.
- ARNEC(2016). ECD in the SDGs: A Briefing Note. http://www.itacec.org/ece/document/learning_resources/2017/ECD-in-the-SDGs-20Mar2016_final-002.pdf. 인출일: 2018. 4. 19.
- ARNEC(2018). Mapping and review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in Asia. *1st KICCE Seminar Early Childhood Policy Development Cooperation in the Asia-Pacific Region 자료집*. (미발간 원고)
- Bennett, J.(2008). Benchmarks for Early Childhood Services in OECD Countries. Innocenti Working Paper 2008-02. Florence: UNICEF Innocenti Research Centre.
- Chand, R.(2018). ECCE Policy Development and Issues in Fiji. *1st KICCE Seminar Early Childhood Policy Development Cooperation in the Asia-Pacific Region 자료집*. (미발간 원고)

- Fiji Education Commission(2000). Fiji Island Education Commission Report 2000.
- Kim, V.(2018). ECEC Policy Development and Issues in Uzbekistan. *1st KICCE Seminar Early Childhood Policy Development Cooperation in the Asia-Pacific Region* 자료집. (미발간 원고)
- Manning, R.(2009). Using Indicators to Encourage Development: Learning Lessons from the MDGs. Copenhagen, Danish Institute for International Studies.
- Martilla, J. A., & James, J. C.(1977).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The Journal of Marketing*, 41(1), 77-79.
- Milan, K. (1997). *Management Consulting*(3rd Eds.). ILO.
- Ministry of Education and Training(2015). Education for All 2015 National Review Report: Viet Nam.
- Ministry of Education, National Heritage, Culture & Art(2015). *Education for All 2015 National Review Report: Fiji*.
- Mushtaq, S.(2015). Contemporary Educational System in Uzbekistan.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Science and Humanities Research*, 3(1), 127-136.
- Nguyen Thi My Trinh & Nguyen Ba Minh(2018). Early Childhood Education Development Policies- Situation and Recommendation. *1st KICCE Seminar Early Childhood Policy Development Cooperation in the Asia-Pacific Region* 자료집. (미발간 원고)
- OECD (2014). Health at a Glance: Asia/Pacific 2014 : Measuring Progress towards Universal Health Coverage.
- OECD(2016). Health at a Glance: Asia/Pacific 2016 : Measuring Progress towards Universal Health Coverage.
- Rao, N., Sun, J., Ng, M., Becher, Y., Lee, D., Ip, P., & Bacon-Shone, J. (2015). Report on Technical Support for the Validation, Finalization and Adoption of the East Asia-Pacific Early Child Development Scales(EAP-ECDS), unicef.

- Tan, R. G. H.(2016). THF Literature Reivew: Early Childhood Care and Education in Five Asian Countries. The HEAD foundation.
- UNDP(2014).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14. <http://www.undp.org/content/dam/undp/library/MDG/english/UNDP%20MDG%20Report%202014%20EN%20Final.pdf>. 인출일: 2018. 4. 23.
- UNESCO(2002). EFA Global Monitoring Report 2002, Education for All: Is the world on track?
- unicef(2014). Pacific Guidelines for the Development of National Quality Frameworks for ECCE: Programming for Ages Three to Five.
-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2017). 2017 Status Report on Early Childhood Care and Education in Pacific Island Countries.
- United Nations(2008).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http://www.un.org/millenniumgoals/2008highlevel/pdf/newsroom/mdg%20reports/MDG_Report_2008_ENGLISH.pdf. 인출일: 2018. 4. 19.
- World Bank(1996). *Lessons & Practices OPERATIONS EVALUATION DEPARTMENT Technical Assistance*.
- World Bank(2013). Republic of Uzbekistan, Improving Early Childhood Care and Education. Report No. 71930-UZ.
- World Health Organization(2014). Global Nutrition Targets 2025: Breastfeeding Policy Brief.
- World Health Organization(2015). Uzbekistan: WHO statistical profile. <https://www.who.int/gho/countries/uzb.pdf?ua=1>. 인출일: 2018. 10. 15.
- Young, E., & Quinn, L. (2002). Writing Effective Public Policy Papers: A Guide to Policy Advisors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 Budapest.

〈인터넷 자료〉

외교부. 국가검색 국가정보(우즈베키스탄공화국)

[http://www.mofa.go.kr/www/nation/m_3458/view.do?seq=116&titleNm=%EA%B5%AD%EA%B0%80%EC%A0%95%EB%B3%B4\(%EC%9A%B0%EC%A6%88%EB%B2%A0%ED%82%A4%EC%8A%A4%ED%83%84%EA%B3%B5%ED%99%94%EA%B5%AD\)](http://www.mofa.go.kr/www/nation/m_3458/view.do?seq=116&titleNm=%EA%B5%AD%EA%B0%80%EC%A0%95%EB%B3%B4(%EC%9A%B0%EC%A6%88%EB%B2%A0%ED%82%A4%EC%8A%A4%ED%83%84%EA%B3%B5%ED%99%94%EA%B5%AD)), 검색일: 2018. 4. 18.

외교부. 국가검색 국가정보(피지공화국),

[http://www.mofa.go.kr/www/nation/m_3458/view.do?seq=39&titleNm=%EA%B5%AD%EA%B0%80%EC%A0%95%EB%B3%B4\(%ED%94%BC%EC%A7%80%EA%B3%B5%ED%99%94%EA%B5%AD\)](http://www.mofa.go.kr/www/nation/m_3458/view.do?seq=39&titleNm=%EA%B5%AD%EA%B0%80%EC%A0%95%EB%B3%B4(%ED%94%BC%EC%A7%80%EA%B3%B5%ED%99%94%EA%B5%AD)), 검색일: 2018. 4. 25.

한국노동연구원 해외노동동향(2016. 8. 19.). 베트남, 채용에서의 성차별, 여성에 대한 보이지 않는 벽.

<https://www.kli.re.kr/kli/selectBbsNttView.do?bbsNo=8&key=42&nttNo=128676>, 인출일: 2018. 11. 13.

CEFIA. 교육제도: 우즈베키스탄.

<http://cefia.aks.ac.kr:84/index.php?title=%EA%B5%90%EC%9C%A1%EC%A0%9C%EB%8F%84:%EC%9A%B0%EC%A6%88%EB%B2%A0%ED%82%A4%EC%8A%A4%ED%83%84> 검색일: 2018. 11. 11.

Kotra 베트남.

<http://news.kotra.or.kr/user/nationInfo/kotranews/14/userNationBasicView.do?nationIdx=63>, 검색일: 2018. 4. 21.

The World Bank. Data, Gross enrolment ration, pre-primary, both sexes(%).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SE.PRE.ENRR?end=2016&locations=VN-UZ-FJ&start=2000>, 인출일: 2018. 4. 26.

The World Bank. Data, Pupil-teacher ratio in pre-primary education (headcount basis).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SE.PRE.ENRL.TC.ZS?end=2017&locations=VN-FJ-UZ&start=2000&view=chart>, 인출일: 2018. 4. 26.

The World Bank. Data, Trained teachers in preprimary education (% of total teachers).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SE.PRE.TCAQ.ZS?end=2016&locations=VN-UZ-FJ&start=2000%2C>, 인출일: 2018. 4. 27.

The World Bank. Investing in Children Means Investing in Uzbekistan's Future (2018. 3. 16).

<http://www.worldbank.org/en/news/feature/2018/03/16/investing-in-children-means-investing-in-uzbekistans-future>, 검색일: 2018. 4. 12.

UNESCO Bangkok(2018). Kathmandu Statement of Action - Putrajaya+2: Advancing and Monitoring SDG4.2.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265738>. 인출일: 2018. 11. 20.

Abstract

Needs Assessment and Implementation Plan for ECCE Policy Development and Cooperation in the Asia-Pacific Region

Mugyeong Moon · Yun-Jin Lee · Sook In Cho · Mi ra Cho · Sol Me Lee

The study is part of a three-year project, which aims to support ECCE policy development cooperation in the selected countries (Uzbekistan, Vietnam, & Fiji) in the Asia-Pacific by developing policy consulting models (1st year), implementing action plans on priority policy tasks (2nd year), and monitoring the implementation processes and outcomes (3rd year). The study, carried out as the 1st year of the project, intended to assess the needs of the selected countries and to devise a consulting model for the ECCE development cooperation through a network among relate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ministries.

In order to do so, conducted were literature review, formation of a consortium with UNESCO Bangkok and ARNEC, interviews and/or on-site visits in the selected countries, interviews and surveys with the personnel specialized in development cooperation in Korea, and an international seminar to discuss and disseminate major findings.

Som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common needs of the

selected countries included increased public expenditure on ECCE, improvement in the overall standards and regulations for infrastructure, teacher professional development, curriculum implementation, monitoring system for service quality and collection and utilization of national data. Second, individual needs of the selected countries included: establishment of legal base, expansion of kindergarten facilities, diversification of curriculum implementation, development of quality monitoring indicators for Uzbekistan; teacher training, collaborations among ECCE agencies and support for children with special needs for Vietnam; and investments in facilities, setting standards, and development of quality monitoring indicators for Fiji.

Based on the findings, the study suggested that a consulting model would be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five priority policy areas of SDG4.2 in the Asia Pacific: Financing, Sector Planning, Equity, Quality and Monitoring SDG4.2, in order to identify and monitor the progress on the global indicators of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in ECCE sector in the Asia-Pacific region.

Keyword: Development Assistance, Asia-Pacific Regio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Needs Assessment, Action Plan



부록

- 부록 1. 국내 전문가 조사지
- 부록 2. 아태지역 육아정책 개발협력 수요 조사지(영문)

부록 1. 국내 전문가 조사지

육아정책 및 유관분야 개발협력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전문가 조사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www.kicce.re.kr)는 유아교육과 보육정책을 통합적,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입니다.

육아정책연구소에서는 2018년도 일반과제로 「아태지역 육아정책 개발협력 주요 분석 및 실행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육아정책 및 유관 분야(교육 등) 국제개발협력 연구 및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 대상으로 개발협력 연구 및 사업의 목적, 내용, 추진방법 및 성과, 문제점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제33조(비밀의 보호) 제①, ②항에 의거하여 비밀이 보장되며, 조사결과는 연구목적 외에 다른 어떤 용도로도 이용되지 않음을 알립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사관련 문의

문무경 선임연구위원

☎ 02-398-7710, mgmoon@kicce.re.kr

이솔미 연구원

☎ 02-398-7770, greensm429@kicce.re.kr

I. 귀하의 일반적 배경정보

1) 연령	만 _____ 세
2) 성별	① 남 ② 여
3) 최종학력	① 전문대졸 ② 대졸 ③ 석사 ④ 박사
4) 개발협력사업 경력 (연구 및 사업 모두 포함)	총 _____ 년 _____ 개월 (_____ 년 _____ 월부터 _____ 년 _____ 월까지)
5) 현재 근무기관	① 시민사회단체(NGO 등) ② 코이카(KOICA) ③ 수출입은행 ④ 전문대 ⑤ 정부출연연구기관 ⑥ 대학교/대학원 ⑦ 중앙정부 ⑧ 지자체 ⑨ 공공기관 ⑩ 기타 (적어주십시오. _____)
6) 현재 근무기관의 직위	적어주십시오. _____

(※ 귀하께서 여러 번 국제개발협력 연구 또는 사업에 수행/ 참여하셨다면 최근 5년 동안에 참여한 사업을 중심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II. 수행/참여한 개발협력 연구/사업 기본 정보

1. 귀하가 최근 5년 동안 수행/참여한 모든 개발협력 연구 또는 사업 관련 다음 사항에 대하여 적어 주십시오.

개발협력 연구/사업명	연도 (기간)	재원	예산 (천원)			수행 인원 (명)	대상 국가	사업 내용 및 추진 방법 (자유 기술)	(기대)성과
			기간 내 최소	기간 내 최대	평균 인건비 비율 (%)				

2. 1번 문항의 국가(이하, 대상국으로 지칭)를 개발협력연구와 사업 대상으로 선정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대상국가에서 직접 요청해 와서 ② 국제기구로부터 요청해 와서
 ③ 연구진/사업운영팀이 먼저 선정함 ④ 우리나라 정부에서 선정함
 ⑤ 기타(적어주십시오. _____)
3. 귀하가 수행/참여한 개발협력연구와 사업의 주된 영역(주제)은 무엇입니까? (중복응답 가능)
- ① 의료보건 ② 영양 ③ 교육
 ④ 기타(적어주세요: _____)
- 3-1. 상기 개발협력연구와 사업에 영유아 대상 관련 사업(영유아기 의료보건, 영양, 돌봄, 영유아교육, 영유아 부모지원 관련 등)이 포함되었습니까?
- ① 예 (☞ 문 3-2로 이동) ② 아니오(☞ 문 4로 이동)
- 3-2. 만약 포함 되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의 사업을 지원했습니까?
- ① 의료보건 ② 기자재 공급
 ③ 교실 지원 ④ 프로그램 지원
 ⑤ 교사 훈련
 ⑥ 기타(적어주십시오. _____)
4. 대상국의 육아지원 개발협력 연구와 사업을 위하여 실시한 수요조사의 대상을 모두 골라 주십시오.
- ① 실시한 적 없음 (☞ 문 7로 이동) ② 해당 대상국의 정부 및 지자체 공무원
 ③ 대상국의 학계 전문가 ④ 대상국의 교원
 ⑤ 대상국의 부모(가구) ⑥ 우리나라 국내 전문가
 ⑦ 국제기구 관계자 ⑧ ODA 관련기관(예: 코이카, 수출입은행)
 ⑨ 기타(적어주십시오. _____)
5. 대상국의 육아지원 개발협력 연구 또는 사업을 위하여 실시한 수요조사 방법을 모두 골라 주십시오.
- ① 설문조사 ② 개별 면담조사
 ③ 전문가 협의회 ④ 문헌조사
 ⑤ 기타(적어주십시오. _____)

6. 어느 대상과의 수요조사 결과를 육아지원 개발협력 연구 또는 사업에 우선적으로 반영하였는지 다음 중 하나를 골라주십시오.

- ① 대상국의 정부 및 지자체 담당공무원
- ② 대상국의 학계 전문가
- ③ 대상국의 교원
- ④ 대상국의 부모(가구)
- ⑤ 우리나라 국내 전문가
- ⑥ 국제기구 관계자
- ⑦ 기타(적어주십시오. _____)

7. 대상국과의 개발협력 형태를 다음 중에서 모두 골라 주십시오.

- ① 프로젝트/프로그램 지원
- ② 국내초청연수(교사, 공무원연수 등)
- ③ 물자지원(시설 및 기자재 지원)
- ④ 전문가 및 봉사단 파견
- ⑤ 유학생 지원
- ⑥ 정책컨설팅
- ⑦ 국제기구협력
- ⑧ NGO/PPP
- ⑨ 기술협력
- ⑩ 기타(적어주십시오. _____)

8. 대상국과의 개발협력 재원 유형을 다음 중에서 모두 골라 주십시오.

- ① 유상
- ② 무상
- ③ 유무상 혼합
- ④ 민간 재원
- ⑤ 민간협력(PPP 등)
- ⑥ 기타(적어주십시오. _____)

9. 귀하와 사업 참여/담당 인력은 개발협력 연구/사업을 진행하면서 대상국을 총 몇 회 방문하였습니까? (사전조사 포함)

총 _____ 회 방문

10. 귀하께서 참여한 개발협력 연구/사업이 지속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지속적임
- ② 단발적이며, 지속적이지 않음

10-1.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그 이유는 무엇인지 간략히 적어주십시오.

Ⅲ. 개발협력 연구/사업 수행과정의 어려움

11. 귀하께서 개발협력연구와 사업을 수행하면서 경험한 어려움의 정도를 다음 항목별로 표시해 주십시오.

내용	전혀 어렵지 않다	대체로 어렵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어렵다	매우 어렵다
1) 해당 협력국에 대한 정확한 정보 수집 (현황 및 수요 파악 등)	①	②	③	④	⑤
2-1) 협력국 담당자와의 의사소통	①	②	③	④	⑤
2-2) 언어 차이 (통번역의 어려움)	①	②	③	④	⑤
3) 지원예산 확보	①	②	③	④	⑤
4) 사업기간 제한 (시작부터 종료까지 시간)	①	②	③	④	⑤
5) 해당 협력국의 지리적 여건 (교통불편 등)	①	②	③	④	⑤
6) 여타 유관기관과의 협력	①	②	③	④	⑤
7) 실행기관 내 제도 및 규정으로 인한 어려움	①	②	③	④	⑤
8) 문화, 법, 제도 등의 차이	①	②	③	④	⑤
9) 성과지표 개발	①	②	③	④	⑤
10) 모니터링 수행	①	②	③	④	⑤
11) 사업 수행 연구진의 전문성 부족	①	②	③	④	⑤

위 1)-11)의 항목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하거나, 기타 어려움이 있으신 경우, 자유롭게 적어주십시오.

12. 문 11(항목별 어려움)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한(④, ⑤로 응답한 경우) 항목별로 귀하가 생각하시는 개선 사항 또는 개선 방법을 적어 주십시오.

내용	개선 사항/ 개선 방법 (구체적으로 적어주십시오)
1) 해당 협력국에 대한 정확한 정보 수집 (현황 및 수요 파악 등)	
2-1) 협력국 담당자와의 의사소통	

2-2) 언어 차이(통번역의 어려움)	
3) 지원예산 조달	
4) 사업기간 제한 (시작부터 종료까지 시간)	
5) 해당 협력국의 지리적 여건 (교통불편 등)	
6) 여타 유관기관과의 협력	
7) 실행기관 내 제도 및 규정으로 인한 어려움	
8) 문화, 법, 제도 등의 차이	
9) 성과지표 개발	
10) 모니터링 수행	
11) 사업 수행 연구진의 전문성 부족	
12) 기타(적어주세요)	

IV. 개발협력사업의 모니터링 및 평가

13. 귀하께서 해당 협력국의 개발협력 사업을 수행하면서 실시한 모든 모니터링 및 평가에 대하여 적어 주십시오.

구분	실시여부 (O/X)	실시 횟수	실시 방법 (적어주세요)	평가자 (적어주세요)
① 평가하지 않음				
② 사전평가		___회		
③ 중간평가		___회		
④ 사후평가		___회		
⑤ 기타 모니터링		___회		
⑥ 대상국의 평가		___회		

14. 문 13에서 실시한 평가 중에서, 향후 개발협력 연구와 사업을 위하여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평가를 순위별로 2개 골라 번호로 작성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	-----	--

V. 우리나라 육아정책 및 교육 분야 개발협력 발전 방안

15. 육아정책 분야(및 교육 분야)의 개발협력이 성과를 산출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하여 우리정부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자유롭게 기술해 주십시오.

16. 귀하께서 알고 계시는 육아 또는 교육분야 정책컨설팅에 대한 국내외 개발협력 연구/사업 사례 또는 보고서 제목과 수행기관(저자)을 적어주십시오.

--

♣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록 2. 아태지역 육아정책 개발협력 수요 조사지(영문)

Needs Assessment on ECCE Policy in Asia-Pacific Nations

About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KICCE)

KICCE(www.kicce.re.kr) is a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 affiliated with the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under Prime Minister's Office.

About the Questionnaire

KICCE is conducting 「Study on Needs Assessment and Implementation Plan for ECCE Policy Development and Cooperation in Asia-Pacific Region」. As part of the study, the needs assessment questionnaire is conducted for the Asia-Pacific countries'(Uzbekistan, Vietnam and Fiji) government officials, academics and practitioners in order to identify the current status and issues of the countries' ECCE policy and issues and to devise future development cooperation plan.

All information collected in the study will be treated confidentially and will not be used for any other purposes than the study.

October, 2018

President of KICCE Sun-Hee Baek

Contact info

PI : Dr. Mugyeong Moon ☎ 02-398-7710, mgmoon@kicce.re.kr
Research Team : Sol Me Lee ☎ 02-398-7770, greensm429@kicce.re.kr

3. Please briefly describe your experience in development cooperation in ECCE sector (you may write about up to five different projects).

No.	Cooperated Country	Cooperated Institute	Contents of development cooperation
1)			① Financial support ② Technical support ③ Support related to programs ④ Food aid ⑤ Support for international students and trainees from the cooperated country ⑥ Teacher training in the cooperated country ⑦ Humanitarian aid(support for disasters such as earthquake and flood) ⑧ Other (Please write below:) (_____)
2)			① Financial support ② Technical support ③ Support related to programs ④ Food aid ⑤ Support for international students and trainees from the cooperated country ⑥ Teacher training in the cooperated country ⑦ Humanitarian aid(support for disasters such as earthquake and flood) ⑧ Other (Please write below:) (_____)
3)			① Financial support ② Technical support ③ Support related to programs ④ Food aid ⑤ Support for international students and trainees from the cooperated country ⑥ Teacher training in the cooperated country ⑦ Humanitarian aid(support for disasters such as earthquake and flood) ⑧ Other (Please write below:) (_____)
4)			① Financial support ② Technical support ③ Support related to programs ④ Food aid ⑤ Support for international students and trainees from the cooperated country ⑥ Teacher training in the cooperated country ⑦ Humanitarian aid(support for disasters such as earthquake and flood) ⑧ Other (Please write below:) (_____)

No.	Cooperated Country	Cooperated Institute	Contents of development cooperation
5)			① Financial support ② Technical support ③ Support related to programs ④ Food aid ⑤ Support for international students and trainees from the cooperated country ⑥ Teacher training in the cooperated country ⑦ Humanitarian aid(support for disasters such as earthquake and flood) ⑧ Other (Please write below:) (_____)

4. Among the experience mentioned above, please write in more details about the most recent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 in ECCE sector.

1) Cooperated country and institute	
2) Period of the project	from _____, _____(month/year) to _____, _____(month/year)
3) Purpose of the development cooperation	
4) Contents of the development cooperation	
5) Methods of project	
6) Main outcomes	
7) Main challenges and areas that need improvement	

5. How satisfied are you with the development cooperation experience mentioned in question 4?

Very dissatisfied	Somewhat dissatisfied	somewhat satisfied	Very satisfied

5-1. Why are you satisfied to the degrees mentioned above?

III. Your country's ECCE ministries and related policies

6. What is your country's ministry or department in charge of ECCE?

7. What are the main policies that are enforced by the ministry/department mentioned above in question 6?

8. Which of the following tasks do you consider to be the priorities for the development of ECCE in your country? Please choose the first and second priorities.

1 st priority		2 nd priority	
--------------------------	--	--------------------------	--

- | | |
|---|--|
| ① Provision of free ECCE services | ④ Service quality monitoring |
| ② Improvement of ECCE teacher training, qualifications and working conditions | ⑤ Improvement of ECCE facilities and environments(space, sanitation, safety) |
| ③ National curriculum planning and implementation | ⑥ Parent education and support policy |
| | ⑦ Other () |

IV. Your Country's Needs on ECCE Policy development cooperation

[Direction: Please mark(√) the appropriate choice according to how much you think each item is needed.]

Items	1	2	3	4
	Not needed at all	Not needed	Some what needed	Very much needed
10. Overall environments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10-1) Indoor space				
10-2) Outdoor space				
10-3) Sanitation				
10-4) Safety				
10-5) Drinking water and electricity				
10-6) Learning materials				
10-7) Human and financial resource management				
11. The quality of teachers and overall working environments				
11-1) Improving teaching qualifications				
11-2) Teacher training				
11-3) Teacher in-service training				
11-4) Teacher's class management				
11-5) Teacher's pedagogy				
11-6) Teacher's welfare				
11-7) Leadership of the leader				
11-8) Leader's welfare				
12. Overall development of young children				
12-1) Physical health and wellbeing				
12-2) Social competency				
12-3) Emotional maturity				
12-4) Language and cognitive development				
12-5) Communication skills				
13. Overall curriculum at the national level				
13-1) Usefulness of the curriculum				
13-2) Teacher's understading of the curriculum				
13-3) Implementation of the curriculum				
14. Overall parent education and support				
14-1) Parent education program				
14-2) Parent support policy				

**V. Request for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KICCE)
on your country's ECCE policy development cooperation**

15. Please write whatever request you have for KICCE on what we could help you with related to ECCE policy development cooperation.

♣ Thank you ♣

아태지역 육아정책 개발협력
수요 분석 및 실행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ISBN 979-11-87952-90-9